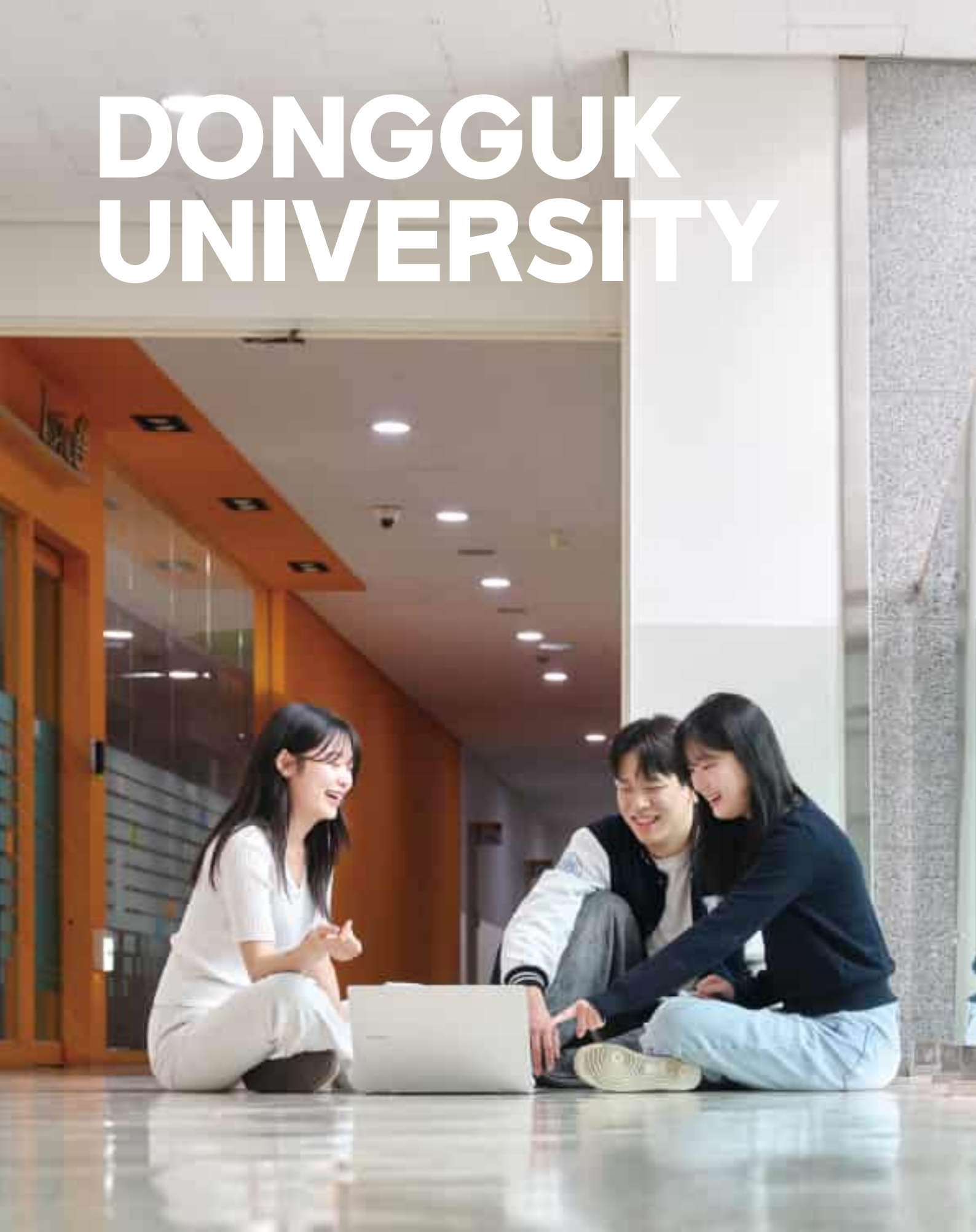
2027
동국대학교

논술전형 가이드북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CONTENTS

2027 동국대학교 논술전형 가이드북

DONGGUK INITIATIVE

004 동국대학교 소개
016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안내
026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특징 및 유의사항
027 논술전형 및 논술고사 관련 FAQ
029 논술 작성 Tip
030 2026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

035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039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042 2025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046 2025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051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056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060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064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068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072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076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080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자연계열

085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088 2025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090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094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104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108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01

Student Growth, Our Achievement

DONGGUK UNIVERSITY

학생의 성장이 곧 동국의 성과

1

Vision

배움은 성취로, 경험은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교실을 넘어 현장에서 학생의 가능성이 완성됩니다.
동국대학교는 도전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는 성과로 만들어 학생의 미래를 키워갑니다.

전략목표

건학 이념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영·인프라
세계적 불교 중심 대학	확장형 인재 플랫폼 대학	인류 지속성장 기여 연구 선도 대학	미래 산업 선도 대학	미래 가치 창출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

발전목표

국내 TOP 3

글로벌 TOP 50

핵심가치

IDENTITY	IMAGINE	INVENT	INFLUENCE
불교적 가치	이타적 상상	연기적 창발	선도적 공헌
불교 정신의 세계화에 기여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연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딩 대학	지속가능한 가치창출로 인류발전에 공헌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2023~2026)

4년간 87억원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2024~2029)

5년간 150억원

1인당 연간 장학금

3,567,100원

대학알리미 공시정보(2024)

연간 장학금(2024)

약 482억원

대학지원체계(RISE)

2025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수주

서울특별시

총 150억원

경기도

총 11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
(2023~2028)

6년간 109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최우수 S등급 획득

102억원 수주

중앙일보 대학평가 5년 연속 Top 10

종합순위

8위

8위
고교생 선호 대학

8위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10위
대학 브랜드파워 지수(BPI)

9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02

The New Standard of Future Talent

DONGGUK UNIVERSITY

미래 인재의 새로운 기준, 창의융합인재

Leader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의 창의융합인재,
창의는 질문에서 시작되고, 융합은 실천으로 완성되어
전공의 경계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동국대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에 응답하는 새로운 기준의 창의융합인재를 키워갑니다.



인재상 다양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인재

교육모델 Multi-Inter-Trans 단계별 교육모델

1학년 Multi	2-3학년 INter	4학년 Trans
		
인간·문화·학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	주변 사람, 인접 문화 및 학문 간 공통점과 상호 연결성 이해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 형성
전공결정	**전공이수**	**다전공이수**
열린전공학부	전공(다전공)	

	Step 1 Diversity	Step 2 Interconnectivity	Step 3 Universality
인간	개인 간 다양성 이해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점 이해	**타인과 공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 형성
문화	문화 간 다양성 이해	인접 문화들 간의 공통점 이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 속에 공존하는 보편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 형성
학문	학문 간 다양성 이해	인접 학문들 간의 공통점 이해	**융합형 인재**로서, 다양한 학문 간 공통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 형성

융복합 교육을 통한 창의혁신 인재

(문화콘텐츠 기반의 창의, 디지털 기반의 혁신)

03

Creative Convergence for Future Talent

DONGGUK UNIVERSITY

미래형 인재의 완성, 창의융합교육

Education

전공과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능력을 키워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완성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마중학과/대학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을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마중교과목을 개발하는 학과 및 대학**

15개 학과/대학 총 35개 마중교과목 운영 <예시>

- **문과대학** 빅데이터를 위한 인문학
- **공과대학** 어드벤처디자인
- **경찰행정학부** 진술분석과 소셜컴퓨팅
- **생명과학과** 시스템생물학 등

마중이란?
마중(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함)과 마중물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은 마중물이 되고 자신의 전공에 이를 맞이하는 학과 혹은 단과대학은 마중학과 혹은 마중대학이 됩니다.



모듈형

학점·모듈 단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으로 학위의 부여 없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나노디그리

미래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학문 분야의 능력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6학점 이상 12학점 이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 **N데이터사이언스**
- **N추천 시스템**

마이크로디그리

창의·융합형 사고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0학점 이상 15학점 이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다전공

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등 전공제도를 통칭하는 용어로 소속 전공 외에도 다른 전공의 소정 학점을 이수하면 전공 이수로 인정하여 복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융합전공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복수전공

소속 학과(전공) 이외의 다른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학생설계 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직접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04

Dreams into Reality, Dream PATH

DONGGUK UNIVERSITY

꿈을 설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Dream PATH

Dream

동국대학교만의 노하우를 집약한 'Dream PATH'는
교과와 비교과활동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학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꿈과 성장을 돕습니다.



꿈을 그리다.
길을 찾다.
현실이 되다.
Dream PATH

Dream PATH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Path

재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및 경로

Pathfinding & Analyzing

미래를 탐색하고
환경을 분석

Thinking & Helping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학교가 지원

5대 핵심역량

- **창의융합역량** —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y
- **디지털역량** — Digital Competency
- **자기개발역량** — Self-development Competency
- **소통협력역량** —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Competency
- **글로벌시민역량** —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역량진단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따라 맞춤형 진로
설계를 제시하고
필요한 역량 확인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필요한 역량을 체크하고
도달 과정을 점검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마일리지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후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라
장학금 지급



My Portfolio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활동을 기록해
포트폴리오로 활용



성공적인 사회진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

05

The Future Grows Here

DONGGUK UNIVERSITY

더 큰 세상으로, 글로벌 동국

Global

58개국 360개 대학과 교류하며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동국대학교.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o the Wider World with Global Dongguk.

EUROPE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University of Southampton

프랑스
Paris Cité University,
University of Bordeaux

스페인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노르웨이
University of Oslo

스웨덴
Lund University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오스트리아
University of Vienna

독일
University of Hamburg

ASIA

중국
Tsinghua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일본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yushu University

인도
IIT-Bombay

태국
Mahidol University

말레이시아
University of Malaya





Global Program

외국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동국벗(Bud)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의 1:1 매칭으로 외국인 교환학생의 유학생활 정착을 서포트하고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전 세계 20여 개국의 학생들과 세계적인 대학에 소속된 교수진과의 토론 수업은 물론,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교환학생 1명과 재학생 2~3명이 튜터링 그룹을 조직해 다양한 외국어를 자율적으로 학습합니다.

해외 실무경험으로 국제감각을 익히는 해외인턴십

2개월에서 1년까지의 파견기간 동안 직무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키웁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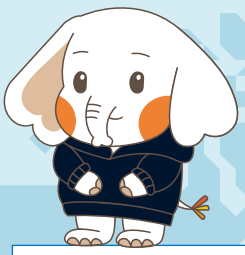
영미권, 중화권, 일본의 해외자매 대학에서 6개월 또는 1년간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시점 기준 1학기 이상 이수자, 평균 평점 3.0 이상, 파견대학별 지원자격 및 어학기준 충족시 지원가능

국제적 무대에서 전공분야의 네트워크를 쌓는 복수학위

동국대학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고 두 대학 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tony Brook, University of Texas-Dallas, 중국 동북사범대, 국립 대만사범대, 일본 니가타대학 등의 학위 취득 가능



AMERICA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rooklyn Colleg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에콰도르
Universidad Internacional del Ecuador

브라질
University of Sao Paulo





전세계 교류 대학

58개국 360개 대학

2025년 11월 기준 대학교류 현황

외국인학생 비율

국내 12위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IEQAS 인증대학

2026.3 ~ 2030.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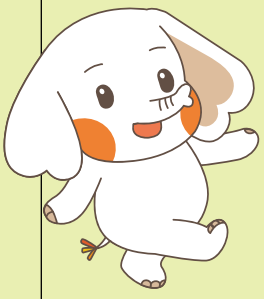
Enjoy Dongguk Life to the fullest

DONGGUK UNIVERSITY

신나게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동국라이프

Dongguk Life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 그 중심에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

동국대학교 캠퍼스와 연결된 남산에서 호젓하게 산책하고,
캠퍼스 위쪽에 자리한 N서울타워에서 감상하는 서울 풍경이란!

3호선 동대입구역 / 3·4호선 충무로역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 한옥마을

전통 한옥이 이어진 골목을 따라 걸으며 옛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전통과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만나요.

3호선 안국역





ROUTE MAP





시간이 겹쳐지는 서울의 중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 패션, 디자인을 한 공간에서 경험해요.
낮에는 배움의 공간, 밤에는 활기찬 거리로 낮에는 산책이, 밤에는 빛이 기억이 되는 장소에요. 걷다 보면 서울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할거에요.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 광화문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광화문.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동상과 조선왕조 궁궐 경복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까지 모두 만날 수 있어요.

3호선 경복궁역 / 5호선 광화문역



에너지 넘치는 명동

쇼핑, 영화 관람, 맛집 탐방까지. 명동에선 이 모든 걸 한 번에 누릴 수 있어요. 친구와 구경하거나,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이랍니다.

2호선 을지로입구역
4호선 명동역





전통과 예술의 만남, 인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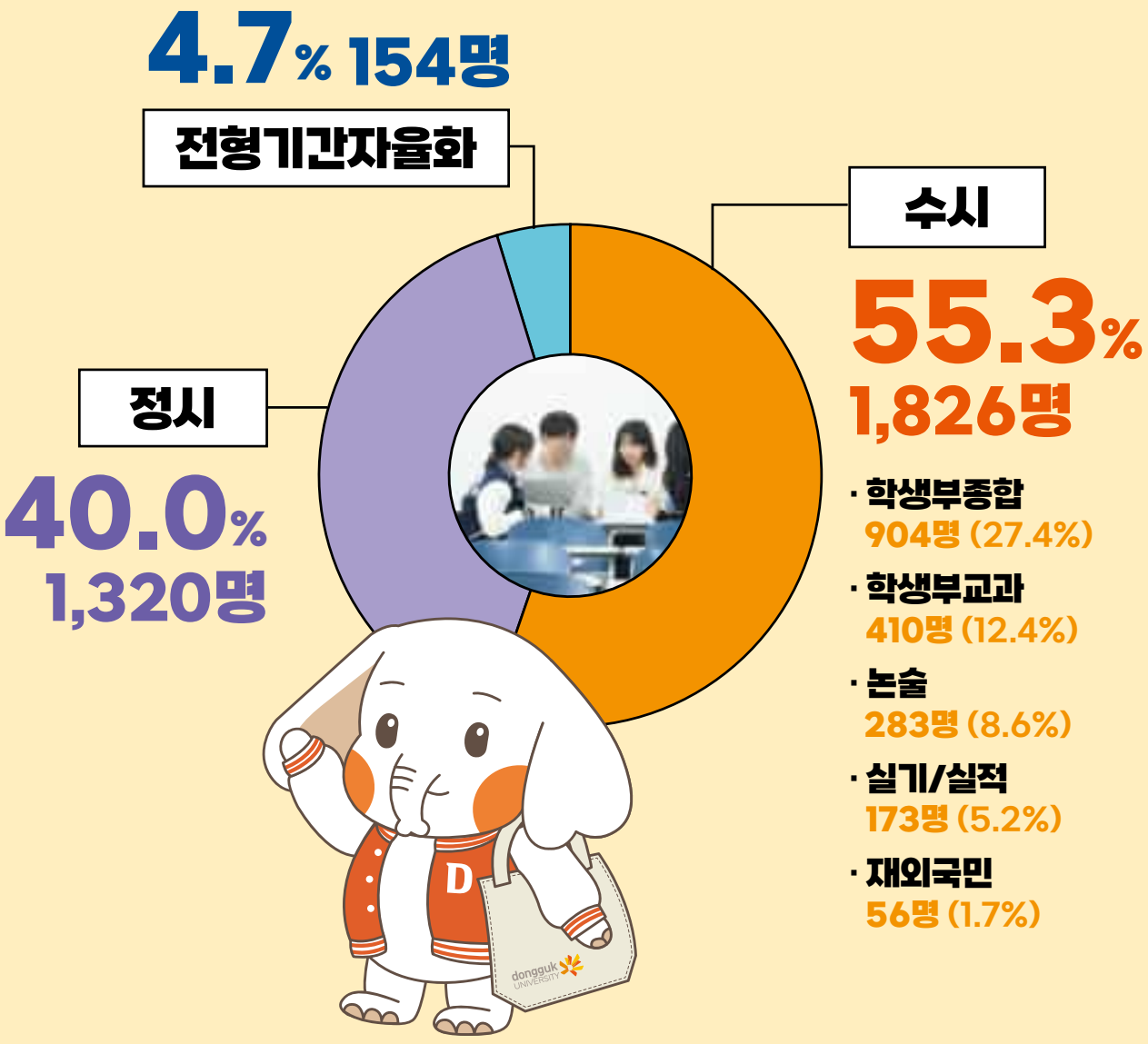
서울의 중심에서 전통문화를 즐기며, 골목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3호선 안국역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사항 안내

신입학 전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원 전 미리 확인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본 전형 안내는
<2027학년도 신입학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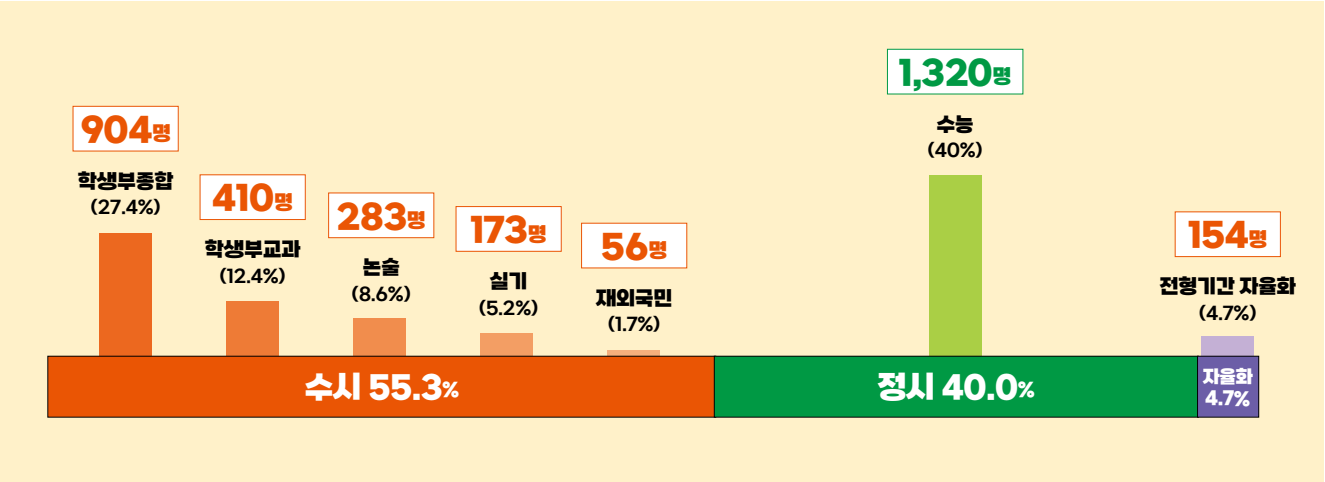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 총괄 현황표 (※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	Do Dream		656	19.9
		불교추천인재		108	3.3
		기회균형	기회균형통합	132	4.0
			특수교육대상자	8	0.2
	학생부종합 계			**904**	**27.4**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인재		410	12.4
	논술	**논술**		**283**	**8.6**
	실기/실적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체육교육과 / 미술학부 / 한국음악과		111	5.2
		연극학부	실기형	38	
			특기형	2	
		스포츠문화학과		22	
	[재외국민]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56	1.7
수시모집 계				**1,826**	**55.3**
정시 가군	수능	일반		433	13.1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41	1.2
			특성화고교졸업자	8	0.2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16	0.5
정시 나군		일반		418	12.7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45	1.4
			특성화고교졸업자	6	0.2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22	0.7
정시 다군		일반		315	9.5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9	0.3
			특성화고교졸업자	3	0.1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4	0.1
정시모집 계				**1,320**	**40.0**
전형기간 자율화	[재외국민]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특성화고등을 졸업한재직자	1차	면접형	58	
			서류형	90	
		2차	서류형	6	
		3차		미충원	
전형기간 자율화 계				**154**	**4.7**
총계				**3,300**	**100**

2027학년도 주요 전형방법

전형유형	전형명	구분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생부종합	**Do Dream / 불교추천인재 기회균형통합**	1단계(2~6배수)	서류종합 100%	미적용
		2단계	면접 30% + 1단계성적 70%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인재**	일괄	학생부교과 70% + 서류종합 30%	
논술	**논술**	**일괄**	**논술 70% + 교과 20% + 출결 10%**	**적용**
수능	**수능** 일반(인문·자연계열/영화영상학과)	일괄	일반전형(가/나군) : 수능 100%	미적용
			일반전형(다군) : 수능 90% + 학생부평가 10%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모집 선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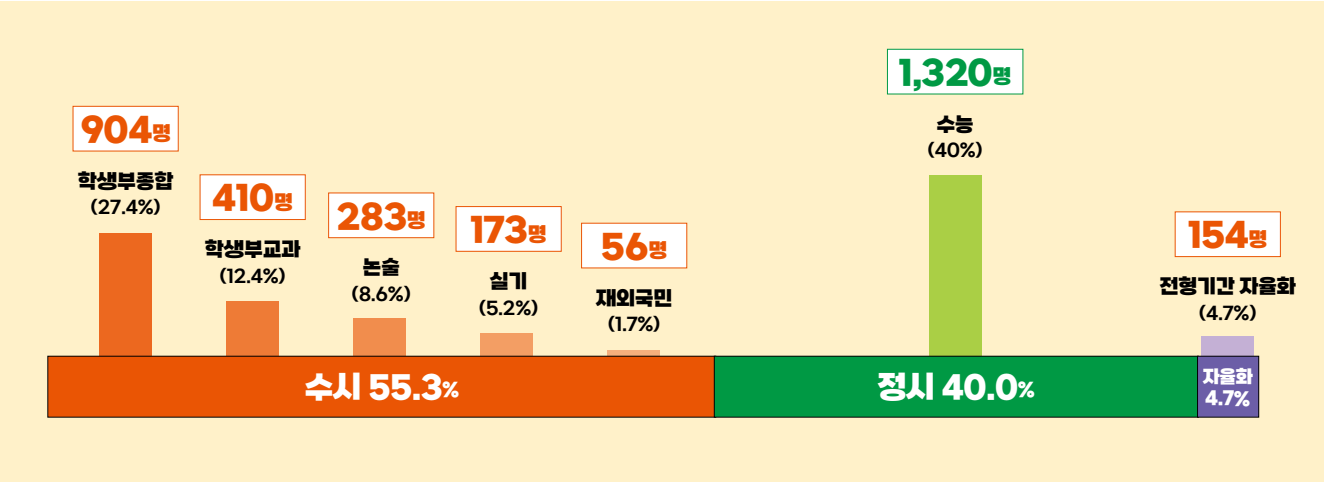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	재외국민	수시모집계
		Do Dream	불교추천인재	기회균형		학교장 추천인재	논술	실기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기회균형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불교	불교학부		일반 20 승려 20	2		3				45
	문화유산학과	3	일반 2 승려 5			3			1	14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8		2		5	6	23	2	46
	영어영문학부	16	3	4		8	9		2	42
	일본학과	7		2		3	5		1	18
	중어중문학과	7	2	3		5	5		2	24
	철학과	5				2	5			12
	사학과	7		2		4	4		1	18
이과	수학과	9		2		4	4		1	20
	화학과	9		3		4	4		1	21
	통계학과	9	2	3		4	4		1	23
	물리학과	9				4			1	14
법과	법학과	20	3	6	1	11	12		2	55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8	2	2		5	6		2	25
	행정학전공	6	2	2		5	6		2	23
	북한학전공	7				3				10
	경제학과	17	3	6		10			1	37
	국제통상학과	12	2	3		6	12		2	37
	사회학전공	8				4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0	2	3		6	5		2	28
	식품산업관리학과	8		2		3				13
	광고홍보학과	10	2	3		6	6		2	29
	사회복지학과	5	2		1	3				11

대학	모집단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실적	재외국민	수시모집계
		Do Dream	불교추천인재	기회균형		학교장추천인재	논술	실기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기회균형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10	2	3		6	인문 13 자연 5		3	42
경영	경영대학★	65	5	8	1	23	37		5	144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시스템대학★						10			10
	융합환경과학과	20	2	2		10				34
	생명과학과	11		3		9				23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13	2	3		10			1	29
	의생명공학과	10		3		8			1	22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30	4	6	1	13	22		4	80
	정보통신공학과	20	2	4	1	7	12		1	47
	건설환경공학과	12	2	3		8	7			32
	화공생물공학과	14	2	4		8	7		2	37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7	2	4		10	12		2	57
	건축공학부	16	2	3		8	5			34
	산업시스템공학과	12	2	4		8	6		1	33
	에너지신소재공학과	18	2	3		9	8		1	41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	64	3	5	1	10	인문 4 자연 20		4	111
	시스템반도체학부	16	2	2		6	5		1	32
	의료인공지능공학과	11	2	2		5	4			24
	지능형네트워크융합학과	9		2		4				15
사범	교육학과	6		2	1	4	4			17
	국어교육과	8		2	1	5			1	17
	역사교육과	8		2		6				16
	지리교육과	8		2		6				16
	수학교육과	6		2		4	4		1	17
	가정교육과	9		2		5				16
	체육교육과							22		22
예술	불교미술전공							15		15
	한국화전공							15		15
	서양화전공							15		15
	조소전공									–
	연극학부	10						실기 38 특기 2		50
	영화영상학과	11		2		3			2	18
	스포츠문화학과							22		22
	한국음악과							21		21
약학	약학과	12				4	5			21
열린전공학부★				인문 2 자연 2		인문 50 자연 50				104
계		656	108	132	8	410	283	173	56	1,826

1)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우리 대학 학칙개정, 편제 및 정원조정 등에 따라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 가능
2) 수시모집 정원내 전형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동일 모집단위로 선발
3) 「★」 2025.04. 기준 광역화 모집단위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정시모집 선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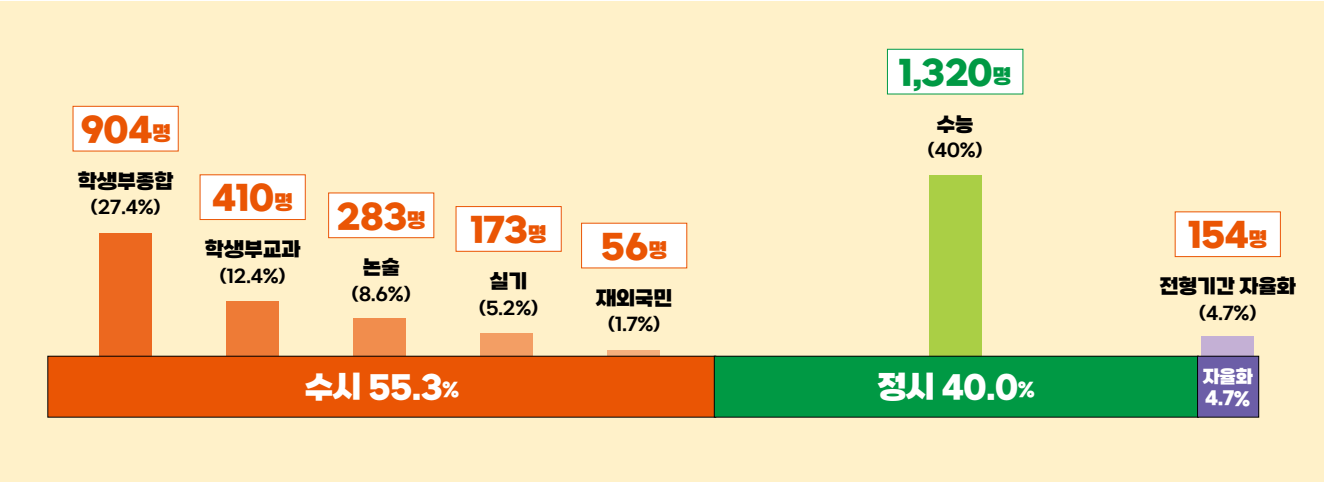


대학	모집단위	수능												정시 모집 계
		일반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정원내			정원외									
불교	불교학부		18											18
	문화유산학과	2									2			4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12			2						2		16
	영어영문학부	37			2						2			41
	일본학과		10			2								12
	중어중문학과	14			2									16
	철학과		4									2		6
	사학과		10			2								12
이과	수학과		10			2								12
	화학과	12			2									14
	통계학과		14			2								16
	물리학과	8			2									10
법과	법학과		47			4						2		53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13			2						2		17
	행정학전공	15			2									17
	북한학전공	4									2			6
	경제학과	39			2									41
	국제통상학과	26			2			2						30
	사회학전공		8			2								1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19			2						2			23
	식품산업관리학과	10			2									12
	광고홍보학과		18			2						2		22
	사회복지학과	4									2			6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23			2								25

대학	모집단위	수능												정시 모집 계
		일반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	
		정원내			정원외									
경영	경영대학★			99			5			3			4	111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시스템대학★			24										24
	융합환경과학과	16			2			2			2			22
	생명과학과	9			2									11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16			2								18
	의생명공학과		9			2						2		13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67			6			2			2			77
	정보통신공학과		31			2			2			2		37
	건설환경공학과		14			2			2			2		20
	화공생물공학과		26			2						2		30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39			3						2			44
	건축공학부	18			2			2						22
	산업시스템공학과	27			2									29
	에너지신소재공학과	28			2									30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		인문 7 자연73			6			2					88
	시스템반도체학부		23			2						2		27
	의료인공지능공학과	14			2									16
	지능형네트워크융합학과		8			2								10
사범	교육학과			11										11
	국어교육과			12										12
	역사교육과			11										11
	지리교육과			11										11
	수학교육과			11										11
	가정교육과			11										11
	체육교육과	11												11
예술	불교미술전공													–
	한국화전공													–
	서양화전공													–
	조소전공		15											15
	연극학부													–
	영화영상학과	14			2									16
	스포츠문화학과													–
	한국음악과													–
약학	약학과		9			3						2		14
열린전공학부★				인문 67 자연 58			인문 2 자연 2							129
계		433	418	315	41	45	9	8	6	3	16	22	4	1,320

1)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우리 대학 학칙개정, 편제 및 정원조정 등에 따라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 가능
2) 수시모집 정원내 전형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동일 모집단위로 선발
3) 「★」 2025.04. 기준 광역화 모집단위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전형기간 자율화 선발인원



대학	모집단위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면접형	서류형	서류형	서류형		
			1차 (수시모집 기간)		2차 (정시모집 기간)	3차 (추가모집 기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간)	
불교	불교학부						모집단위별 약간 명	모집단위별 약간 명
	문화유산학과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문예창작학/뉴미디어한국어문화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영어통번역학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이과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법과	법학과							
사회과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행정학						
		북한학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대학	모집단위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면접형	서류형	서류형	서류형		
			1차 (수시모집 기간)		2차 (정시모집 기간)	3차 (추가모집 기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간)	
사회과학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					모집단위별 약간 명	모집단위별 약간 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산업보안/범죄과학/교정학						-
경영	경영대학(단과대학 모집)★							모집단위별 약간 명
바이오시스템	융합환경과학과						모집단위별 약간 명	
	생명과학과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축공학부	건축공학/건축학						
	산업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							
	시스템반도체학부							
예술	영화영상학과							
미래융합	범죄학과		19	22	2	1, 2차 미충원		
	사회복지상담학과		19	22	2	1, 2차 미충원		
	글로벌무역학과		20	46	2	1, 2차 미충원		
계			58	90	6	-	-	

1) 「★」 2025.04. 기준 광역화 모집단위

2027학년도 「논술전형」

(1) 지원자격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증을 취득한 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해당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갖춘 자

(2) 전형방법 및 배점

구분		전형요소 및 방법			
		학생부		논술	수능최저학력기준
		교과	출결		
전형방법(%)	일괄	20	10	70	적용
배점(점)	최고점	200	100	700	-
	기본점수	100	50	350	-

(3)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반영영역 및 적용기준(이내)	비고
인문계열/열린전공학부(인문)		국어/수학/영어/탐구 2개 영역 등급 합 5 [한국사 4등급]	
자연계열/열린전공학부(자연)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컴퓨터·AI학부	인문		수학 포함
	자연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경찰행정학부		국어/수학/영어/탐구 2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인문/자연 공통
약학과		국어/수학/영어/탐구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4등급]	수학 또는 과학탐구 1개 이상 포함

1) 전(全)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없음
2) 탐구영역은 사회/과학탐구 2과목 중 상위 1과목만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 대체 없음

(4) 논술고사 개요

출제방식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형태	고교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한 제시문 기반의 종합적 사고능력(이해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표현능력 등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	고교교육 과정의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적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풀이과정 중심의 수리논술
출제 범위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 사회(역사/도덕포함)교과,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교과 -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기하 -
문항 수	3개 (영어지문 없음)	3개 (소문항 출제 가능)
문항 구성 및 답안 분량	① 문항 2개 : 400자 이내 ② 문항 1개 : 700자 이내	① 문항 2개 : 15줄 이내 ② 문항 1개 : 27줄 이내
고사 시간	100분	90분
대상 모집단위	인문계열 모집단위/열린전공학부(인문) 경찰행정학부(인문)/컴퓨터·AI학부(인문)	자연계열 모집단위/열린전공학부(자연) 경찰행정학부(자연)/컴퓨터·AI학부(자연)

평가 기준	
–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 능력(문제해결력), 논리력, 분석력 등의 종합적 사고 능력, 표현의 정확성(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문항별 채점기준에 따라 7점 척도로 평가 – 3개 문항 배점의 합은 100점이 만점이며, 문항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반영총점(700점)으로 환산	
유의사항	
응시 관련	– 경찰행정학부(자연) 지원자는 자연계열 논술고사 응시 – 컴퓨터·AI학부(인문) 지원자는 인문계열 논술고사 응시
작성관련	– 답안 작성은 제공된 답안지 1장에 흑색 볼펜만 사용 가능(연필, 샤프 사용불가) – 수정 시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 활용 – 답안지(여백 포함)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을 암시하는 내용 표시 금지 – 문항별 지정된 답안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반영단계	교과			출결		
				반영비율	반영총점	기본점수	반영비율	반영총점	기본점수
수시	논술	논술	일괄	20%	200	100	10%	100	50

※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조기졸업은 2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반영
※ 검정고시 합격자 등 학생부가 없거나 산출 불가능한 자는 비교내신 산출

■ 교과

–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한국사 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총점으로 환산
– 교과 성적 반영 시 교과별·학년별 반영비율과 각 과목별 이수단위 적용하지 않음

(단위 : 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	9.97	9.93	9.9	9.8	8.7	7.0	6.0	5.0
1등급 점수와의 차이		-0.03	-0.07	-0.1	-0.2	-1.3	-3.0	-4.0	-5.0

– 산출방법: [{Σ(등급점수 ÷ 반영과목 수) ÷ 최대등급점수(10점)}] × 반영총점
– 지정교과별 인정과목 선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교과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교과영역 구분이 없거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목명을 기준으로 반영

■ 출결

(단위 : 점)

결석일수	3일 이하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18일	19~21일	22~24일	25일 이상
환산점수	10	9.4	8.8	8.2	7.6	7	6.4	5.8	5

– 「결과·지각·조퇴」의 미인정·무단(사고)는 3회당 결석 1일로 반영(소수점 이하는 절사)
–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

■ 학생부 반영 불가 대상자 비교내신 산출

비교내신 적용대상	적용방법
○ 2022년 2월 이전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자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 국외고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석차등급 산출불가능한 자 ○ 반영과목수가 10과목이 되지 않는 자	논술고사 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 학교폭력 조치사항 전형별 반영방법(조치사항에 따라 차등감점 적용)

조치사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감점점수	0점			100점	200점	300점	400점	불합격(사정제외)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특징 및 유의사항



인문계열

논술고사 특징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출제 원칙은 “고교교육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이나 내용은 배제**하며, 영어지문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지향해왔습니다.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하여 출제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주요 특징은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의 지문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춘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문이 6~12개로 읽어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글의 종류가 설명문, 논설문 등으로 다양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문, 사회, 자연, 철학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제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비교를 통한 제시문의 요약, ②중심화제에 대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③견해나 대안 제시 등입니다. 외연적으로는 3가지 유형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지만, 주어진 논점을 토대로 추론하여 요구에 맞는 답을 제시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②와 ③의 비중과 배점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이나 정형화된 답안으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발휘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인문, 사회, 문화, 고전 등에 걸친 다양한 독서 경험을 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제를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수험생이 각 지문을 아우르는 공통 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논지를 풀어내는지를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논술고사 유의사항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인문 Ⅰ과 인문 Ⅱ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인문 Ⅰ과 인문 Ⅱ 간 기출 방향의 차이는 없고, 지원인원을 고려해 시간대를 안배한 것입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사시간은 100분입니다. 작성 분량은 총 1,500자 이내로, 두 문항은 400자 이내, 한 문항은 700자 이내입니다. 제시문의 양이 많은 편이므로, 100분의 시간 동안 신속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논지를 숙지하여 답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 특징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 역시 고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공통과목, 일반선택, 기하과목의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출제합니다.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주요 특징은 제시문을 통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확장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문화 현상 등을 접목시켜 단순히 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논술고사 유의사항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특징은 **풀이과정 중심의 수학 3문항(소문항 출제 가능)**으로 출제됩니다. 이에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기본개념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2개의 문항은 15줄(400자 이내) 정도의 답안을, 1개 문항은 27줄(700자 이내) 정도의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답안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에 안내된 기출문제를 통해 동국대학교 논술고사 문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 및 논술고사 관련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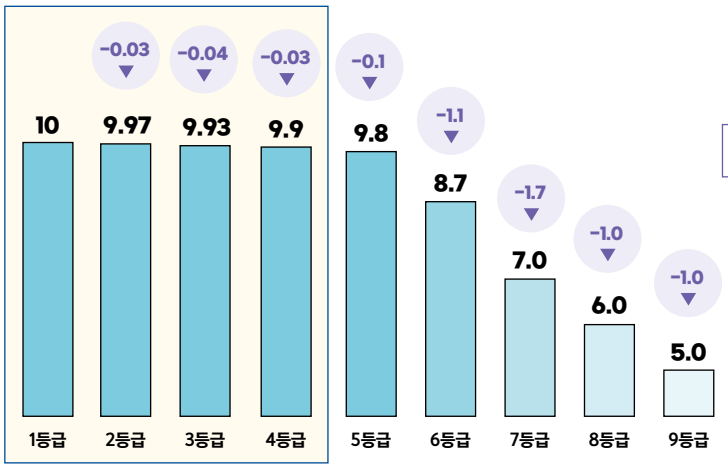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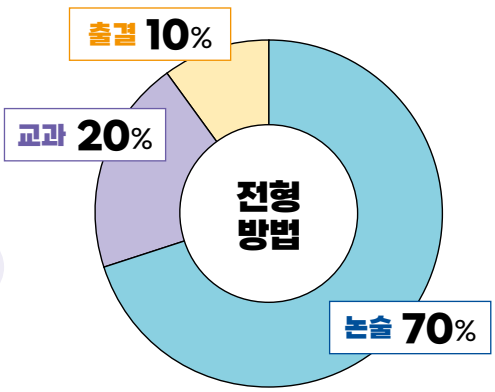
Q 논술전형에서 학생부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A.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30%**(교과 20%, 출결 10%)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계열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이며 고등학교 3년 동안 해당 교과목 중에서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교과성적 반영 시, 교과별/학년별 반영비율과 과목별 이수단위를 적용하지 않고 산출합니다. 그 밖에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Q 교과 성적이 낮은데 합격에 불리하지 않나요?

A. 2027학년도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에서 교과 성적 반영비율은 20%이며. 기본 점수가 100점 만점 중 50점을 차지합니다. 또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한국사 교과목 중 **등급이 높은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하기에 **등급별 점수가 1~5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 교과의 영향력이 높지 않습니다.**





Q 수능을 잘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합니다. 수능성적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며, **수능성적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Q 인문 Ⅰ과 인문 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인문계열 논술은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고사 시간대별로 인문 Ⅰ과 인문 Ⅱ로 나뉠 뿐이며, 유형에 따라 출제 방향 및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 Ⅰ과 인문 Ⅱ는 문제만 다를 뿐, 동일한 유형의 논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인문 Ⅰ과 인문 Ⅱ 기출문제를 두루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논술전형 및 논술고사 관련 FAQ

Q 컴퓨터·AI학부 인문계열/경찰행정학과 자연계열에 지원한다면, 논술은 어떤 유형으로 봐야 합니까?

A. 컴퓨터·AI학부 인문계열로 지원할 경우 인문계열 논술, 경찰행정학부 자연계열에 지원할 경우 자연계열 논술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Q 논술고사 문제는 어떻게 출제됩니까?

A. 출제위원장 1명, 문제유형별(인문Ⅰ, 인문Ⅱ, 자연)로 각각 3명의 출제위원과 2~3명의 문제검토위원이 출제위원단을 구성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출제가 진행됩니다. 이때 문제검토위원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모든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출제자료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활용됩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한 참고자료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특정 교과에서의 단순 암기위주식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통합하고 응용하기에 적합한 제시문을 선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합니다.

Q 논술고사 답안 평가 시 평가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A. 논술 답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지문과 주제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는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어(키워드)의 유무를 통해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분석력, 추리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때 답안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 등급이 달라집니다.

Q 답안 작성 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합니까?

A.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에 의해 수정 가능합니다. 또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연필이 아닌, 검정색 볼펜만 가능합니다. 고사에 응시하시기 전에 **원고지 교정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습지를 활용하여 답안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답안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논술 답안 평가 시 글씨체와 맞춤법이 영향을 미치나요?

A.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해당 답안의 내용입니다. 즉, 글씨체가 예쁘지 않더라도, 작성한 답안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평가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글씨체가 엉망이거나 맞춤법의 오류가 많다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논술 작성 Tip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으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실력을 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논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제로 시험을
보는 환경 속에서 써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직접 쓰고, 평가받고 고쳐쓰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전준비



출제유형을 철저하게 익힙시다!

우리 대학의 논술전형에 대한 주요사항, 특징,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더불어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발문으로 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고사 중 시간 안배와 문제의 요구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실전 연습을 통해 고사 당일 자신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평가 기준을 파악합시다!

어떠한 시험이든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답안을 점검해보세요.

논제를 꼼꼼히 체크한다!

- 논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논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제시문을 파악해보자.
- 논제에 쓰인 명령어에 주목하자.

논술하라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라
분석하라	핵심개념이나 주제를 요소로 나누고, 그것들의 의미와 관계를 밝혀라
요약하라	주장, 핵심내용, 주요 논거를 정리하라
비교(대조)하라	두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
비판하라	어떤 주장의 타당성이나 가치 등을 평가하라
설명하라	사실, 주장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라

훌륭한 답안이 갖는 특징

- 짧고 간결한 문장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도록 한다.
- 번역투의 문장은 지양한다.
-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추어라.
-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금물이다(특히 요약의 경우)
- 부적절하고 맥락이 맞지 않는 '지식 과시용 인용'은 역효과로 작용한다.
- 천편일률적인 대안 제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 동어반복,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진술과 문구는 삼간다.
- 과격하고 지나친 생각의 단정은 위험하다.
-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단정한 필체로 작성한다

2026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지원현황

※ 2026.01.기준 합격자 자료이므로
정확한 전형결과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실경쟁률이란?** 논술고사 응시자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간의 경쟁률을 의미합니다.
- **충원율이란?** 모집인원이 10명이고 충원율이 50%라고 한다면, 충원합격자는 5명임을 의미합니다.

☑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어, 경쟁률과 실경쟁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26학년도 모집인원	25학년도 모집인원	2026학년도 전형결과			
					지원인원	경쟁률	실경쟁률★	충원율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	6	443	73.83	21.50	0%
		영어영문학부	9	10	683	75.89	22.33	33%
		일본학과	5	5	382	76.40	20.00	20%
		중어중문학과	5	5	385	77.00	18.00	20%
		철학과	5	5	372	74.40	20.60	0%
		사학과	4	4	293	73.25	19.75	25%
	법과	법학과	12	15	978	81.50	22.58	8%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6	6	509	84.83	22.33	0%
		행정학전공	6	6	471	78.50	22.33	50%
		국제통상학과	12	12	953	79.42	21.58	5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5	416	83.20	22.00	0%
		광고홍보학과	6	6	487	81.17	21.83	17%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인문)	15	15	810	54.00	11.80	13%
	경영	경영대학(광역화)	39	-	2,926	75.03	22.51	21%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인문)	4	4	271	67.75	14.50	25%
	사범	교육학과	4	5	276	69.00	22.25	0%
	인문 전체				**10,655**	**74.51**	**20.58**	
자연	이과	수학과	4	4	97	24.25	8.50	50%
		화학과	4	4	107	26.75	8.00	25%
		통계학과	4	4	112	28.00	9.00	0%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자연)	5	5	157	31.40	6.40	0%
	바이오시스템	생명과학과	4	4	118	29.50	11.75	50%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5	5	137	27.40	8.80	0%
		의생명공학과	4	4	132	33.00	7.00	50%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3	24	721	31.35	11.43	22%
		정보통신공학과	12	13	370	30.83	12.58	42%
		건설환경공학과	7	7	192	27.43	9.00	43%
		화공생물공학과	7	7	223	31.86	11.86	0%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2	12	335	27.92	9.42	25%
		건축공학부	5	5	131	26.20	8.40	0%
		산업시스템공학과	6	6	178	29.67	14.50	17%
		에너지신소재공학과	9	6	271	30.11	12.11	22%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자연)	20	20	621	31.05	11.10	20%
		시스템반도체학부	5	5	131	26.20	8.40	0%
		의료인공지능공학과	5	-	150	30.00	9.80	40%
	사범	수학교육과	4	5	122	30.50	11.50	0%
	약학	약학과	5	5	968	193.60	45.40	80%
	자연 전체				**5,273**	**35.15**	**11.67**	
논술전형 전체					15,928	54.36	16.02	

■ 교과성적 (※ 최종합격자 기준)



- **전 교과 내신 등급 평균이란?** 계열 구분 없이 등급이 있는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교과의 등급 산술평균을 의미합니다.
- **상위 10과목 내신 등급 평균이란?** 지원자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 중 상위 10과목의 산술평균 등급을 의미합니다.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 논술전형의 주요 특징은 교과 등급의 실질 반영 정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 **논술점수와 교과등급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평가 시 교과등급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열	대학	모집단위	26학년도 모집인원	25학년도 모집인원	전 교과 내신 등급 평균			상위 10과목 내신 등급 평균		
					평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저	표준편차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	6	4.00	4.60	0.69	2.78	3.60	0.79
		영어영문학부	9	10	3.95	5.48	1.03	2.88	4.70	1.17
		일본학과	5	5	4.84	5.65	0.66	3.48	4.00	0.39
		중어중문학과	5	5	4.25	5.10	0.76	3.04	3.90	0.69
		철학과	5	5	5.05	6.14	0.82	3.60	4.40	0.85
		사학과	4	4	4.13	4.69	0.50	3.00	3.70	0.57
	법과	법학과	12	15	3.65	5.65	0.85	2.47	4.50	0.95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6	6	3.88	5.35	0.67	2.62	4.40	0.84
		행정학전공	6	6	3.79	4.58	0.71	2.78	3.80	0.75
		국제통상학과	12	12	4.31	5.90	0.85	3.23	4.80	1.0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5	4.17	6.71	1.34	2.92	5.30	1.36
		광고홍보학과	6	6	4.29	6.17	1.04	2.76	3.90	0.94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인문)	15	15	3.97	5.15	0.68	2.82	4.30	0.67
	경영	경영대학(광역화)	39	-	4.12	5.74	0.69	2.97	5.10	0.82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인문)	4	4	4.35	4.58	0.22	3.70	3.90	0.28
	사범	교육학과	4	5	4.19	5.91	1.07	3.00	4.80	1.07
	인문 전체				**4.12**	**6.71**	**0.85**	**2.95**	**5.30**	**0.91**
자연	이과	수학과	4	4	4.06	5.03	0.72	2.83	3.40	0.60
		화학과	4	4	3.70	4.38	0.55	2.60	2.90	0.46
		통계학과	4	4	3.91	4.25	0.41	2.88	3.40	0.37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자연)	5	5	4.12	5.74	0.69	2.97	5.10	0.82
	바이오시스템	생명과학과	4	4	3.57	4.25	0.50	2.53	3.30	0.58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5	5	3.52	4.44	0.75	2.44	3.80	0.93
		의생명공학과	4	4	3.71	4.14	0.39	2.55	3.10	0.54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3	24	3.97	5.03	0.72	2.79	4.10	0.70
		정보통신공학과	12	13	3.71	4.77	0.73	2.72	3.70	0.65
		건설환경공학과	7	7	4.24	5.32	0.50	2.89	4.50	0.72
		화공생물공학과	7	7	3.85	5.94	0.94	2.60	4.20	0.80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2	12	3.81	4.71	0.57	2.76	3.60	0.70
		건축공학부	5	5	4.96	5.72	0.65	3.92	5.00	0.87
		산업시스템공학과	6	6	4.19	5.61	1.07	3.50	4.90	1.07
		에너지신소재공학과	9	6	3.83	4.70	0.62	2.64	3.80	0.75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자연)	20	20	3.78	5.74	0.89	2.60	4.20	0.79
		시스템반도체학부	5	5	5.08	6.53	1.03	3.90	4.90	0.95
		의료인공지능공학과	5	-	3.70	5.58	1.05	2.60	4.50	1.03
	사범	수학교육과	4	5	4.01	4.45	0.40	2.35	2.60	0.18
	약학	약학과	5	5	2.71	3.28	0.40	1.60	2.10	0.37
	자연 전체				**3.94**	**6.53**	**0.85**	**2.80**	**5.00**	**0.85**
논술전형 전체					4.03	6.71	0.85	2.87	5.30	0.88

■ 논술고사 점수

- 동국대학교 논술고사는 **인문 I , 인문 II , 자연**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습니다. 인문 I 과 인문 II 는 시간대 차이일 뿐이며, 문제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 **해당 수치는 참고용일뿐, 절대적 수치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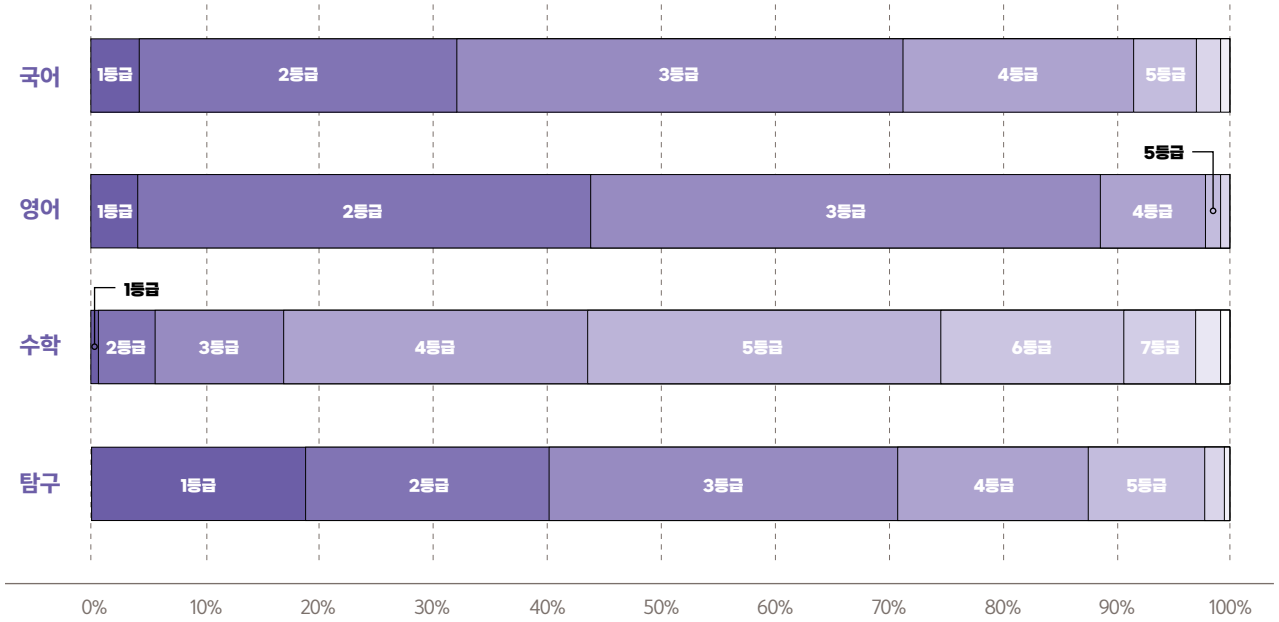
계열	대학	모집단위	26학년도 모집인원	25학년도 모집인원	논술 유형	논술고사 점수					
						지원자			최종합격자		
						평균	최저	표준편차	평균	최저	표준편차
인문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6	6	인문II	79.98	50.00	4.72	88.43	86.98	2.17
		영어영문학부	9	10	인문II	80.28	60.80	3.70	85.87	84.70	0.81
		일본학과	5	5	인문II	79.67	65.10	3.18	85.32	84.63	0.73
		중어중문학과	5	5	인문II	81.27	66.60	3.76	86.32	85.23	0.71
		철학과	5	5	인문II	80.33	62.33	3.90	85.95	85.33	0.69
		사학과	4	4	인문II	80.07	50.00	4.37	85.20	83.98	0.99
	법과	법학과	12	15	인문II	80.24	50.00	4.19	87.59	84.85	1.64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6	6	인문I	80.12	51.37	4.56	86.47	85.72	0.65
		행정학전공	6	6	인문I	80.74	58.37	3.91	86.23	84.85	0.77
		국제통상학과	12	12	인문I	80.41	50.00	4.11	87.13	86.00	1.1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5	5	인문I	80.38	61.10	4.05	87.31	86.62	0.75
		광고홍보학과	6	6	인문I	80.82	60.47	3.44	86.25	85.48	0.52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인문)	15	15	인문II	79.05	64.47	3.38	84.59	83.22	0.94
	경영	경영대학(광역화)	39	-	인문I	80.92	50.00	3.95	87.34	85.33	1.44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인문)	4	4	인문II	79.04	51.37	4.50	84.44	83.97	0.41
	사범	교육학과	4	5	인문II	81.03	64.47	3.98	88.67	87.87	0.69
	인문 전체					**80.43**	**50.00**	**4.02**	**86.62**	**83.22**	**1.63**
자연	이과	수학과	4	4	자연	64.92	50.00	9.77	83.44	75.47	6.11
		화학과	4	4	자연	64.67	50.00	9.24	83.51	77.43	4.50
		통계학과	4	4	자연	64.53	50.00	9.66	82.80	81.80	0.94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자연)	5	5	자연	64.94	50.00	9.77	79.64	78.27	1.16
	바이오시스템	생명과학과	4	4	자연	66.36	50.00	10.15	83.84	80.17	2.92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	5	5	자연	65.13	50.00	9.72	81.76	78.33	1.96
		의생명공학과	4	4	자연	64.54	50.00	9.09	80.06	73.47	5.64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23	24	자연	68.81	50.00	10.08	86.39	81.57	3.54
		정보통신공학과	12	13	자연	70.05	50.00	9.54	86.78	82.87	3.18
		건설환경공학과	7	7	자연	70.43	50.00	9.41	85.53	82.63	2.06
		화공생물공학과	7	7	자연	67.55	50.00	8.90	85.82	80.88	4.65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12	12	자연	66.70	50.00	10.41	87.08	82.33	3.53
		건축공학부	5	5	자연	65.57	50.00	8.35	77.97	72.90	4.25
		산업시스템공학과	6	6	자연	67.38	50.00	7.63	84.19	79.57	2.62
		에너지신소재공학과	9	6	자연	67.12	50.00	8.47	83.24	79.45	5.11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자연)	20	20	자연	64.75	50.00	8.27	81.19	75.95	4.09
		시스템반도체학부	5	5	자연	65.11	54.10	6.63	77.60	75.03	2.34
		의료인공지능공학과	5	-	자연	64.37	50.00	8.51	79.16	76.27	2.04
	사범	수학교육과	4	5	자연	69.24	54.10	8.78	88.96	84.85	3.59
	약학	약학과	5	5	자연	73.92	50.00	10.50	97.11	94.88	1.84
	자연 전체					**67.85**	**50.00**	**9.83**	**84.19**	**72.90**	**5.27**
논술전형 전체						76.28	50.00	8.81	85.38	72.90	4.12

■ 수능 과목별 등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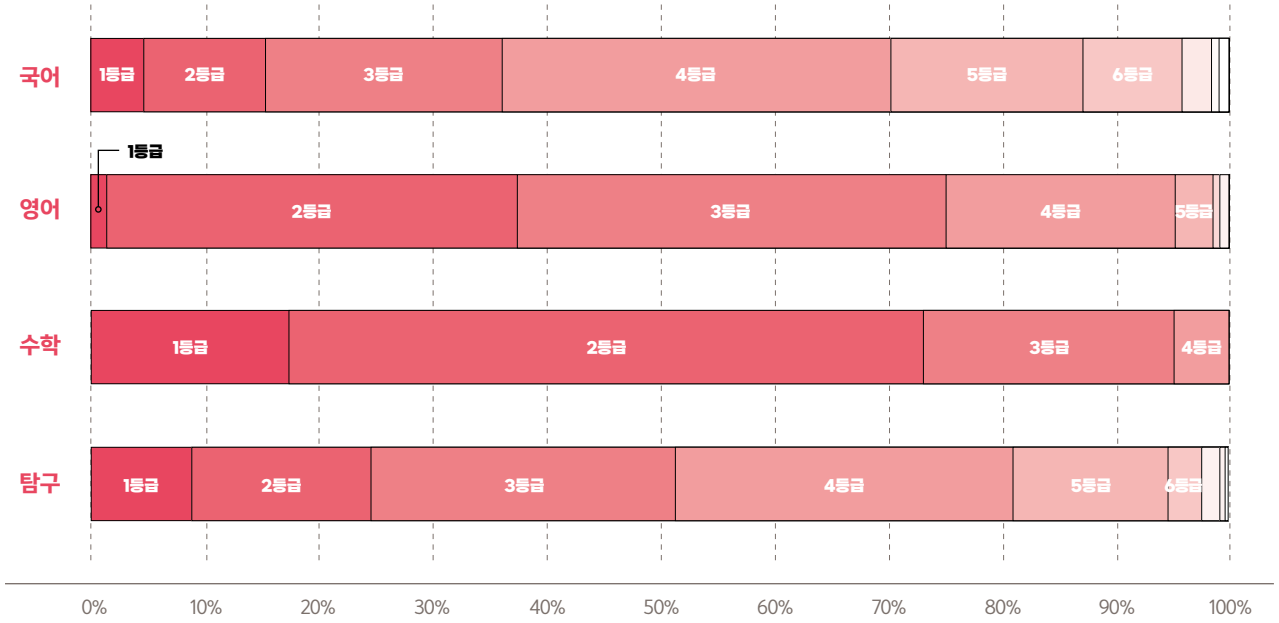
☑ **지원자의 수능 성적으로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합니다.**
☑ **논술점수와 수능 성적과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평가 시 수능 성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논술 최종합격자 수능 과목별 등급 분포 (인문)



2026학년도 수시 논술 최종합격자 수능 과목별 등급 분포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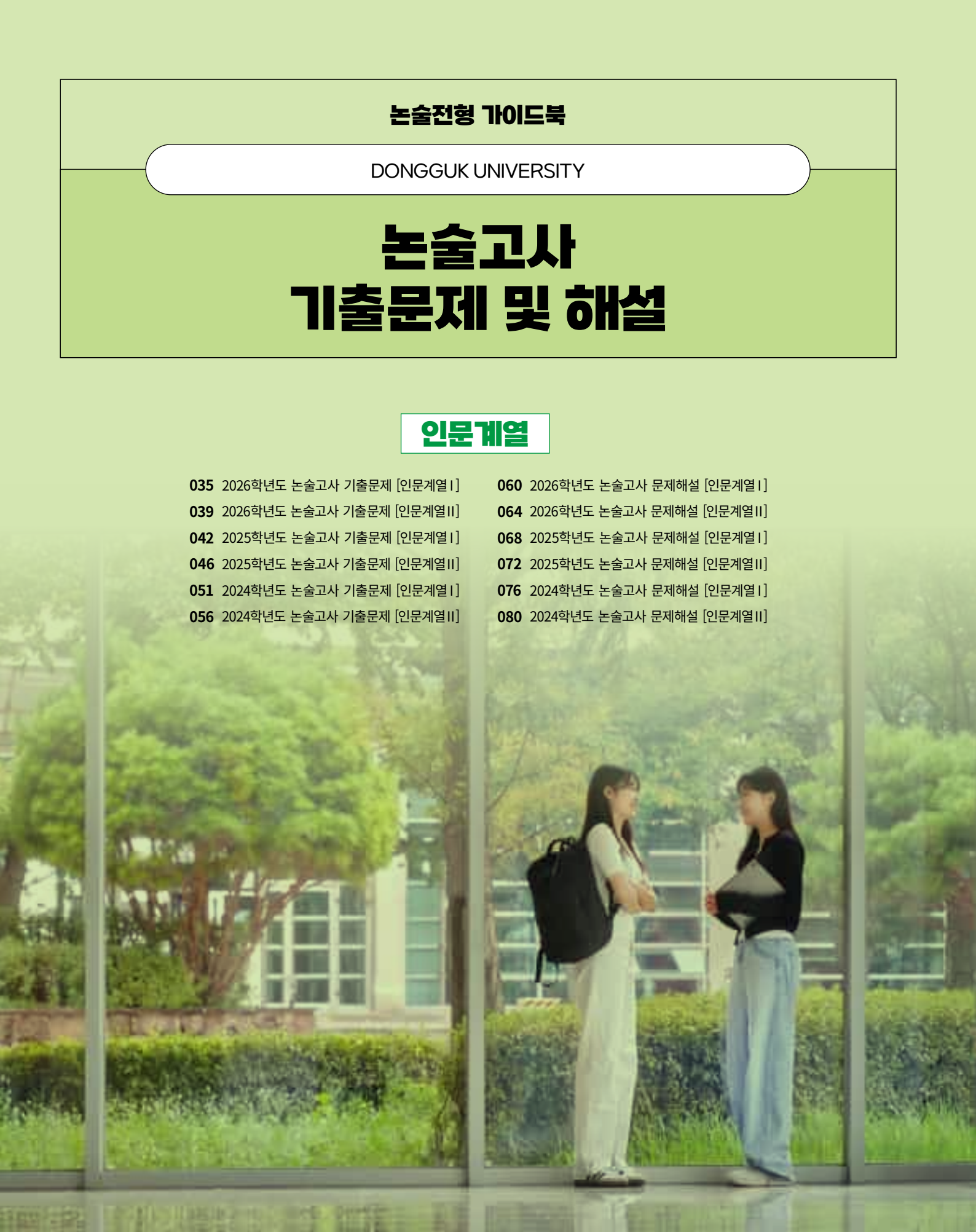
논술전형 가이드북

DONGGUK UNIVERSITY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

035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039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042 2025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046 2025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051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
056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인문계열 II]
060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064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068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072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076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
080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인문계열 II]



2026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꿨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끝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 『채식주의자』)

* 그녀: 채식주의자 영혜

-『고등학교 문학』

【나】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 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

【다】 하이데거는 실존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존재(Dasein)라고 규정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모든 사물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언제나 문제로 삼고 있는 특별한 존재자이다. 이런 실존으로서의 현존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런 불안과 공포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삶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구성원 간에 합리성을 공유해야 한다.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Habermas)는 이러한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하였다. (……) 의사소통적 이성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를 향상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대화와 토론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 참여자들은 스스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항을 지키게 된다. 이와 같은 화해와 자율 정신은 현실 사회를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1

【가】에 나타난 채식주의자 영혜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나】를 통해 설명하고, 【다】를 통해 영혜의 태도를 해석한 후에, 【가】에 나타난 갈등의 해결책을 【라】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32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

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 여자의 편지, 'CONGRATULATIONS'를 보고 있는 남자.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동안 보던 남자,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 폴더를 열고 잠시 후,

남자: 헬로?……. 하우 아 유?……. 파인 생큐, 앤 유? 파인 생큐! 음…… 웨얼 아 유 프롬?……. 코리안? 리얼리? 오 마이 갓! 미투! 미투! 아임 코리안! 프롬 도봉구……. 예…… 아…… 앤드, 아…….

할 얘기가 없다. 아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 서서히 진지해지는 남자의 표정.

남자: 아이……아이……홉 투 씨 유……. 후 아 유?

태풍 때문에 남자가 일군 텃밭과 숙소가 모두 엉망이 되고 남자는 환경 관리인에게 끌려 나온다. 자신이 도망쳤던 사회에 억지로 돌아온 남자는 진정으로 죽고자 마음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 카메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는 몇 년 만에 대낮의 거리로 뛰쳐나와 남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닌다. 그녀는 버스에 탄 남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

(이해준, 『김 씨 표류기』)

-『고등학교 문학』

【나】 미국의 한 법률 회사는 로스(Ross)라는 이름의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로스는 법률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공 지능(AI) 로봇이었다. 로스는 1초에 80조 번 연산하고, 책 100만 권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인공 지능 변호사답게 로스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수천 건의 자료를 탐색한 뒤 가장 적합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헤럴드 경제, 2016.5.13.)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시어도어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 주는 대필 작가로,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날 시어도어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 지능 운영 체제가 설치된 기기를 산다. 그 운영 체제는 자신의 이름을 서맨사라고 짓고 시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며 교감한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서맨사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시어도어는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영화, <그녀(HER)>)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라】 21세기는 인간이 현생 인류를 일컫는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아가는 마지막 세기가 될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는 "그렇다."라고 단언한다. 그는 "인공 지능이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지나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2100년 이전에 현생 인류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라리는 인공 지능에 밀려 무용지물로 전락한 인간들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와 결합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일보, 2016.3.12.)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마】 인간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발달시켰다. 특히 20세기 이후 등장한 핵융합 기술, 우주 공학 기술, 디지털 기술, 로봇 공학 기술, 생명 공학 기술 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과학 기술은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과학은 원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휴대 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인과 사회에 대한 현대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면서 과학 기술도 윤리적 평가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정당화의 과정과 달리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당화의 과정은 과학 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견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본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가 활용되는 과정에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정당화의 과정에서는 타당하지만, 발견 및 활용의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윤리적 가치에 의해 지도되고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 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과학 기술의 본질이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과학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2

【가】의 '여자 김 씨'와 【다】의 '시어도어'가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매체를 활용하는 소통 방식을 비교하시오. 그리고 【마】의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 입장에서 【나】, 【다】, 【라】를 각각 설명하시오.

<32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로봇, 인공 지능(AI)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구조 및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로봇 바리스타는 물론이고 초밥을 만들거나 연기하는 로봇도 등장하였다. 미국 농구 연맹에서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 선수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스포츠 기사를 작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인간이 로봇이나 인공 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이다.

-『고등학교 경제』

【나】 김선경 씨가 일하던 은행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인터넷 뱅킹 같은 은행 업무 자동화를 이유로 한 달 전에 그녀를 비롯하여 많은 상담원들을 해고하였다. 그녀는 다른 은행에서 은행 상담원 자리를 찾아야 할지 고민 중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았다.

-『고등학교 경제』

【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상품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를 앞서가는 기업가 정신으로 보았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기업이 성장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 파괴에 따른 생산 요소의 새로운 결합으로 이윤이 발생하며, 창조적 파괴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이윤이라고 주장하였다.

-『고등학교 경제』

【라】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총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마】 케인스는 공황과 실업이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국민의 소비 저하로부터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공공 정책을 펼치면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한 문제도 완화할 수 있고 국민이 기본적인 실제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유효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국민이 실업과 빈곤, 재해와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바】 공공기관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며 취업상담과 구직정보를 제공한다. 인력개발원에서는 국내 제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맞춤형 기술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뿐 아니라 일정 기간 실업 급여 지급, 재취업 교육, 일자리 알선 등으로 생계를 보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업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보험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교 경제』

문제 3

【가】와 【나】에 나타난 문제를 요약하고, 【다】와 【라】에 나타난 관점으로 【가】와 【나】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마】와 【바】에 나타난 관점을 적용하여 【가】와 【나】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공적 개입이 가지는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560~700자> [40점]

2026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요즘 세상에서는 문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까막눈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유치원생이 글을 깨우쳤다고 해서 신문 기사나 보험 계약서를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과 누리 소통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아니며, 사용자 자신이 어떤 기술과 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인류가 소통해 온 역사만큼이나 길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가짜 뉴스의 사례를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 뉴스였다. (……) 최근의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동요와 입소문으로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대형 검색 누리집이나 누리 소통망 등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그리고 가짜 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다시 말해 가짜 뉴스는 '돈'이 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어 선택받으려고 한다.

(권도연, 「IT 열쇳말-가짜 뉴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덕을 따르며 살아야지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덕은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으로 나눌 수 있다. 품성적 덕에는 절제, 용기 등이 있는데, 이는 반복적 훈련과 습관을 통해 생긴다. 반면 지성적 덕에는 사물의 상태나 생성을 깨닫고 진리에 이르는 철학적 지혜와 이해력, 그리고 자신과 잘 살아가는 것에 관련해서 좋고 유익한 것을 잘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이는 교육과 탐구를 통해 생긴다. (……) 두 가지 덕 가운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삶과 더 관계가 깊은 것은 품성적 덕이다. 품성적 덕은 행위와 감정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중간을 겨냥하는 중용으로 나타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상태를 아는 현명함을 실천적 지혜라고 한다. 이는 선택과 숙고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좋은 의견을 구성하는 지성적 덕이다. 이처럼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은 밀접하게 연결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글을 평가하며 읽는 것을 의미한다.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것이 바로 비판적 읽기이다. 비판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지, 글의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는지,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지를 따져 보며 글을 읽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면서 글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글에 대한 자신의 주관과 태도를 올바로 세워볼 수 있다.

-『고등학교 독서』

문제 1 **[가]와 [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술하고, [다]와 [라]의 관점을 활용하여 그 극복 방안을 각각 서술하시오.** <32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서양 열강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제국주의라고 한다. 서양 열강은 중화학 공업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등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자 값싼 원료 공급지와 제품의 판매 시장, 국내 잉여 자본의 투자처 등을 찾아 대외 팽창에 나섰다.

제국주의 열강의 대외 팽창은 경제적 이득 추구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 간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추진되었다. 열강은 식민지가 많을수록 자국의 위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내의 사회 갈등이 심해지자 국민의 관심을 타국과의 식민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로 돌려 사회 통합을 도모하였다.

-『고등학교 세계사』

【나】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먼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은 국가는 청이었다. 19세기 초 영국은 차와 비단의 수입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자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청이 막대한 은 유출과 국민 건강을 이유로 아편 단속을 강화하자, 영국은 이를 빌미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40~1842). 전쟁에 패한 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청은 광저우를 비롯한 몇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영국에 홍콩을 할양하였다. 이후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 많은 특권을 영국에 허용하였다.

-『고등학교 한국사』

【다】 한 국가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있듯이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국제법이라고 한다. 국제법은 국제 관계 속에서 생성되며,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조약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구 간, 혹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합의로, 주로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의 일반 원칙은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제법은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법원(法源):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혹은 법의 존재 형식

-『고등학교 정치와 법』

【라】 국제법은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법은 권위를 부여받은 별도의 입법 기관에서 정한 것으로, 국가 내 모든 개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는 입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은 그때그때 당사자 간 협의로 체결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 국제법의 적용과 집행은 개별 국제 주체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마】 세계 시민이란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대 사회의 시민은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지구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촌 공동체에 속한 시민 모두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등과 같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와 관련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2 **【가】, 【나】와 같은 국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하고, 【라】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마】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32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수선화에게』)

– 『고등학교 문학』

【나】 사람의 기질은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섞임이 다르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가 맑고 질이 순수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지행(知行)*에 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가 맑지 않고 질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힘써 성(誠)하고자 한다면 맑고 순수해질 것이다.
(이이, 『율곡전서』) *지행(知行): 지식과 행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이후로 백천만억겁 동안에 죄의 업보로 고통 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지옥·축생·아귀 등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成佛)*한 뒤에야 제가 바야흐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지장경』) *성불(成佛):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성인(聖人)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 주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뜻을 약하게 해 주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앎이 없고(無知) 욕심이 없게 하여(無欲),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
(노자, 『도덕경』) *무위(無爲):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폴란드인이 모여 사는 런던 서쪽의 거리에 "더 이상 폴란드 기생충은 필요 없다."라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졌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각종 복지 혜택을 공짜로 누린다고 주장하는 영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브렉시트(brexit: british exit), 즉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 현상은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반이민자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의 한 정당은 흰 양이 검은 양을 스위스 국기 밖으로 내쫓는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국제 연합(UN)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가】에 나타난 '화자의 인간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나】, 【다】, 【라】의 관점에서 【가】의 화자의 자세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그리고 【나】, 【다】, 【라】의 공통된 시각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마】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560~700자> [40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어 그 자리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서였다.

(……)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 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 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 교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느냐 묻는 듯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 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였다.

(……)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싸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미색 바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하게 박힌 벽지를 이고서였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치 아내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진 조화처럼 보였다. 누군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악의로 던져 놓은 국화 같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할 듯 우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흰 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도 멍하니 아내 말을 따라 했다.

–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곤 내가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봤다. 텅 빈 눈동자가 불 꺼진 형광등처럼 어두웠다. 아내는 한 손으로 영우가 직접 쓴, 아니 쓰다 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우가 다다다다 뛰어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 안을 것 같았다. '토닥토닥'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엄마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줄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 하지만 그 순간조차 손에서 벽지를 놓을 수 없어, 그렇다고 놓지 않을 수도 없어 두 팔을 든 채 벌서듯 서 있었다. 물먹은 풀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드득 떨어졌다. 한파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김애란, 『입동』)

– 『고등학교 문학』

【나】 먼저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뉴미디어를 통한 개인 정보의 공개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알 권리란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사적 권리로 인격적 이익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은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뉴미디어는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흄에 따르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는 도덕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그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며, 이성은 실천의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 줄 뿐이다. 또한 흄은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인(是認)의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좋은 것[善]으로, 부인(否認)의 불쾌한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나쁜 것[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유용성이 도덕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이처럼 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우리에게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흄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실천해야만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1

제시문 【가】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나】와 【다】에 나타난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든 사회에서는 규범 체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규범과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내면화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행동 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즉, 일탈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일탈 행동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동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비난이나 처벌 등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일탈 행동은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나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절도나 살인 등과 같은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뒤르켐(Durkheim, E.)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하지 않은 혼란한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규범이 급격히 변화하거나 보편적인 규범의 통제력이 약해질 때 규범적 혼란을 겪기 쉽고, 이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에 빠지거나 규범적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워져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이나 개인과 접촉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 일탈자가 된다는 이론이다. 개인이 우범자들과 지속해서 교류함으로써 일탈자가 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한국은 아파트 왕국이다.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로, 도입된 지 40년도 되지 않아 사람들의 주거지가 온통 아파트로 변했다. 그런데 주거 환경은 급격히 변동했지만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태도는 단독 주거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취침 시간에 쿵쿵대며 걷기도 하고 심야 세탁을 하기도 한다. 그사이 이웃은 점점 야수로 변한다. 빠른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거주 문화가 따라잡지 못해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쓰레기 배출, 공동 시설 사용, 애완동물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나타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마】 공자가 말한 '지란지교'는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향기가 그윽한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게 되지만, 자연히 그에게 동화되어 착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악취가 풍기는 절인 어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간 것과도 같아서, 그와 함께 오래 지내면 비록 그 악취는 맡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동화되어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다.

우범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쉽게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은 불량한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고, 일탈 문화가 지배적인 우범지역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도덕적 저항감이 적어져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준이 쉽게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묵자흑 근주자적(近墨者黑 近朱者赤)", 즉 "먹을 가까이 한 자는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한 자는 붉어진다."는 말은 이를 표현한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2

제시문 【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와 【다】를 통해 설명하고 【라】와 【마】에 근거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안락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할 자리가 있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배우자를 잃은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 자식이 없는 노인, 병든 사람도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 재화가 헛되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결코 자기 것으로 숨겨 두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마다 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는다. 이를 대동이라고 한다.

(『예기』)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정의로운 인간과 국가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은 그의 이데아론과 관련이 있다. 그는 세계를 인간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이데아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로 구분한다. 이데아 세계는 참된 실재가 존재하는 관념의 세계이고, 감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탐구되고 파악된다[가지계(可知界)]. 반면에 현실 세계는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완전한 세계로 감각 경험을 통해 파악된다[가시계(可視界)]. 이데아란 어떤 것의 본질, 즉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을 뜻한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는 수많은 다른 꽃이 있는데, 그것들이 꽃일 수 있는 이유는 꽃의 본질인 꽃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참된 실재인 이데아에 접근함으로써 참된 앎에 이를 수 있다.

(……)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데아론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동굴 안 그림자의 세계에 불과하다. 참된 세계는 동굴 밖의 세계이며, 이 세계를 비추는 태양은 선의 이데아를 가리킨다. 플라톤에 따르면, 동굴 밖으로 나가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들이 철학자이다. 그는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은 당시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의가 실현된 국가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그가 주장한 이상 사회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친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군인이 용기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가 절제의 덕을 발휘하여 생산 활동에 종사하며, 이들이 각자의 역할과 덕목을 다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뛰어난 덕(德)은 덕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고, 하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뛰어난 덕은 무위(無爲)하며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 뛰어난 인(仁)은 사랑하지만 또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뛰어난 의(義)는 행하면서 또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뛰어난 예(禮)는 예를 따르면서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하게 한다. 그러므로 도(道)를 잃게 된다. 도를 잃은 후에 덕이 나오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나오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나오고, 의를 잃은 후에 예가 나온다. 무릇 예는 진실함과 믿음이 옅은 것이니 어지러움의 짝이다.

(노자, 『도덕경』)

또한,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보다 가치 있다고 보았다. 물은 부드럽고 약하지만 항상 낮은 곳에 처하면서 다른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고 하였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노자, 『도덕경』)

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따르면서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전쟁을 반대하면서 무위(無爲)의 정치, 검소하고 소박한 삶, 겸손의 덕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이 교활하게 이익을 밝히고 욕심을 부리게 하는 정치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게 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되는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소국과민*을 제시하였다.

*소국과민(小國寡民):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노자는 자연에 순응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촌락공동체로서 전쟁과 굶주림, 군주의 가혹한 통치가 없는 이상 사회를 지향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Marx, K. H., 1818~1883))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주장한다. 공산 사회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 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그 결과로 구성원 각자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평등한 사회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활약에 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이역1)에서 싸웠지만, 강력한 군대 통솔의 결과로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모질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2)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비우스는 원로원3)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스키피오가 임명한 지방 장관이 로크리4) 지방을 약탈했을 때, 스키피오는 그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또한 오만한 성품을 가진 그 지방 장관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키피오의 과도한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실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5)하자고 발언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임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은 빛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유해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군주론』)

1) 이역: 다른 나라의 땅.

2) 기율: 도덕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위의 표준이 될 만한 질서.

3) 원로원: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입법·자문 기관. 실질적인 지배 기관으로 내정과 외교를 지도함.

4) 로크리: 고대 그리스의 도시.

5) 사면: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

-『고등학교 독서』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요약하고, 그를 통해 【다】와 【라】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가】와 【다】의 관점에서 【마】에 담긴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시오.** <500~700자> [40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스낵 컬처'는 스낵(간식)처럼 10~15분 남짓한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스낵 컬처'는 지하철역이나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음악회, 그리고 직장인의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에서 시작되었다. 발품 팔아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큰 특징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스낵 컬처'의 정의가 '스마트폰으로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바뀌었다.

스마트폰 속에서 펼쳐지는 '스낵 컬처'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등·하교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분량이 짧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글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스낵 컬처'가 아무리 대세라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스낵 컬처'가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콘텐츠가 득세하는 시대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즐거움, 즉 '인식의 지연'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빅 이슈』, 2015년 11월 호)

– 『고등학교 국어』

【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를 뉴미디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이 대표적인 뉴미디어의 예에 해당한다.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뉴미디어는 여러 사람이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과 면 대 면 소통, 간접적 소통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뉴미디어의 등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다】 매클루언은 매체를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를 만족시키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라고 본다. 이러한 환경은 '보이지 않는 배경 원칙'을 지니고 이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매클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표현을 통해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매체의 배경 원칙에 주목하라고 한다. 매체의 내용은 마치 강도가 집을 지키는 개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던지는 고깃덩어리처럼 인간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매체의 편향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물의 존재를 모르듯이 인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매체 환경을 의식하기란 어렵다.

매클루언은 매체를 인간 경험의 규모와 형태를 형성하고 제어하는 배경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려면 역이미지, 다시 말해 개인의 삶의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매체 환경의 보이지 않는 성격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매클루언은 매체를 인간의 눈, 귀, 근육, 신경 조직 등 인간 감각을 확장한 것으로 본다. 즉, 매체는 인간 감각이 '밖으로 나온 것' 혹은 '발화된 것'으로서, 자동차의 바퀴는 발의 확장, 서적은 눈의 확장, 의복은 피부의 확장, 전자 회로는 중추 신경 체계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그는 매체 환경의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매체의 사용 용도나 내용이 아닌 '매체가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감각을 확장하는 매체는 감각 간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알파벳과 인쇄술은 사람의 말을 시각적인 부호로 전달하면서 귀 대신 눈이 지배하는 새로운 감각 비율을 만든다. 구어 문화에서는 듣는 것이 믿는 것이었는데, 문자 문화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된다. 인간의 감각 기관은 매체가 형성하는 감각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감각의 마비 상태를 일으키는데, 인간은 이렇게 매체가 만든 지각 환경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마비 혹은 차단의 상태는 인간이 매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인간의 삶에 미치는 매체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이동후, 『매체는 메시지이다』)

– 『고등학교 독서』

【라】 행복은 스며들지만, 기쁨은 달려든다. 행복은 자잘한 알갱이들로 차곡차곡 채워진 상태이지만, 기쁨은 커다란 알갱이들로 후두둑 채워진 상태다. 기쁨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행복은 전염되기 힘들다. 남의 기쁨에는 쉽게 동조되지만, 남의 행복에는 그렇지가 않다. 약간의 질투와 약간의 모호성.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남에게서 전염된 기쁨은 그러나 오래 가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다. 금세 잊는다. 그렇지만 남에게서 전염된 행복은 오래 가기도 하거니와 자기 것이 된다. 그만큼 느리고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얻은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렇지만, 빠르고 간단한 것들은 느리고 꼼꼼한 것만 못하다.

(김소연, 『마음 사전』)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마】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편두통으로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면 일부러 엘피반(LP盤)*을 걸어 놓는다. 20분마다 음반을 뒤집으며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의 속도에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그 정지의 시간에, 일의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요즘은 시를 일삼아 읽는다.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다른 속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황급히 써 내려가는 글 사이에 다른 리듬의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진경, 『삶을 위한 철학 수업』)

* 엘피반: 1분에 $33\frac{1}{3}$회 회전하는 장시간 연주용 음반으로, 턴테이블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디스크이다. 크기는 지름 30cm이고 편면의 연주 시간은 25~30분이다. 1948년에 미국의 콜롬비아 회사에서 팔기 시작했다.

– 『고등학교 독서』

문제 1 **제시문 【가】의 사회·문화 현상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나】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라】와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무제한적인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다른 사람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우리가 준법 의식을 가지고 국가 구성원 간의 약속인 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준수해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평화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1930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에는 시민의 소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간디는 영국 정부에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금 제조 금지법을 반대하는 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 후 간디는 해변에 모인 군중에게 다음과 같이 비협력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소금 제조 금지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다른 법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협력을 실행하면 결국 행정은 마비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게 우리에게 규칙을 적용하고, 감옥에 보내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인들이 3억 명을 처벌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십시오."(간디의 연설문, 1930. 4. 5.)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흑인의 참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백인들의 차별과 협박으로 흑인들이 투표하지 못하던 1960년대 미국. 마틴 루서 킹(King, M. L.) 목사는 흑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앨라배마주 셀마시로 내려가 실질적인 흑인 참정권 운동을 벌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협조와 앨라배마 주지사의 방해 공작으로 킹 목사의 운동은 난항을 겪고, 그 와중에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분개한 흑인들은 폭력으로 대응하는 대신, 비폭력 행진으로 대응하고 에드먼드 패터서 다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린다. 경찰은 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이 모습이 미국 전역에 보도되자, 이 운동은 흑인뿐만 아니라 양심 있는 백인까지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저항하였고, 끝내 투표권을 쟁취하였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정의롭지 못한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정부 밑에서는 다수를 설득하여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약 저항한다면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치료가 병보다 더 나쁜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가 치료를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정부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개혁을 준비하지 않는가? 왜 정부는 현명한 소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왜 정부는 상처도 입기 전에 야단법석을 떨며 막으려 드는가? 왜 정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방심하지 않고 항상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민들이 잘하도록 격려하지 않는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시민의 불복종』)

–『고등학교 통합사회』

【마】 현대 사상가인 롤스(Rawls, J.)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 그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우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차등의 원칙),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롤스,『정의론』)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2 **제시문【가】에서 말하는 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나】,【다】,【라】를 바탕으로 추론한 후,【가】와【라】에서 주장하는 정의 실현에 대한【마】의 관점을 서술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범묵·윤용아,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사회·윤리』)

–『고등학교 독서』

【나】 데이비스와 무어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두 개의 사회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능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를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은 어렵고 일정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할 재능 있는 자는 제한되어 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기능을 훈련받기 위해서는 금전적·시간적 희생이 필요하다. 재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맡게 하려면 그 지위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 특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별적으로 분배한 결과 제도화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공장·기계 등과 같은 생산 수단 소유 여부가 계급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을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가 계급은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두 계급 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산 수단의 소유와 분배를 둘러싼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오랜 역사를 거쳐 변화하면서 계급 갈등을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버지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고등학교 문학』

【마】 오늘날 국가는 인간이 지닌 천부적이며 초국가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 그에 따라 대다수 민주 국가에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고,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기본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각국의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문제 3

제시문【가】의 자유 경쟁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나】와【다】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를 바탕으로【라】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나】와【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마】에 근거하여【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나】와【다】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500~700자> [40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 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그늘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기에
내가 슬쩍 곁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레이
집에 다 와 간데이
(하종오, 『원어(原語)』)

– 『고등학교 국어』

【나】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 대지의 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물을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지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무생물과 식물, 곤충, 각종 동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업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 (……)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동양에서 바라본 세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교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인간을 타인, 더 나아가서는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제시하였다.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을 강조하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비를 추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였다.

*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수신과 수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1

제시문【나】, 【다】, 【라】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가】의 시를 해석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를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신의 근무 태도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을 더 잘 알고 있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근로자는 자신의 행동을 감출 유인이 있고,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속성을 감출 유인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우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 시장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고등학교 경제』

【나】 금융 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예금자의 가계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국가 금융 제도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험 제도'를 실행한다. 이는 예금 보험 공사가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1997년 외환 위기로 여러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이던 종전의 보장 한도를 높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원래 예금자 보호 제도가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되 부실 금융 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예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것이다.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2001년부터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보장 한도를 올렸는데 이후 저축 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축 은행의 보장 한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보장 한도가 높으면 금융 기관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만 의존해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등학교 경제』

【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를 더 가진 사람이 정보를 덜 가진 사람에게 신호 보내기를 통해 사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상이 일정 기간 수리를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차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또한 정보를 덜 가진 사람은 정보를 더 가진 사람에게 골라내기를 통해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 예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중고차 판매상에게 품질 검사서를 요구하거나 건강 보험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라】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보험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거나 가입자의 과거 병력을 조회하는 것, 자동차 보험 회사가 과거의 교통사고 통계를 근거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문제 2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보험 가입자인 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가】에서 찾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나】를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문【다】와【라】를 참조하여 제시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갈퉁(J. Galtung)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퉁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가난, 차별, 억압, 환경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앞부분 줄거리-'나'의 가족은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이웃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 가족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아 간다. '나' 역시 두 사람의 아들 '투이'와 친구가 된다. 어느 날 학교에서 2차 대전에 대해 배우던 시간에 투이는 2차 대전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난 전쟁은 없었다는 선생님의 말에 '아닌데요'라고 말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이 다 죽었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투이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투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만다. 결국, 반장 '잉가'가 베트남전에 대해 말하고 선생님은 반장을 칭찬하면서 베트남전은 미국의 실책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는 '투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애를 앞에 두고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한다. '나'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는 '투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 애가 교실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 것처럼 느끼며, 독일 애들에게 분노마저 느낀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투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어른들은 못 들은 척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아빠는 한국어로 '나'를 야단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독일어로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라고 한다. 그때 투이가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 버린다. 응웬 아줌마는 투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하는 눈빛으로 "넌 신경 쓸 것 없어.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야"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투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준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말했다. "응웬 씨가 겪었던 일, 저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 아저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 보였다. 응웬 아줌마는 호 아저씨에게 베트남어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말의 진동이 내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으니까.

아빠는 엄마와 호 아저씨의 대화를 못 들은 것처럼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당신도 무슨 말 좀 해 봐." 엄마가 한국어로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얘길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뭔데?" 아빠가 한국어로 받아쳤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 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응웬 씨였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생략)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요? 그건 그저 구역질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 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조심히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투이야.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기저귀 가방과 카디건을 들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생략)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라는 마음이 그날 밤, 아줌마와 우리 사이를 안전하게 갈라놓았다. 그건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도, 서로로 인해 더는 다치고 싶지도 않은 어른들의 평범한 선택이었다.

(뒷부분 줄거리-엄마는 투이네 가족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한 번 뒤틀린 관계는 바로잡을 수 없었다. '나'의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엄마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해, 엄마와 꼭 닮은 서른 셋의 '나'는 독일에 가서 응웬 아줌마를 만나 '신짜오, 씬짜오*' 인사를 나눈다.)

* 신짜오: 베트남어로 '안녕'이라는 뜻.

(최은영, 『신짜오, 신짜오』)

-『고등학교 문학』

【다】 (앞부분 줄거리-아내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아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면서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된다. '나'는 이런 아내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와 아내는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간다. 사교적인 대화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던 아내 앞에 쇠고기를 버무린 탕평채가 나오자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저는 안 먹을게요."라고 말한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자 아내는 좀더 큰 소리로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라고 말한다. 결국,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라는 사장의 말과 함께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간다.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골고루 먹는 게 건강에 최선이다. 사상체질과 같은 채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화제로 오가던 중, 채식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끊고 '나'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녜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략)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 나와 나에게도 들렸다.

"뭐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 서방은 어쩌란 말이냐?"

아내는 "예."라고도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

부엌의 국 냄비가 끓었으므로 아내는 말없이 수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을 위해 나는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죄송합니다, 장인 어른."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네."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오년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과 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콩 일곱을……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열여덟 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뒷부분 줄거리-처형네에서 장인은 아내에게 육식을 강요하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하다가 자기 몸을 다치게 한다.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장모는 고기를 먹이려고 시도한다. 한 약 한 모금을 마시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한 그녀는 '나'가 잠든 사이 병원 앞 벤치에서 새를 쥔 채 발견된다.)

(한강, 『채식주의자』)

-『고등학교 문학』

【라】 요나스(H. Jonas)는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한다. 하나는 인간이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이다. 요나스가 강조한 것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책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미래세대의 존속이 현 세대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현 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고 미래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처럼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를 읽고 소설 속의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 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가】의 주장을 통해 각각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라】를 읽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나】와 【다】의 인물 간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술하시오.

<550~700자> [40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II]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100분이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속 가능한 사회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이다.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며,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기후 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다. 기후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 대기 구성의 변화, 지표면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삼림의 파괴 또한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다】 국제 사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 어렵다.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산업별로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사서 쓸 수 있도록 도입한 시장 제도이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라】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의 비정부 기구(NGO)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또한 비정부 기구는 정부의 환경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세계지리』

【마】 얼마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휴지로 물기를 닦다가 휴지 보관함 위에 붙어 있는 공익 광고를 보았다. 거기에 쓰인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라는 문구를 보고 순간 뜨끔했다. 휴지를 마구 쓰는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평소에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다음 아무 생각 없이 휴지나 손 건조기를 써 왔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손의 물기를 닦을 때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휴지나 손 건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 과연 괜찮을까? 많은 사람이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손 건조기를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손수건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던 지금까지의 습관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은가?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친구에게 손수건 선물하기 등이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고등학교 국어』

문제 1

제시문 【가】를 통해 【나】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 【라】, 【마】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자의 핵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함[仁者愛人也]과 사람다움[仁者人也], 즉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이자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서 효(孝), 제(悌), 충(忠), 신(信)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효와 제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보고 매우 중시하였다.

그래서 효제(孝悌)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비로소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忠恕)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충'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서'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推己及人]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유교에서는 인(仁)의 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大同社會)를 이상 사회로 제시했고, (……)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개인의 인격 도야를 특히 강조하였다. 유교의 윤리 사상에서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이와 같이 자기를 수양해 나감과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修己安人]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을 군자(君子)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의 윤리 사상은 인격 완성을 중시하고,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한 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 제도나 구조가 필수적이다.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더라도 사회 제도가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각 개인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공정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는 행복한 삶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사회는 권리, 의무, 소득, 기회, 명예, 직위 등과 같이 한정된 재화를 놓고 벌이는 구성원 간의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근로자는 응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학생은 응당하게 받아야 할 점수, 범죄자는 응당하게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등 구성원 각자가 '응분의 몫'*을 받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 사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구성원 각자에게 (……)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될 때 기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응분의 몫: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마】 초나라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하였습니다.”라고 하자, 공자는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는데,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논어』)

제자인 동응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가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만약 순의 아버지인 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맹자가 대답하였다. “순임금은 천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맹자』)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에 나타난 유교의 윤리사상을 통해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고, 【다】와 【라】에 제시된 현대적 관점에 근거하여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 주장을 비판하시오.

<300~40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민의 자유가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된다. 이때 시민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유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유의 바탕에는 개인은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 규범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 개인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나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또한, 나는 이 씨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그것들은 나의 삶과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빈부 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단,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과정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교정해야겠지요.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마】 드디어 드레퓌스가 군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한을 씹으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묻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 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에는 오직 뒤파티 드클랑 소령의 기괴하고도 광기 어린 상상력만이 있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삼류 소설로 만들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퓌스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의 외침은 그가 뒤파티 드클랑 소령의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더러운 유대인’ 사냥 등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 제가 고발한 사람들에 관한 한,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 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게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는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군적 박탈식: 군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의식.
*날조(捏造--)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다.
*기소장(起訴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고등학교 독서』

【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자비를 구합니다. 왕이시여, 부디 시민들의 안위만큼은 보장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지 않는다면, 칼레 시는 철저히 쑥대밭이 될 것이다."

1347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앞에 프랑스 북부에서 온 칼레의 사절이 간절히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백 년 전쟁(1337~1453), 그 초기에 칼레 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이나 영국인들의 공격을 잘 막아 냈다. 그러나 영국군의 방어 태세에 자신감을 상실한 나머지 프랑스 왕 필리프 6세가 칼레 시로 향하던 군사들에게 발길을 돌리라 명하자, 칼레 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겠지."

이 소식이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져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넋마저 내어 준 것은 아니오.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오.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기에 죽음이 두렵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슬프고 괴롭지만, 오로지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향해 나아간 그들의 행동은 진정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주헌, 『이주헌의 프랑스 미술 기행』)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음.
*사자(使者):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굴욕감(屈辱感): 남에게 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으며 느끼는 창피한 느낌.
*부지(扶持/扶支)할: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여 나갈.
*자괴감(自愧感):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구차(苟且):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거나 버젓하지 못함.

-『고등학교 독서』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다】의 주장을 【가】의 관점으로, 【라】의 주장을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를 토대로 【마】와 【바】의 상이한 정의관(正義觀)을 추론하고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하시오.

<500~700자> [40점]

2026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이 문제는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사고를 통해 서로 공감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둔다. 【가】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의 갈등을 【나】에 나오는 집단 편향을 통해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고, 【다】의 실존적 '주체성'을 통해 영혜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수용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에서 나오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을 통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성찰적 태도를 기초로 해서 화해와 이해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문학 텍스트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나'와 다른 '너'를 이해하며, 지배적 의견 속에서도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존주의적 주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문제해설

【가】에서 나타나는 영혜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육식을 선호하는 다수와 채식을 선호하는 소수 사이의 충돌이다. 영혜는 자신이 채식을 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려고 하지만, 사상 의학, 세계사, 종교, 웰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하게 편향된 반대 의견 속에서 갈등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개인의 소수 의견은 편향된 지배적 의견 속에서 실존적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나】에서는 집단 편향에 대해서 다룬다.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사람들과만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주목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이와 같은 편향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가】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이와 같은 편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간의 개성과 주체성은 결국 관습과 타인과의 경계에서 다름으로 드러나는데, 이때 개인은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가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인데, 육식을 선호하는 집단에서도 꿋꿋하게 채식을 주장하는 영혜의 주체적 결정에서 이와 같은 실존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라】에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이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회 구성원 간 차이와 대립은 항시 존재하지만, 합리적인 공동체라면, 토론과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적 이성을 발휘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대화와 토론이 있을 때, 소수의견과 지배적 의견 간의 조화로운 공진(拱進)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대해서 【나】를 원인으로 활용하여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10
	2. 【가】에서 보이는 영혜의 주체적 태도를 【다】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해석한 경우	10
	3. 【라】를 통해 '의사소통적 이성'의 활용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상	S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서술의 논리 전개나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서술의 논리 전개나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가】에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영혜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 【나】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만을 확장, 강화한다고 말한다. 【가】에서 채식을 하는 영혜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말로만 집단 극화 되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살면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는데, 이 불안과 공포가 실존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사람들과 '다르다'는 공포 앞에서도 영혜는 '채식'을 당당히 결정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라】에서는 의사소통적 이성에 기초한 대화와 토론 없이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고 소수 의견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백 포함 397자)

문제. 02

출제의도

이 문제는 먼저 학생들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지만 【가】와 【다】를 통해 다시 공동체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인간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과 매체의 쓰임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기를 의도한다. 동시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매체 기기가 정서적 소통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소통 방식은 물론 삶의 양태 전반을 바꾸고 있다. 【나】에서는 인간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의 업무 효율성이 높은 AI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 기회는 상실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라】에서는 인공 지능 기술과 생존을 타협해야 하는 인류의 존재 문제를 다룸으로써 과학 기술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또한 의도한다. 이 지문들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소외와 공동체의 삶, 소통 양식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대응, 그리고 인공 지능 중심의 과학 기술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마】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함으로써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나아가 미래 사회에 과학 기술이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해설

【가】는 이해준의 시나리오 「김 씨 표류기」의 일부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사는 남녀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회 공동체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편지 등이 등장하며 소외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 연결된 삶을 사는 사회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신문 기사 내용으로 고도의 효율성을 가진 인공 지능(AI) 로봇이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다. 극도의 업무 효율성을 가진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줌으로써 보다 편리한 세상을 열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실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과 노동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어 인간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다】는 영화 <그녀(HER)>의 내용으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 인공 지능 기기와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에서 볼 수 있듯이 AI가 인간의 기능적 업무를 대체하는 수단을 넘어 인간과 직접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향후 인간관계 자체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유발 하리리의 AI 기술이 가져다 줄 미래 세계에 관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이다. AI 기술 진화 속도가 인간의 수용 능력을 뛰어넘어 결국 인류는 생존을 위해 기계와 결합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다소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생존의 위기까지 몰고 올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과학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다줄 것이라는 명제에 질문하고 있다.

【나】, 【다】, 【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대변되는 과학 기술의 진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가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인공 지능이 【나】에서는 인간의 기능적 업무 대체, 【다】에서는 인간의 정서 및 관계 대체, 【라】에서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대체하는 이슈를 제시하고 있어 과학 기술 진화가 인간의 영역을 점차 좁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는 지나친 과학 기술 의존으로 인해 인간의 주체성이 약화되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과 함께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 나날이 확대되는 가운데 윤리적, 제도적 차원에서 과학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견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과학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윤리적 가치에 의해 지도되고 규제가 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의 여자 김 씨와 【다】의 시어도어의 소외와 소통추구라는 공통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서술한 경우	7
	2. 【가】와 【다】의 소통 방식에서 수단과 대상이라는 매체의 차별점을 잘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	8
	3. 【마】의 윤리적 가치에 의한 지도와 규제의 필요성을 【나】, 【다】, 【라】에 잘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15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상	S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그 설명의 과정과 구성 또한 잘 갖춘 경우
	A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지만 글 전개의 논리적 순서나 구성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글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하여 작품에 대한 독해에 잘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성취가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거나 작품의 독해 결과를 비교적 잘 서술한 경우
	C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이 부족하고 글 전개가 미숙한 경우
	D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이 부족하고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세 가지 달성 기준이 모두 부족한 경우
	F	백지 답안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두 인물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통을 갈구하고 있다. 【가】의 여자 김 씨는 편지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반면 【다】의 시어도어는 기기 그 자체를 수단이자 동시에 대상으로 삼아 소통하며 교감한다. 매체를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기기 자체를 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나】의 인간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의 과학 기술은 노동 소외 문제와 인간의 주체성 약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상화된 기기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다】와 인공 지능 기술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라】의 입장 역시 과학 기술이 지향하는 인간 주체성 확보와 존엄성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가치에 의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공백 포함 391자)

문제. 03

출제의도

【가】와 【나】에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면서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와 【라】에서는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활용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많은 이윤을 창출하게 된다. 【마】와 【바】에서는 케인스와 롤스의 개념과 공공기관 사례를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다】와 【라】에서 제시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혁신을 실현하게 되면 수반되는 실업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평가하려고 한다. 【마】와 【바】에서 제시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여 신기술과 신사업의 발전에 수반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방안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평가하려고 한다.

문제해설

【가】는 로봇,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바리스타, 셰프, 스포츠구단 감독, 스포츠 기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로봇이나 인공 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나】는 은행 업무 자동화를 이유로 상담원들은 해고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일자리에서 해고 되었으므로 동일한 업종의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는 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며 창조적 파괴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이윤으로 주장하였다.

【라】는 기업가 정신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기업가 정신을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로 정의했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적인 기업가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며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마】는 케인스와 롤스의 개념을 인용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케인스는 다양한 공공정책을 실행하여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국민의 구매력은 유지될 수 있다. 롤스는 국가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에서는 국가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여 실업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인력개발원에서 실무 맞춤형 기술 훈련 실행, 청년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신사업과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와 【나】에서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기술함.	8
	2. 【다】와 【라】의 관점으로 【가】와 【나】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기술함.	12
	3. 【마】와 【바】의 관점으로 【가】와 【나】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함.	12
	4. 【마】와 【바】의 관점에서 제시한 【가】와 【나】의 문제 해결 방안의 한계점 명확히 제시함.	8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음
하	E	1, 2, 3, 4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음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가】와 【나】에서 로봇,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다】와 【라】는 모두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 개념을 제시하여 새로운 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적 도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다】와 【라】에서 제시한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 개념은 과거의 기술과 산업을 파괴하고 비용 절감이 되어야 혁신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업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마】와 【바】에서는 정부가 공공 정책을 실시하여 최저 소득 유지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마】와 【바】에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실업자를 보조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직무 기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면 실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 개입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미래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적 도전에도 뒤처져서 일자리가 줄게 된다. 공공 분야는 쇠퇴하는 산업과 기술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어 실업문제 해결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공백 포함 634자)

2026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제시문을 기반으로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 그리고 비판적 읽기의 관점에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 인터넷, 누리 소통망 등 디지털 기술 및 기기로 소통되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가】에서 디지털 기술 및 기기를 사용할 때 단순한 디지털리터러시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야 하며, 【나】에서 최근의 가짜 뉴스가 쉽게 유통·확산되며 수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다】와 【라】의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 그리고 비판적 읽기의 관점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문제해설

【가】에서는 디지털 세상에서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더 정확히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능력이 요구됨을 서술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마주하는 이용자는 이를 비판적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나】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대형 검색 누리집이나 누리 소통망 등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가짜 뉴스를 다룬다. 이 가짜 뉴스 혹은 정보들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쉽게 유통·확산되며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의 극복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의 극복 방안으로, 【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을 서술을 한다. 품성적 덕은 행위와 감정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중간을 지향하는 중용으로 나타난다. 지성적 덕은 철학적 지혜와 이해력,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좋고 유익한 것을 숙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말한다. 이를 디지털 시대에 접하게 되는 디지털 정보를 수용하는 문제에 적용해 보면, 디지털 정보를 마주하며 품성적 덕을 바탕으로 감정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절제된 중용의 자세를 취하여 한다. 또한 지성적 덕, 특히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정보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라】는 비판적 읽기의 기본 요소들을 기술한다. 이를 또 디지털 정보를 마주할 때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디지털 정보를 접할 때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가 내용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그리고 주장이나 설명이 적절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따져 보며 비판적 시각으로 주어진 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를 바탕으로, 인터넷 등으로 접하는 디지털 정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를 바탕으로, 비윤리적인 가짜 정보가 쉽게 유통·확산되는 문제를, 명확히 기술함.	10
	2. 【다】를 바탕으로,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때 품성적 덕을 바탕으로 중용의 자세를 취하며, 지성적 덕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확히 기술함.	10
	3. 【라】를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등에 관해 비판적 시각에서 디지털 정보를 평가하여야 함을 명확히 기술함.	10

상	S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가】와 【나】에서는 인터넷, 누리 소통망 등으로 접하는 디지털 정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비윤리적인 가짜 정보가 쉽게 유통·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가 됨을 말한다. 이 문제들을 극복할 방안으로, 【다】는 디지털 정보를 이용할 때 품성적 덕을 바탕으로 감정에서 절제된 중용의 자세를 취하며, 지성적 덕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라】는 디지털 정보를 마주할 때 비판적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정보가 내용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그리고 주장이나 설명이 적절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따져 보며 비판적 시각으로 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공백포함 378자)

문제. 02

출제의도

오늘날에는 다양한 국제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 문제는 비단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동서양이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였던 19세기에도 상당한 국제 문제가 존재했었다. 특히 서양의 대외 팽창 정책은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는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국제 사회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국제법을 통해 국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 간 폭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법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본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현재 국제법의 한계를 조망하면서 답안 작성자가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국제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태도를 생각해 보도록 구성되었다.

본 문제에서 답안 작성자는 【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적 상황을 국제 문제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법을 국제 문제 해결 시도의 하나로서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법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을 국제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문제는 위와 같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문제해설

【가】는 서양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침략적 팽창주의 정책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국가 간 갈등적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가】와 【나】는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는 국제법의 정의와 국제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 이 지문은 또한 국제 문제에서 국제법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한다. 【라】는 국제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지문이다. 국제법은 국제 문제 해결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마】는 전 지구적 수준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태도로서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세계 시민 의식이란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고 시민 모두가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국제 문제를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을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개인과 개인이, 국가와 국가가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국제법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 【나】에 나타난 국가 간 갈등적 상황에 대해 서술함.	10
	2. 【다】를 바탕으로 국제 문제에서 국제법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하고 【라】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한계를 서술함.	10
	3. 【마】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의 측면에서 【라】에서 지적하는 국제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태도를 서술함.	10

상	S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나】는 국가 간 갈등적 상황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로서 【다】는 국제법을 설명한다. 국제법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라】가 지적하듯이, 국제법에는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도 부실하다. 따라서 국제법은 각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설명한다. 이는 자신을 지구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이 함양된다면, 국제법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공백포함 380자)

문제. 03

출제의도

이 논술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인간의 존재, 도덕 수양, 초월적 구제, 그리고 공동체적 조화의 관점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데 있다. 먼저, 제시문 【가】는 인간의 외로움을 삶의 본질로 인식하면서, 그 고통을 자연과 신의 공감 속에서 견디는 인간 이해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수험생은 화자가 보이는 타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연민의 태도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다음으로 【나】는 이이의 성리학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은 기질을 변화시켜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는 불교의 보살서원을 통해 타인의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구제를 실천하는 보편적 인간 사랑을 강조한다. 【라】는 도가의 무위자연 사상을 통해 인간과 사회가 조화롭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비우고 겸허히 살아야 함을 제시한다. 이 세 제시문은 모두 인간의 내면적 수양과 도덕적 깨달음을 통해 자기 초월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마】의 외국인 혐오 문제를 탐구하면서, 인간 본성의 정화와 타자에 대한 이해, 겸허한 태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구성한 문제이다. 즉, 도덕·종교·철학적 사유를 융합하여 현대 사회 문제를 성찰하고, 인간다운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출제의 핵심 의도이다.

문제해설

각 제시문은 인간 존재와 사회, 도덕적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가】는 정호승의 시로, 인간의 본질적 외로움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과정이 곧 삶이라는 깨달음을 준다. 자연의 이미지와 종소리, 하느님의 눈물 등은 인간과 자연, 신까지도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나】는 율곡 이이의 유학적 인간관을 담고 있다. 인간의 기질은 본래 다르지만, 꾸준히 정성을 다하면 맑고 순수한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도덕 수양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자아 수양이 노력과 성실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다】는 불교의 『지장경』으로, 보살의 소원을 통해 무한한 희생과 배려의 정신(사랑, 자비)을 드러낸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할 때까지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소원은 이타적 구원의 극치를 상징한다. 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연민의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노자의 『도덕경』으로, 무위자연에 근거한 정치 철학을 설명한다. 진정한 통치는 인위적 간섭 없이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며, 욕망을 줄이고 자연에 따르는 삶이 조화로운 사회의 근본임을 강조한다.

【마】는 현대 사회의 이민자 차별 문제를 다룬 내용으로, 경제적 불안이 외국인 혐오로 번지는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제노포비아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공존의 윤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에 나타난 '화자의 인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명함.	6
	2. 【나】, 【다】, 【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의 화자의 자세에 대해 각각 설명함.	13
	3. 【나】, 【다】, 【라】의 공통된 시각이 무엇인지 설명함.	6
	4. 【나】, 【다】, 【라】의 공통된 시각을 통해 【마】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15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가】의 화자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 조건으로 인정하고, 타자(인간)의 고통을 연민과 공감으로 수용한다. 그는 외로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존재의 상호 위로와 연결을 통해 인간적 따뜻함을 제시한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의 태도는 인간의 기질을 수양과 성실한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도덕적 가능성과 연결된다. 즉, 외로움 속에서도 성실히 자신을 닦는 자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의 관점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소원과도 같다. 타자(인간)의 외로움을 함께 느끼고 포용하려는 마음은 배려 또는 희생(사랑, 자비)의 실천을 담고 있다. 【라】의 관점에서 보면, 화자의 태도는 인위적 개입보다 자연스럽게 삶을 받아들이는 무위의 태도에 가깝다. 외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도가의 이상과 일치한다. 【나】, 【다】, 【라】의 공통된 시각은 내면의 수양과 조화를 통해 타자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마】의 외국인 혐오 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면, 각 개인이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닦아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는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차별이 아닌 연대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공백포함 620자)

2025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제시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관점을 고려하여 인간의 고통과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제시문【가】의 부부가 겪는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나】와 【다】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간의 감정, 권리, 도덕적 책임 등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문제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와 감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의 결말에서 부부의 문제적 상황: 부부는 영우의 죽음과 그로 인한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데, 이 슬픔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와의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 사회는 부부의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얕은 동정과 소문으로 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는 심리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외면 받게 된다. 제시문 【가】에서 부부가 처한 고통은 주로 주변 사람들의 부적절한 반응과 사회적 태도에 의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의 주장: 제시문 【나】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알 권리 간 충돌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가 겪는 고통이 공적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그들의 사적 권리인 인격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 부부의 사적인 감정은 대중의 호기심과 잘못된 소문에 의해 왜곡되고, 이는 그들의 고통을 공공의 관심사로 변질시킨다. 이로 인해 부부는 자신들의 슬픔을 사적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적 소문과 시선의 대상이 되며, 그 고통은 더욱 심화된다.

【다】에서의 주장: 제시문 【다】는 흄의 도덕 이론을 바탕으로 공감 능력이 도덕적 행동의 원천이 된다고 말한다. 사회가 부부의 슬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부는 심리적 고립을 겪게 된다. 흄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는 공감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외면당하면서 고통은 계속해서 깊어진다.

종합적인 해석: 제시문에서 부부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들의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더욱 심화된다. 【나】의 인격권 침해와 【다】의 공감 부족이 결합되면서, 사회는 부부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은 더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의 소설 속 인물들의 문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서술한 경우(10점)	30
	2. (나)를 통해 (가)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양상을 잘 설명한 경우(10점)	
	3. (다)를 통해 (가)에 나타난 '공감과 연민의 결여'를 잘 논술한 경우(10점)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상	S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그 설명의 과정과 구성 또한 잘 갖춘 경우
	A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지만 글 전 개의 논리적 순서나 구성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글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하여 작품에 대한 독해에 잘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성취가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거나 작품의 독해 결과를 비교적 잘 서술한 한 경우
	C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이 부족하고 글 전개가 미숙한 경우
	D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정도만 달성하고 있고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세 가지 달성 기준이 모두 부족한 경우
	F	백지 답안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서 부부의 문제적 상황은 영우의 죽음과 그로 인한 고통이 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얕은 감정으로 그들을 대한다. 이 상황은 【나】에서 말하는 인격권과 알 권리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 부부의 고통이 공공의 영역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적 감정과 권리는 타인의 호기심과 잘못된 소문에 의해 침해받는다. 부부의 슬픔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다】의 관점에 따르면 부부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동이 부족했던 사회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 표면적인 동정이나 거리를 두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립과 상처를 깊게 만든다. 부부는 서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고통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어 버린 것이다.

문제. 02

출제의도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탈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본다. 각각의 사례를 적용하여 다양한 관점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규범의 허용 한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일탈 행동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나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절도나 살인 등과 같은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아노미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나 혼재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하고 사회가 이러한 아노미 상태에 빠질 때 일탈 행동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제시문 [다]는 일탈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차별 교제 이론으로 집단과의 상호작용 또는 학습을 통해 일탈 행동을 배운다는 설명이다. 제시문 [라]는 아노미 상태를 설명하는 예시문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아파트 주거 공간을 설명하며 급격히 변동한 주거 환경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태도는 이전 단독 주거 시절에 벗어나지 못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일탈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차별 교제 이론의 예시문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는 상황을 고전 및 고사성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에 대한 [나]의 이론적 관점을 설명함	5
	2. 제시문 [가]에 대한 [다]의 이론적 관점을 설명함	5
	3. 제시문 [나]의 이론적 관점으로 [라]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함	10
	4. 제시문 [다]의 이론적 관점으로 [마]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시함	10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나]는 거시적 관점으로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사회규범이 약회되거나 부재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없는 '무규범 상태'를 말한다. [다]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행위 동기,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다는 이론이다.

[라]에서 제시한 것처럼 변화한 환경에 적절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고, 약화된 사회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환경에 적절한 능동적인 대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마]는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하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등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 03

출제의도

공자의 대동사회와 플라톤의 철인 정치 관점에서 노자의 소국과민과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자의 대동사회와 노자의 소국과민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에서 동양의 유교 사상의 관점에서 공자는 이상 사회로 대동 사회를 지향하였다. 대동 사회란 성인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인(仁)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도덕적 사회이다. 대동 사회에서는 사회적 화합과 평등을 강조한다. 대동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 돌보고,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로, 모든 이가 평등하게 존중받고 배려받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다. 이 관점은 인간 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이상 사회를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설명한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철학자가 통치하고, 각 계층이 그들의 덕목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정의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의 윤리 사상에서는 철학적 지혜와 이성적 탐구가 사회의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노자는 백성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소박하지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소국과민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본다. 소국과민 사회는 작은 영토에 적은 수의 백성으로 구성되며, 예(禮)와 같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를 거부하고, 구성원이 인간의 본래 자연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이다.

제시문 [라]에서 마르크스(Marx, K.)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을 공유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기 때문에 억압과 착취가 없다. 그 결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지고, 누구나 자기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문 [마]는 니콜로 마키아벨리(Machiavelli, N.)의 『군주론(The Prince)』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군주론의 배경은 근대적 정치 이론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15세기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후원자에게 실용적인 정치적 조언을 해주고자 군주론을 썼을 때이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스키피오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사적 기율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명한 군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설명함.	5
	2.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통치자와 이상 사회의 상을 설명함.	5
	3. 제시문 [다]의 주장을 설명함.	5
	4. 제시문 [라]의 주장을 설명함.	5
	5. 제시문 [다]와 [라]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함.	10
	6. 제시문 [가]와 [다]를 기반으로 [마]에 들어 있는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함.	10

상	S	1, 2, 3, 4, 5, 6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 5, 6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5, 6 중 5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5, 6 중 5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5, 6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5, 6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5, 6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큰 도(道)가 행해진 세상의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다스릴 때 신의와 화목, 상호존중과 협력적인 삶이 구현되는 대동사회의 상을 제시한다. 【나】는 인간의 순수한 이성적 사유를 통해 참된 실재인 이데아에 관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사회를 제시한다. 【다】와 【라】도 이상 사회를 주장하지만, 【다】는 자연의 질서가 도에 가까우며, 그 질서에 따르면서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이라 하고, 이상 사회를 위해서 지도자보다 이상적인 인간을 우선시한다. 반면, 【라】는 경제적 구조와 계급 해소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평등을 통한 평등한 이상 사회를 주장한다. 【다】는 갈등이 아닌 반면, 【라】에는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 【마】는 【가】의 '대동사회'에서 강조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의 정신과 상반되는 접근이다. 【가】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억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므로, 군주의 강압적인 성향은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또한, 【다】의 무위자연의 철학에서도 군주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비판받을 것이다. 노자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질서를 이루는 방식을 추구하며, 군주의 '두려움'을 강조하는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위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이상 사회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25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르고 간편한 문화 콘텐츠, 즉 '스낵 컬처' 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빠르고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재미'의 감정만을 유발한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는 매클루언이 제기한 매체 환경의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이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오래 가지 않고 내재화하기 어려운 가치만을 선호하기보다,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 빠른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지 말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가지는 것이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옳은 방향일 것이다.

본 문제는 (나)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특성과 (다)에서 제시하는 매체 환경이 갖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에 근거하여, (가)의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라)와 (마)의 관점에서 너무 빠른 매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제해설

(가)는 '스낵 컬처'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스낵 컬처'는 스마트폰으로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분량이 짧으며, 글과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든 콘텐츠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스낵 컬처'가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유발하여,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즐거움, 즉 '인식의 지연'에서 오는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인 뉴미디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을 대표적인 뉴미디어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한 콘텐츠를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는 매체 환경에 대한 매클루언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매클루언에 따르면, 매체는 인간 감각의 확장이라 볼 수 있으며, 인간이 매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감각의 마비 상태가 일어남에 따라 매체 환경이 인간의 삶에 대해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라)는 행복과 기쁨의 감정에 대해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행복은 느리고, 꼼꼼하며, 빈틈없이 채워진 상태로서 오래 가고 자기 것이 되는 반면, 기쁨은 빠르고, 간단하며, 엉성하게 채워진 상태로서 오래 가지도 않고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과 기쁨의 대비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간단한 것보다 느리고 꼼꼼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람직함을 서술하고 있다.

(마)는 속도의 측면에서 삶을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관성적인 세상의 속도를 벗어나, 때때로 느린 호흡의 시간을 보내거나 일부러 멈추기도 하는 등 자신만의 속도를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주체적인 태도임을 주장하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답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전개 방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먼저 (가)의 '스낵 컬처' 현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각각 (나)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매체 환경의 특성과 (다)에서 제시하는 매체 환경이 갖는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라)와 (마)의 공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너무 빠른 매체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뉴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스낵 컬처' 현상의 긍정적 영향임을 명확히 설명함	10
	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매체 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깊이 있는 사고나 복잡한 감정의 발현을 제한시킨다는 점이 '스낵 컬처' 현상의 부정적 영향임을 명확히 설명함	10
	3. 느리고 꼼꼼하게,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시문 (라)와 (마)의 공통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스낵 컬처' 현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태도를 제시함 ▲ (라), (마)의 관점을 부분적으로 추출한 경우에는 부분 점수 부여	10

상	S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중 2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중 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스낵 컬처'가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매클루언의 이론에 따르면, 매체 환경은 인간 감각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개인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매체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스낵 컬처'는 사람들에게 재미라는 한 가지 감정만을 유발하여 깊이 있는 사고나 복잡한 감정의 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려면, 일시적이고 내재화하기 어려운 빠르고 즉각적인 기쁨보다, 관성적인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를 찾음으로써 느리고 꼼꼼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90자)

문제. 02

출제의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는 근대 시민사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화두이다. 이는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그 한계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헌법은 사회를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주요한 골격이다. 잘 만든 헌법, 그것을 잘 지키는 시민,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잘 운용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그 기본적 인권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기본권을 회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에서는 그 방안 중 하나로 시민 불복종을 다룬다. 시민 불복종의 사례 및 주장, 그리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탐구함으로써, 준법 의식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문제해설

(가)는 준법 의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 국가 권력과 타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은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그 법을 잘 지킬 의무가 있다. (나)는 1930년 영국 소금법에 대하여 불복종하는 간디의 소금 행진을 시민 불복종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간디는 당시 영국이 인도인을 대상으로 만든 소금 제조 금지법이 인도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당한 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인도인들과 함께 이 법의 위법성에 항거하기 위하여 거리 행진을 하고 바다에서 직접 소금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다)는 196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시민 불복종 사례이다. 흑인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이 백인들의 차별과 협박으로 어렵게 되자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흑인들은 정부의 묵인하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겪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기보다는 비폭력 행진을 진행함으로써 결국 흑인들은 미국 대중들의 후원에 힘입어 참정권을 쟁취하였다. (라)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 『시민의 불복종』 일부분이다. 소로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부당한 법을 치유하기를 권장한다. 부당한 법을 병에 비유하며, 그 병을 치유하려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독려 되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 법을 잘못 만든 사람에게 있다고 일갈한다. (마)는 롤스의 『정의론』 일부이다. 롤스는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보장이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주장하는데,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배려를 강조한다. 만일 그 소수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민 불복종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과 준법 의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 각종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에 중점	5
	2. 제시문 (나), (다), (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당성 조건을 추출하기를 기대함 (1)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2)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3)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4)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5) 비폭력적일 것 ▲ 5가지 조건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조건을 추출하는 정도에 따라 부분 점수 부여	15
	3. 제시문 (마)에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롤스 관점에서 (가)와 (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핵심 ▲ (가)와 (라)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비교하여 언급할수록 가점 부여	10

상	S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을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중 2개(2는 반드시 포함)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권력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며 타인과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여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을 하기에 지켜야 한다. (나), (다), (라)에 기초하여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할 것, 합법적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것, 처벌이 예상됨에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을 것, 소수자 차별의 원인이 법 제정 주체자에게 있을 것, 비폭력적일 것 등이다. (마)는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평등한 자유, 차등,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가)는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배려에 구체성을 적시하지 못하는 반면, (라)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하여 정부와 개인의 역할을 독려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00자)

문제. 03

출제의도

국어 영역인 독서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자유 경쟁,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 영역인 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을 통해 다각도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분석적 이해 능력과 적용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치와 법 영역의 기본권 개념을 적용하여 모색하게 함으로써 통합적 사고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제해설

(가)는 자유 경쟁이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통제하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풍요를 동시에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현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라고 정리하면서 긍정한다.

(나)의 데이비스와 무어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별적으로 분배한 결과로 인식한다. 반면 (다)의 마르크스는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갈등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개인이 속한 계급의 차이에 따른 지배와 종속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가)의 견해에 대해 (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고, (다)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는 도시 빈민 계층에 속하는 난쟁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을 받은 상황, 극한 상황에 몰린 아버지가 공장 굴뚝에 올라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미'는 상황을 통해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곤궁의 사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사태를 (나)와 (다)의 입장에서 조망하면, 기능론적 입장에서 자유 경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나)는 난쟁이 가족이 능력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반면 갈등론적 입장에서 자유 경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다)는 난쟁이 가족이 속해 있는 도시 빈민 계급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마)는 오늘날의 민주 국가는 인간이 지닌 천부적이며 초국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난쟁이 가족의 생존 위기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인 기본권의 위기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난쟁이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기본권의 보장은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 문제를 통한 문제 해결에의 접근은 (나)와 (다)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 모두에게서 해결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에 나타나는 자유 경쟁에 대한 견해를 정리함.	6
	2. 제시문 (가)의 견해에 대한 (나)와 (다)의 입장 차이를 설명함.	10
	3. 제시문 (라)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나)와 (다)의 입장에서 각각 해석함.	12
	4.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나)와 (다)가 수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함	12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3, 4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3, 4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3 또는 4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가)는 자유 경쟁을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풍요를 동시에 제공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라고 정리하면서 긍정한다. 이러한 (가)의 견해에 대해 (나)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별적 분배의 결과로 인식하는 기능론적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이다. 반면 (다)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계급의 차이에 따른 지배와 종속관계로 인식하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의 난쟁이 가족이 철거 계고장을 받고 내몰리면서 생존의 위기를 겪는 경제적 곤궁의 문제 사태를 (나)는 난쟁이 가족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을 원인으로 인식할 것이고, (다)는 난쟁이 가족이 속한 빈민 계급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원인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난쟁이 가족의 생존 위기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인 기본권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난쟁이 가족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기본권은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따라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나)와 (다) 입장 모두에서 확보한다. (605자)

2024학년도 [인문계열 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 주인공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서술한 시를 통해, 국적, 인종, 문화, 취향 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과 가치(태도)가 무엇인가를 서술하도록 함. 특히, 제시문에 나타난 생태 중심주의, 자유주의적 가치관, 동양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 사이의 평등, 타인 존중, 개인의 자유, 상호 공존이라는 생태적,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덕목이 이 시의 배경과 관련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논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문제해설

가.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서술한 작품으로, 국적, 인종, 문화 등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과 가치(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함.

나. 생태 중심주의에 나타나는 관점으로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는 것으로, 인간과 생명은 존재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서로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내포함.

다.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이며 개인은 사회에 우선하고, 타인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개인의 삶의 방식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라. 동양적 윤리관에서 나타나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은 상호 의존하고 공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사회적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이러한 사회관을 가지기 위해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함.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나]: 존재의 존중과 평등 존재 자체로 서로 간 존중, 인간 사이의 평등	10
	2. 제시문 [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이 사회에 우선, 타인의 자유 존중, 개인의 삶의 방식 구속 배제, 자율성	12
	3. 제시문 [라]: 공존, 수양, 실천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 공존, 공생, 도덕적 수양,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차별 배제	12
	4. 가점 사항: 주인공이 보여 준 것처럼, "자신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약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조차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6
유의사항	▲ 답안 작성에서 [나], [다], [라]로 구별해서 작성해도 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작성해도 됨 ▲ 키워드 중심으로 평가하되,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키워드의 내용을 의미하는 더 우수한 맥락을 통해 서술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됨	

상	S	1, 2, 3, 4의 키워드와 가점 사항을 대부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의 키워드와 가점 사항을 대부분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위 사항 중 4의 가점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의 키워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의 키워드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의 키워드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1개만 올바르게 제시하거나 또는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 출신이라 하더라도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존재로서, 그 유용성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하여, 특히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타인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공존해야 하는 존재이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와 덕목을 기르기 위해 도덕적 수양에 힘쓰고, 사회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문제. 02

출제의도

정보의 비대칭 하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예금자 보험 제도에 적용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실행 된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도 예금보험공사와 보험 가입자인 금융기관 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인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예금수취와 부실한 자금운용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량이 적은 예금보험공사는 '골라내기'를 통해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요구하거나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게는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문제해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개를 요구

-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가입자인 금융기관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가능함을 기술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시, [나]의 사례와 같이 예금자 보험 제도에만 의존해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예금 수취 및 부실한 운용이 가능함을 기술
-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라]에서와 같이 정보량이 적은 예금보험공사는 '골라내기'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재무상태를 요구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게는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술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가]에서 예금자 보험 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 –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함을 기술 – 이로 인하여, 정보량이 많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술 2)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제시 – [나]에서 무분별한 예금 수취와 부실한 운용 등의 문제가 발생 3)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정보량이 적은 예금보험공사는 골라내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재무상태 정보를 요구하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는 차등 보험료를 적용	30

상	S	(1)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정보비대칭 존재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 (사례) 무분별한 예금 수취와 부실한 운용 → 해결방안: 예금보험공사의 골라내기, (구체적 해결방안) 재무상태 정보 요구, 보험료 차등 적용, 보장한도 축소 등 하나 이상 제시 위 사항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논리적 흐름이 우수한 경우
	A	위 (1)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논리적 흐름을 갖춘 경우
중	B	위 (1)의 사항 중 정보비대칭, 골라내기 등 주요 개념이 누락되었으나 적절한 논리적 흐름을 갖춘 경우 또는, 위 (1)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한 경우
	C	위 (1)의 사항 중 주요 개념이 누락되고 논리적 연결이 미숙한 경우
	D	위 (1)의 사항 중 주요 개념이 누락되고 전체적인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주요 개념의 파악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50자 이하를 적은 경우
	F	백지 답안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금자 보험 제도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가입자인 금융기관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므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예금자 보험 제도에만 의존하여 과도하게 예금을 수취하고 수취한 예금을 부실하게 운용하여 오히려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보를 덜 가진 예금보험공사가 골라내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들에게 재무상태 자료를 요구 또는 조사하거나 무분별하게 예금을 늘려 부실하게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에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98자)

문제. 03

출제의도

제시문 (가)와 (라)는 각각 갈퉁의 폭력과 평화의 개념, 그리고 요나스의 '책임윤리'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두 제시문은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평화와 공존 등의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학습하는 항목으로 윤리 교육을 통해 학습한 개념과 문제의식을, (나)와 (나)의 문학작품에 대한 비판적 읽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논술형 문제이다. '폭력'의 양상과 인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상황 등을 문학 작품을 통해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추론해 내도록 유도한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여러 자료에 대한 비판적 독서를 통해 독자 자신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필자의 관점이나 생각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글을 읽으면서 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떠올리며 읽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읽기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읽기 태도와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해설

(가)는 갈퉁의 '폭력'과 '평화'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이다. 우선은 제시문 (가)의 요지와 문제제기를 잘 파악하여 (나)와 (다)의 소설에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의 양상을 분석한다. (나)는 독일에서 어린 시절 화자가 만났던 베트남 가족과의 일화를 다룬 소설이고, (다)는 채식주의자인 '아내'가 세상의 편견에 부딪치는 과정에서 한 사회의 '은폐된 폭력'과 편견이 드러나는 내용의 소설이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갈퉁의 '폭력'과 '평화'의 개념을 이해하여 소설 속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그 이유, 소설에 나타나는 감추어진 폭력의 양상 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제시문 (라)의 요나스의 책임 윤리 관점에서 이 두 작품의 폭력에 대한 해결 방식을 적는 문제이다. 갈퉁의 구조적, 문화적 폭력 개념은 (나)의 소설에서는 '베트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생각과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다)의 소설에서는 채식주의자의 내면보다는 '다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억지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육식을 하는)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강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요나스의 '책임'의 개념이 지닌 윤리성을 이해하여 그것을 타자와의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행위로 만들 수 있는지를 서술해 보는 문제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나), (다)의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잘 서술한 경우(10점), 2. (가)를 통해 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잘 설명한 경우(10점), 3. 1, 2의 분석과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윤리적 책임'이 (나), (다)의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 잘 논술한 겨우(20점) 이 세 가지 경우에 맞추어서 평가하되, 각 항목별 최고점에서 답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부분 감점을 통해, A, B, C, D를 줄 수 있음(최고점은 S)	40

상	S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그 설명의 과정과 구성 또한 잘 갖춘 경우
	A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따르고 있지만 글 전 개의 논리적 순서나 구성 등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경우
중	B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글의 논리적 연결이 미숙하여 작품에 대한 독해에 잘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성취가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비교적 적절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었거나 작품의 독해 결과를 비교적 잘 서술한 한 경우
	C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이 부족하고 글 전개가 미숙한 경우
	D	세 가지 평가 기준 중 1개 정도만 달성하고 있고 정보 활용,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하	E	세 가지 달성 기준이 모두 부족한 경우
	F	백지 답안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제시문 (나)와 (다)는 어린 시절 독일에서 만난 베트남인 가족과의 일화를 통해 베트남전에 관한 불편한 기억이 만드는 갈등, 그리고 채식주의자인 아내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갈등을 각각 다룬 소설이다. 우선, (나)의 경우 갈등은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인 가족 사이에서 베트남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불편한 기억 때문에 발생하거나,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양심과 태도의 차이 때문에 나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생긴다. (다)에서는 폭력을 암시하는 끔찍한 꿈으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의 다름을 '세상'이 '비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제시문 (가)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 드러나는 폭력은 그 동안 감추어져 있던 구조적 폭력이거나 문화적 폭력이다. 제시문 (라)에서 요나스는 윤리적 책임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나)와 (다)의 인물 간 갈등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을 둘러싼 책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의 문제나 채식주의자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편견은 모두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문화적, 구조적 폭력에 해당된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는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특정한 구조 속에 놓인 행위자(사람)가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가능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이런 갈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공백포함 684)

2024학년도 [인문계열 II]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임을 이해한다,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노력을 넘어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 국제법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맺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그 예임을 이해한다. 현대에는 국제 관계에 국가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한다.

문제해설

[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환경 문제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며,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는 국제 사회가 국제법과 국제 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의 예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이다. [라]는 비정부 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는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실천은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기술함. ▲ 지구 온난화 대신 기후 변화를 언급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5
	2.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국제 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명확히 요약함. ▲ 국제법 대신 국제적 공조 체제의 예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언급하는 경우에도 정답으로 처리	10
	3.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비정부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함.	8
	4. 제시문 [마]를 바탕으로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함.	7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2 또는 3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국제 사회는 국제법과 국제 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법의 예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현대에는 비정부기구(NGO),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소수 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손수건 사용하기 등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총 386자)

문제. 02

출제의도

어떠한 규범과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한다. 2000여 년 전에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부모의 잘못을 비호하는 효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춘추 전국시대 공자와 맹자가 제기한 효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동시에 오늘날에는 이런 효의 개념이 왜 적용될 수 없으며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문제해설

[가]에서는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고, 동시에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서 효와 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효라는 개념은 유가의 핵심 덕목이자 인에 이를 수 있는 근본임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는 개인의 인격 도야를 강조하는데, 특히 효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인 군자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효라는 개념은 인격 완성의 출발점이자, 인간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유교의 핵심적인 규범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에서는 현대사회구성원들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제도와 구조가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범죄자는 응당히 처벌을 받는 등 구성원 각자가 '응분의 몫'을 받고,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000여 년 전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부모의 잘못을 비호해야 한다는 관념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단점인 온정주의 폐단을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효라는 개념이 유가의 핵심 덕목이자 인에 이를 수 있는 근본임을 명확히 이해함.	7
	2.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효 개념이 확장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이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이해함.	7
	3.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공정한 사회제도와 개인의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함.	7
	4.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공정한 원칙(혹은 법 앞의 평등)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공자와 맹자의 주장은 현대적 정의를 벗어나는 행위임을 이해함.	9

상	S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중 3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중 3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나,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중 2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중 2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설명의 과정과 구성 그리고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인은 사랑의 정신이자,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효와 제는 인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사회질서가 확립된다고 보기에 공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효는 인격 완성의 근본이자,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와 대동사회에 이르는 근본이다. 따라서 공자와 맹자는 효를 어떠한 규범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조와 제도가 정의로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담보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행위에 따르는 응분의 몫을 받을 때,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된다. 부모 잘못을 비호하는 행위가 효 윤리에 부합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정의를 벗어난 행위임은 명백하다. (398자)

문제. 03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와 각각의 정의관(正義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해설

제시문 [가]는 자유주의(liberalism)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외부의 그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인간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합리적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에서의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이 주장은 근대 칸트의 인식론 및 실천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관점은 정치철학적 논쟁의 본산인 미국에서 롤즈(J. Rawles)와 노직(Nozick)에 의해 수용되었다.

제시문 [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정치철학을 대표하는 매킨타이어(A. McIntyre)의 주장으로서 개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얽혀 있다. 이를 연고적 자아(緣故的 自我)라고 부른다. 따라서 개인은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책무 및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제시문 [다]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도 급진적인 입장으로서 자유지상주의의(libertarian) 관점을 대표하는 노직의 소유권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노직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정당한 사유라면 신성불가침으로 인정되며 소유물의 활용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자인 왈처(M. Walzer)의 분배 문제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분배는 사회적 가치이기에 사회는 곧 분배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이기에 공동체 공동의 관점에서 이해해야한다.

제시문 [마]는 프랑스 문학가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소설의 배경은 1870년 프랑스가 독일에 패배한 후 반독(反獨) 분위기가 팽배하고 프랑스인의 자존심이 극도로 추락한 상황이다. 이때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을 위한 간첩행위라고 낙인 찍혀 배신자로 몰리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졸라는 드레퓌스는 유대인으로서 마녀사냥의 희생자이며 검찰의 수사 또한 공정하지 않았음을 폭로한다. 이를 통해 졸라는 국가, 사회적 상황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과감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졸라는 자신이 속한 협소한 국가라는 테두리를 넘어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조각으로 형상화한 로댕의 작품인 『칼레의 시민』에 대한 예술 비평 글의 일부이다. 백년전쟁(1337~1453)에서 영국에 패배한 프랑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프랑스 북부의 도시인 칼레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몰살의 위기에 있었다. 이에 칼레의 시민 전체를 구하기 위해 높은 신분에 있었던 시민 6인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받아들였다. 이 역사적 이야기는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개인을 희생하는 공동체주의 정의, 즉 공공선(公共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가기준

하위 문항	평가 기준	배점
	1.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함	10
	2. 제시문 [다]의 주장을 [가]의 관점으로 설명함.	5
	3. 제시문 [라]의 주장을 [나]의 관점으로 설명함.	5
	4. 제시문 [가]와 [나]를 기반으로 [마]에 들어 있는 정의관을 추론하여 기술함.	10
	5. 제시문 [가]와 [나]를 기반으로 [바]에 들어 있는 정의관을 추론하여 기술함.	10

상	S	1, 2, 3, 4, 5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A	1, 2, 3, 4, 5를 모두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중	B	1, 2, 3, 4, 5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C	1, 2, 3, 4, 5 중 4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D	1, 2, 3, 4, 5 중 3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우수함.
하	E	1, 2, 3, 4, 5 중 2개만 올바르게 제시하였으며, 서술의 논리 전개와 문장력이 다소 부족함.
	F	1, 2, 3, 4, 5 중 어느 것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함.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인 도덕적인 판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이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얽혀 있음(연고적 자아)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신성불가침으로 존중되어야만 하며 아울러 그 소유물의 활용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시문 【나】의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시문 【라】에서는 분배의 문제란 철저히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분배는 각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과 상황에 의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은 각각 정의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데, 제시문 【마】의 역사적 사건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준다. 독일에 패전한 프랑스가 그 희생양으로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를 반역죄로 유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인류의 보편적 진리의 이념으로 드레퓌스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바】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주고 있다. 백년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하자 프랑스의 칼레 시와 시민 전체가 위험에 처하자 높은 지위에 있는 6명이 전체 시민을 대표하여 대신 처형을 받음으로써 전체 시민의 생명을 구하였다. (총 665자)

논술전형 가이드북

DONGGUK UNIVERSITY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자연계열

085 2026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088 2025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090 2024학년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자연계열]
094 2026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104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108 2024학년도 논술고사 문제해설 [자연계열]



2026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90분이었습니다.
- 수리논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 α, β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 한다. 이때 직선 l을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 α, β를 각각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이면각의 변 l위의 한 점 O를 지나고 직선 l에 수직인 두 반직선 OA, OB를 두 반평면 α, β 위에 각각 그을 때, $\angle \mathrm{AOB}$의 크기는 점 O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이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고등학교 기하』

[나] 공간에서 직선 l과 평면 α 위의 모든 직선이 수직일 때, 직선 l과 평면 α는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기호로 $l \perp \alpha$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직선 l을 평면 α의 수선이라 하고, 직선 l과 평면 α가 만나는 점 O를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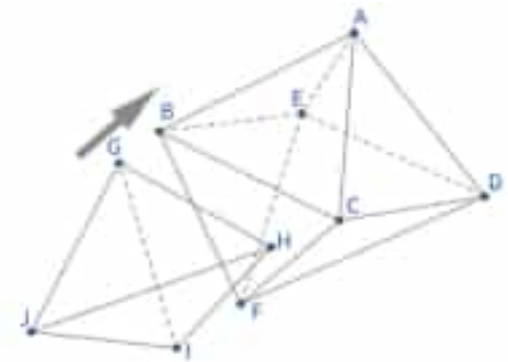
-『고등학교 기하』

[다] 평면 α와 한 점 O에서 만나는 직선 l이 있다. 이때 직선 l이 평면 α 위의 점 O를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 m, n과 서로 수직이면 직선 l이 평면 α에 수직이다.

-『고등학교 기하』

문제 1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다음 그림의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정팔면체에서 평면 ABC와 평면 FBC가 이루는 이면각 중 둔각의 크기를 α라고 할 때 $\cos\alpha$의 값을 구하시오.
(2) 정팔면체에서 평면 ABC와 평면 AED가 이루는 이면각 중 예각의 크기를 β라고 할 때 $\cos\beta$의 값을 구하시오.
(3) 정사면체에서 평면 JGH와 평면 IGH가 이루는 이면각 중 예각의 크기를 γ라고 할 때 $\cos\gamma$의 값을 구하시오.
(4) 점 G와 점 B, 점 H와 점 C, 점 I와 점 F를 일치시켰을 때, 평면 ABC와 평면 JGH가 일치함을 이면각을 이용하여 보이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첫째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고 하면

$$a_n = a+(n-1)d,$$

$$S_n = \frac{n\{2a+(n-1)d\}}{2} \text{ (단, } n=1, 2, 3, \cdots)$$

- 『고등학교 수학Ⅰ』

[나] 두 수열 $\{a_n\}$, $\{b_n\}$에 대하여

① $\sum_{k=1}^{n}(a_k+b_k)=\sum_{k=1}^{n}a_k+\sum_{k=1}^{n}b_k$

② $\sum_{k=1}^{n}(a_k-b_k)=\sum_{k=1}^{n}a_k-\sum_{k=1}^{n}b_k$

③ $\sum_{k=1}^{n}ca_k=c\sum_{k=1}^{n}a_k$ (단, c는 상수)

④ $\sum_{k=1}^{n}c=cn$ (단, c는 상수)

- 『고등학교 수학Ⅰ』

[다] 두 수열 $\{a_n\}$, $\{b_n\}$이 $\lim_{n\to\infty}a_n=L$, $\lim_{n\to\infty}b_n=M$ (L, M은 실수)일 때

① $\lim_{n\to\infty}ca_n=cL$ (단, c는 상수)

② $\lim_{n\to\infty}(a_n+b_n)=L+M$

③ $\lim_{n\to\infty}(a_n-b_n)=L-M$

④ $\lim_{n\to\infty}a_nb_n=LM$

⑤ $\lim_{n\to\infty}\frac{a_n}{b_n}=\frac{L}{M}$ (단, $b_n\neq 0$, $M\neq 0$)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2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수열 $\{a_n\}$, $\{b_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

① $\lim_{n\to\infty}\frac{a_n-b_n}{n}=2$, $\sum_{n=1}^{10}(a_n-b_n)=180$

② $\sum_{k=1}^{n}(a_k+b_k)$는 $n=7$일 때만 최솟값을 갖는다.

③ $\sum_{n=1}^{4}|b_n|=88$

(1) 수열 $\{a_n\}$과 $\{b_n\}$의 일반항을 각각 구하시오.

(2) 수열 $\{c_n\}$이 $c_n=|a_n|-|b_n|$일 때, c_n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3) $S_n=\sum_{k=1}^{n}c_k$일 때, $\lim_{n\to\infty}\frac{S_n}{n^2}$을 구하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함수 $f(x)$가 $x=a$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f(a)=f'(a)(x-a)$$

이다.

-『고등학교 수학II』

[나] 곡선 $y=f(x)$ 위의 점 $\mathrm{P}(a,\ f(a))$에 대하여 $x=a$의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때, 점 P를 곡선 $y=f(x)$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미적분』

[다]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f''(a)=0$이고 $x=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바뀌면, 점 $(a,\ f(a))$는 곡선 $y=f(x)$의 변곡점이다.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존재하는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f(x)$의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댓값 M을 다음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단, $f(x)$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

<조건>

곡선 $y=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 l이 점 P가 아닌 곡선 위의 점 Q에서 만나고, 점 Q에서의 접선 m이 직선 l과 수직이다.

(1) 곡선 $y=f(x)$를 x축 및 y축의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하여 항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곡선 $y=g(x)$를 구하시오.
(2) 곡선 $y=g(x)$ 위의 점 $\mathrm{P}_0(t,\ g(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3) (2)에서 구한 접선과 곡선 $y=g(x)$가 만나는 점 $\mathrm{Q}_0(\neq \mathrm{P}_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4) M의 값을 구하시오.

2025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90분이었습니다.
- 수리논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출제오류로 인해 수리논술 문제 2번은 비공개하며, 해당 문항은 전원 만점 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x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이차함수 $y=a(x-p)^2+q\ (a\neq 0)$의 최댓값과 최솟값은
$a>0$이면 $x=p$에서 최솟값 q를 갖고, 최댓값은 없다.
$a<0$이면 $x=p$에서 최댓값 q를 갖고, 최솟값은 없다.

-『고등학교 수학』

[나] $a,\ b,\ c$가 실수일 때, 방정식 $ax^2+bx+c=0\ (a\neq 0)$의 두 근을 $\alpha,\ \beta$라고 하면

$$\alpha+\beta=-\frac{b}{a},\quad \alpha\beta=\frac{c}{a}$$

-『고등학교 수학』

[다] 영벡터가 아닌 두 평면벡터 $\vec{a}=(a_1, a_2)$와 $\vec{b}=(b_1, b_2)$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라고 할 때,

$$\cos\theta=\frac{\vec{a}\cdot\vec{b}}{|\vec{a}|\,|\vec{b}|}=\frac{a_1b_1+a_2b_2}{\sqrt{a_1^2+a_2^2}\,\sqrt{b_1^2+b_2^2}}$$

-『고등학교 기하』

문제 1

좌표평면 위의 점 $\mathrm{P}(0,\ 1)$가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 $y=x^2+\left(\frac{1}{3}-2k\right)x+k$와 직선 $y=x$의 두 교점을 $\mathrm{Q}_1,\ \mathrm{Q}_2$라고 하자. 점 P와 점 Q_1, 점 P와 점 Q_2를 지나는 직선을 각각 $\ell_1,\ \ell_2$라고 하자. 두 직선 $\ell_1,\ \ell_2$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θ라고 할 때, 제시문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단, $0\leq\theta\leq\frac{\pi}{2}$)

(1) $\cos\theta$를 실수 k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2) θ가 최솟값을 가질 때의 실수 k의 값과 그때의 θ를 구하시오.
(3) θ가 최솟값을 가질 때의 점 $\mathrm{Q}_1, \mathrm{Q}_2$의 좌표를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x) \geq 0$일 때, 정적분

$$\int_a^b f(x)dx$$

는 곡선 $y=f(x)$와 x축 및 두 직선 $x=a$, $x=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

-『고등학교 수학II』

[나] 함수 $y=x^r$ (r은 실수)의 부정적분은

1) $r \neq -1$일 때, $\int x^r dx = \frac{1}{r+1}x^{r+1}+C$

2) $r=-1$일 때, $\int x^{-1}dx = \ln|x|+C$

-『고등학교 미적분』

[다]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int_a^b f(x)dx = \lim_{n\to\infty}\sum_{k=1}^{n} f(x_k)\Delta x$ (단, $\Delta x = \frac{b-a}{n}$, $x_k = a+k\Delta x$)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3

실수 α, β는 $\frac{\alpha\beta}{\alpha-\beta}=20n$, $\alpha+\beta=9n$, $\alpha>\beta>0$을 만족한다. 두 곡선 $y=(x-\alpha)(x-\beta)$와 $y=\frac{3\alpha\beta(\alpha-\beta)}{5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n이라 하자. (단, n은 자연수)

(1)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를 n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2) 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를 A_n이라 할 때, A_n을 구하시오.

(3) S_n을 구하시오.

(4) $\lim_{n\to\infty}\frac{1}{n^7}\sum_{k=1}^{n} S_k A_{2k}$를 구하시오.

<27줄 이내> [40점]

2024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



확인해 주세요!

- 시험시간은 총 90분이었습니다.
- 수리논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실제 시험에는 문제지, 답안지(원고지), 연습지(빈 종이) 1매가 제공되었습니다.
- 답안 작성은 검정색 볼펜으로만 가능합니다. 답안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 초점 $\mathrm{F}(c,\ 0), \mathrm{F}'(-c,\ 0)$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은

$$\frac{x^2}{a^2}+\frac{y^2}{b^2}=1\ (\text{단, } a>c>0,\ b^2=a^2-c^2)$$

이다. 타원 $\frac{x^2}{a^2}+\frac{y^2}{b^2}=1$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타원의 방정식은

$$\frac{(x-m)^2}{a^2}+\frac{(y-n)^2}{b^2}=1$$

이다. 이때 타원의 초점, 꼭짓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타원의 방정식 $\frac{x^2}{a^2}+\frac{y^2}{b^2}=1$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	타원의 방정식 $\frac{(x-m)^2}{a^2}+\frac{(y-n)^2}{b^2}=1$
$(c,\ 0),\ (-c,\ 0)$	초점의 좌표	$(c+m,\ n),\ (-c+m,\ n)$
$(a,\ 0),\ (-a,\ 0),$ $(0,\ b),\ (0,\ -b)$	꼭짓점의 좌표	$(a+m,\ n),\ (-a+m,\ n),$ $(m,\ b+n),\ (m,\ -b+n)$

- 『고등학교 기하』

[나] 초점이 $\mathrm{F}(p,\ 0)$이고 준선이 $x=-p$인 포물선 $y^2=4px$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n)^2=4p(x-m)$$

이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는 $(p+m,\ n)$, 준선의 방정식은 $x=-p+m$이다.

- 『고등학교 기하』

[다] 두 초점 $\mathrm{F}(\mathrm{c},\ 0),\ \mathrm{F}'(-\mathrm{c},\ 0)$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2a$인 쌍곡선의 방정식은

$$\frac{x^2}{a^2}-\frac{y^2}{b^2}=1\ (\text{단},\ c>a>0,\ b^2=c^2-a^2)$$

이다. 쌍곡선 $\frac{x^2}{a^2}-\frac{y^2}{b^2}=1$ 을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frac{(x-m)^2}{a^2}-\frac{(y-n)^2}{b^2}=1$$

이다. 이때 중심, 꼭짓점, 초점, 점근선은 각각 다음과 같다.

쌍곡선의 방정식 $\frac{x^2}{a^2}-\frac{y^2}{b^2}=1$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	쌍곡선의 방정식 $\frac{(x-m)^2}{a^2}-\frac{(y-n)^2}{b^2}=1$
$(0,\ 0)$	중심의 좌표	$(m,\ n)$
$(a,\ 0),\ (-a,\ 0)$	꼭짓점의 좌표	$(a+m,\ n),\ (-a+m,\ n)$
$(c,\ 0),\ (-c,\ 0)$	초점의 좌표	$(c+m,\ n),\ (-c+m,\ n)$
$y=\pm\frac{b}{a}x$	점근선의 방정식	$y-n=\pm\frac{b}{a}(x-m)$

- 『고등학교 기하』

문제 1

다음 방정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k는 실수이다.)

$$x^2+y^2=(kx+1)^2$$

(1) $k=0$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각각 구하시오.

(2) $k=\frac{1}{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타원의 방정식이다. 이 타원의 초점의 좌표와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3) $k=1$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이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4) $k=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이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와 점근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코사인함수와 탄젠트함수의 덧셈정리는 각각 다음과 같다.

$\cos(\alpha+\beta)=\cos\alpha\ \cos\beta-\sin\alpha\ \sin\beta$

$\tan(\alpha+\beta)=\dfrac{\tan\alpha+\tan\beta}{1-\tan\alpha\tan\beta}$

- 『고등학교 미적분』

[나] 미분가능한 함수 $f(x)$의 역함수 $f^{-1}(x)$가 존재하고 미분가능할 때,

$y=f^{-1}(x)$의 도함수는 $(f^{-1})'(x)=\dfrac{1}{f'(f^{-1}(x))}$

- 『고등학교 미적분』

[다]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미분가능한 함수 $x=g(t)$의 도함수 $g'(t)$가 $a=g(\alpha),\ b=g(\beta)$일 때 $\alpha,\ \beta$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면

$\displaystyle\int_a^b f(x)dx=\int_\alpha^\beta f(g(t))g'(t)dt$

-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2

함수 $f(x)=\sin x+4x+1$의 역함수 $f^{-1}(x)$가 존재하고 미분가능하다.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을 l_1, 곡선 $y=f^{-1}(x)$ 위의 점 $(f(t),\ t)$에서의 접선을 l_2라 하고, l_1과 l_2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θ라 할 때, $g(t)=\tan\theta$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g\left(\dfrac{\pi}{2}\right)$의 값을 구하시오.

(2) 함수 $g(t)$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3) $\displaystyle\int_{f(0)}^{f(2\pi)} g(f^{-1}(x))dx$의 값을 구하시오.

<15줄 이내>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f(t),\ y=g(t)$일 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frac{dx}{dt},\ \frac{dy}{dt})$, 즉 $(f'(t),\ g'(t))$이고, 속도의 크기 또는 속력은 $\sqrt{\{f'(t)\}^2+\{g'(t)\}^2}$ 이다.

-『고등학교 미적분』

[나] 함수 $f(x)$가 닫힌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댓값과 최솟값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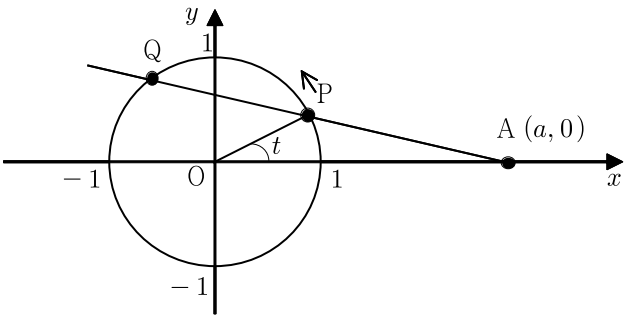
-『고등학교 수학 II』

[다] t의 함수 s가 방정식 $f(t,\ s)=0$의 꼴로 주어졌을 때, 이를 s의 t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고 한다. 음함수 표현 $f(t,\ s)=0$에서 s를 t의 함수로 보고, 양변의 각 항을 t에 대하여 미분하여 $\frac{ds}{dt}$를 구할 수 있다.

-『고등학교 미적분』

문제 3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x축 위의 점 A $(a,\ 0)$가 있다. (단, $2 \le a \le 3$) 점 P는 점 $(1,\ 0)$에서 출발하여, 시각 t가 $0 \le t < \frac{\pi}{3}$ 일 때 $\angle \mathrm{POA}=t$를 만족하도록 원 위를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인다. 점 A와 P를 잇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 하자.



시각 $t=t_0$일 때, 점 Q의 위치는 $(0,\ 1)$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t=t_0$일 때, 점 Q의 속력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2) $t=t_0$일 때, 점 Q의 속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과 그 때의 점 Q의 속력을 구하시오.

<27줄 이내> [40점]

2026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면을 포함하는 평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의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해설

(1), (2) 정팔면체의 두 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3) 정사면체의 두 면 사이의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4) 정팔면체의 한 면과 정사면체의 한 면을 일치시켰을 때 그 면의 옆면들이 한 평면이 됨을 이면각을 이용하여 보일 수 있다.

평가기준

[1단계] (1)의 답을 구한다. : $\cos\alpha=-\frac{1}{3}$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선분 MA과 선분 BC가 수직이고, 선분 MF도 선분 BC에 수직이다.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FBC가 이루는 이면각 중 하나는 $\angle AMF$와 같다. 한편, 점 A의 평면 BCDE에 내린 수선의 발 N은 정사각형 BCDE의 대각선의 교점이다. 삼각형 ANM은 직각삼각형이고 선분의 AM의 길이는$\frac{\sqrt{3}}{2}$, 선분 MN의 길이는 $\frac{1}{2}$이다. 따라서 $\cos(\angle AMN)=\frac{1}{\sqrt{3}}$ 이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cos(\angle AMF)=\cos(2\angle AMN)=2\cos^2(\angle AMN)-1=-\frac{1}{3}$$

이고, $\angle AMF$는 둔각이므로 $\cos\alpha=-\frac{1}{3}$ 이다.

(다른 풀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frac{\sqrt{3}}{4}$이고, 삼각형 NBC의 넓이는 $\frac{1}{4}$ 이다. 삼각형 ABC를 평면 BCDE에 내린 정사영은 삼각형 NBC이므로, 평면 ABC와 평면 BCDE가 이루는 $\angle AMN$의 코사인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인

$\cos(\angle AMN)=\frac{(\Delta NBC\text{의 넓이})}{(\Delta ABC\text{의 넓이})}=\frac{1}{\sqrt{3}}$와 같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cos(\angle AMF)=\cos(2\angle AMN)=2\cos^2(\angle AMN)-1=-\frac{1}{3}$$

이고, $\angle AMF$는 둔각이므로 $\cos\alpha=-\frac{1}{3}$이다.

[2단계] (2)의 답을 구한다. : $\cos\beta=\frac{1}{3}$

선분 ED의 중점을 Q라고 하자. 사각형 MAQF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으로 선분 MA와 선분 FQ, 선분 QA와 선분 FM은 각각 평행이다. 선분 BC와 선분 ED도 평행인 선분이다. 점 A를 지나고 이 선분들과 평행인 직선을 l이라 하면 직선 l은 평면 ABC와 평면 AED의 교선이다. 교선 l과 선분 AM이 이루는 각은 선분 ED와 선분 QF가 이루는 각과 같으므로 수직이다. 마찬가지로 교선 l과 선분 AQ가 이루는 각도 수직이다. 따라서 두 평면의 이면각 중 하나는 $\angle MAQ$이다. $|MA|=|AQ|=\frac{\sqrt{3}}{2}$, $|MQ|=1$이므로, 삼각형 MAQ에서 코사인법칙을 이용하면 $\cos(\angle MAQ)=\frac{\frac{3}{4}+\frac{3}{4}-1}{2\frac{\sqrt{3}}{2}\frac{\sqrt{3}}{2}}=\frac{1}{3}$이다. $\angle MAQ$는 예각이므로 $\cos\beta=\frac{1}{3}$이다.

[3단계] (3)의 답을 구한다. : $\cos\gamma=\frac{1}{3}$

선분 GH의 중점을 O, 삼각형 IGH의 무게중심을 P라고 하자. 선분 OJ, 선분 OI는 각각 선분 GH에 수직이므로 평면 JGH와 평면 IGH의 이면각 중 하나는 $\angle JOI$, 즉 $\angle JOP$이다. 점 J의 삼각형 IGH에 내린 수선의 발이 점 P이므로

$$\cos(\angle JOP)=\frac{|PO|}{|JO|}=\frac{\frac{1}{3}\frac{\sqrt{3}}{2}}{\frac{\sqrt{3}}{2}}=\frac{1}{3}$$

이다. 여기서,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PO|=\frac{1}{3}|IO|$임을 사용하였다. $\angle JOP$는 예각이므로 $\cos\gamma=\frac{1}{3}$이다.

(다른 풀이) 삼각형 JGH의 넓이는 $\frac{\sqrt{3}}{4}$ 이고, 삼각형 PGH의 넓이는 $\frac{\sqrt{3}}{12}$ 이다. 삼각형 JGH를 평면 IGH에 내린 정사영은 삼각형 PGH이므로, $\cos(\angle JOP)=\frac{(\Delta PGH\text{의 넓이})}{(\Delta JGH\text{의 넓이})}=\frac{1}{3}$이다. $\angle JOP$는 예각이므로 $\cos\gamma=\frac{1}{3}$이다.

[4단계] (4)를 보인다. : $\alpha+\gamma=\pi$를 이용할 수 있다.

점 G와 점 B, 점 H와 점 C, 점 I와 점 F를 일치시키면, 선분 GH의 중점 O와 선분 BC의 중점 M도 일치한다. 평면 JGH와 평면 ABC의 이면각의 크기는 평면 JGH와 평면 IGH의 이면각 중 예각의 크기 γ와 평면 FBC와 평면 ABC의 이면각 중 둔각의 크기 α의 합 $\alpha+\gamma$와 같다. $\cos(\pi-\alpha)=-\cos\alpha=\frac{1}{3}=\cos\gamma$ 이고 $0<\pi-\alpha,\ \gamma<\frac{\pi}{2}$ 이므로 $\alpha+\gamma=\pi$이다.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JGH는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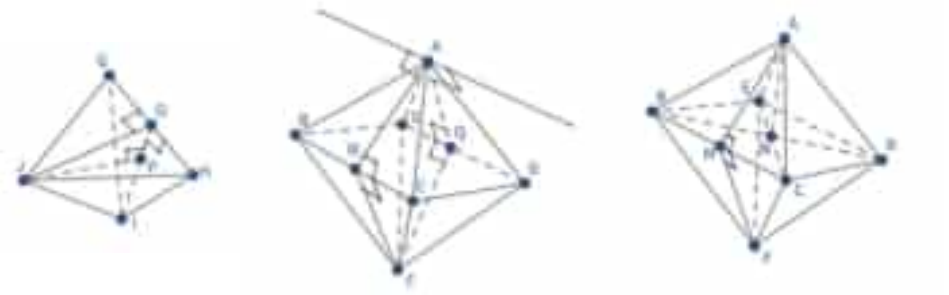
(다른 풀이) $\cos\alpha=-\frac{1}{3},\ \cos\gamma=\frac{1}{3}$ 과 $0<\gamma<\frac{\pi}{2}<\alpha<\pi$로부터,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sin(\alpha+\gamma)=\sin\alpha\cos\gamma+\cos\alpha\sin\gamma=\frac{2\sqrt{2}}{3}\frac{1}{3}-\frac{1}{3}\frac{2\sqrt{2}}{3}=0$$

이고 $\frac{\pi}{2}<\alpha+\gamma<\frac{3\pi}{2}$ 이므로 $\alpha+\gamma=\pi$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JGH는 일치한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 경우	S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작성하였으나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A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 경우	B
	[1단계]부터 [3단계] 중에서 어느 두 단계만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 경우	C
	[1단계]부터 [3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만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 경우	D
하	[1단계]부터 [3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부분적으로 풀이 과정을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F

예시답안



(1)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선분 MA과 선분 BC가 수직이고, 선분 MF도 선분 BC에 수직이다.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FBC가 이루는 이면각 중 하나는 $\angle AMF$와 같다. 한편, 점 A의 평면 BCDE에 내린 수선의 발 N은 정사각형 BCDE의 대각선의 교점이다. 삼각형 ANM은 직각삼각형이고 선분의 MA의 길이는 $\frac{\sqrt{3}}{2}$, 선분 MN의 길이는 $\frac{1}{2}$이다. 따라서 $\cos(\angle AMN)=\frac{1}{\sqrt{3}}$ 이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cos(\angle AMF)=\cos(2\angle AMN)=2\cos^2(\angle AMN)-1=-\frac{1}{3}$$

이고, $\angle AMF$는 둔각이므로 $\cos\alpha=-\frac{1}{3}$이다.

(다른 풀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frac{\sqrt{3}}{4}$이고, 삼각형 NBC의 넓이는 $\frac{1}{4}$이다. 삼각형 ABC를 평면 BCDE에 내린 정사영은 삼각형 NBC이므로, 평면 ABC와 평면 BCDE가 이루는 $\angle AMN$의 코사인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인 $\cos(\angle AMN)=\frac{(\Delta NBC\text{의 넓이})}{(\Delta ABC\text{의 넓이})}=\frac{1}{\sqrt{3}}$와 같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cos(\angle AMF)=\cos(2\angle AMN)=2\cos^2(\angle AMN)-1=-\frac{1}{3}$$

이고, $\angle AMF$는 둔각이므로 $\cos\alpha=-\frac{1}{3}$이다.

(2) 선분 ED의 중점을 Q라고 하자. 사각형 MAQF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으로 선분 MA와 선분 QF, 선분 QA와 선분 FM은 각각 평행이다. 선분 BC와 선분 ED도 평행인 선분이다. 점 A를 지나고 이 선분들과 평행인 직선을 l이라 하면 직선 l은 평면 ABC와 평면 AED의 교선이다. 교선 l과 선분 AM이 이루는 각은 선분 ED와 선분 QF가 이루는 각과 같으므로 수직이다. 마찬가지로 교선 l과 선분 AQ가 이루는 각도 수직이다. 따라서 두 평면의 이면각 중 하나는 $\angle MAQ$이다. $|MA|=|AQ|=\frac{\sqrt{3}}{2}$, $|MQ|=1$이므로, 삼각형 MAQ에서 코사인법칙을 이용하면 $\cos(\angle MAQ)=\frac{\frac{3}{4}+\frac{3}{4}-1}{2\frac{\sqrt{3}}{2}\frac{\sqrt{3}}{2}}=\frac{1}{3}$ 이다. $\angle MAQ$는 예각이므로 $\cos\beta=\frac{1}{3}$ 이다.

(3) 선분 GH의 중점을 O, 삼각형 IGH의 무게중심을 P라고 하자. 선분 OJ, 선분 OI는 각각 선분 GH에 수직이므로 평면 JGH와 평면 IGH의 이면각 중 하나는 $\angle JOI$, 즉 $\angle JOP$이다. 점 J의 삼각형 IGH에 내린 수선의 발이 점 P이므로

$$\cos(\angle JOP)=\frac{|PO|}{|JO|}=\frac{\frac{1}{3}\frac{\sqrt{3}}{2}}{\frac{\sqrt{3}}{2}}=\frac{1}{3}$$

이다. 여기서,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 $|PO|=\frac{1}{3}|IO|$임을 사용하였다. $\angle JOP$는 예각이므로 $\cos\gamma=\frac{1}{3}$ 이다.

(다른 풀이) 삼각형 JGH의 넓이는 $\frac{\sqrt{3}}{4}$ 이고, 삼각형 PGH의 넓이는 $\frac{\sqrt{3}}{12}$ 이다. 삼각형 JGH를 평면 IGH에 내린 정사영은 삼각형 PGH이므로, $\cos(\angle JOP)=\frac{(\Delta PGH\text{의 넓이})}{(\Delta JGH\text{의 넓이})}=\frac{1}{3}$이다. $\angle JOP$는 예각이므로 $\cos\gamma=\frac{1}{3}$ 이다.

(4) 점 G와 점 B, 점 H와 점 C, 점 I와 점 F를 일치시키면, 선분 GH의 중점 O와 선분 BC의 중점 M도 일치한다. 평면 JGH와 평면 ABC의 이면각의 크기는 평면 JGH와 평면 IGH의 이면각 중 예각의 크기 γ와 평면 FBC와 평면 ABC의 이면각 중 둔각의 크기 α의 합 $\alpha+\gamma$와 같다. $\cos(\pi-\alpha)=-\cos\alpha=\frac{1}{3}=\cos\gamma$이고 $0<\pi-\alpha,\ \gamma<\frac{\pi}{2}$이므로 $\alpha+\gamma=\pi$이다.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JGH는 일치한다.

(다른 풀이) $\cos\alpha=-\frac{1}{3}$, $\cos\gamma=\frac{1}{3}$ 과 $0<\gamma<\frac{\pi}{2}<\alpha<\pi$ 로부터, 다음과 같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면

$$\sin(\alpha+\gamma)=\sin\alpha\cos\gamma+\cos\alpha\sin\gamma=\frac{2\sqrt{2}}{3}\frac{1}{3}-\frac{1}{3}\frac{2\sqrt{2}}{3}=0$$

이고 $\frac{\pi}{2}<\alpha+\gamma<\frac{3\pi}{2}$ 이므로 $\alpha+\gamma=\pi$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평면 ABC와 평면 JGH는 일치한다.

문제. 02

출제의도

등차수열의 개념과 미적분의 극한의 개념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대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조건 해석 능력을 평가한다. 극한 개념과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여 첫째항과 공차에 대한 관계를 찾고 논리적 대수 능력과 자연수 조건을 활용한 공차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열의 일반항과 합을 이용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해설

(1) 수열의 극한과 수열의 합의 관계를 이용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
(2)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 최솟값을 구한다.
(3)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평가기준

[1단계] 수열 $\{a_n\}$과 $\{b_n\}$의 자연수 공차를 각각 p와 q라 하면, 조건 ①로부터

$$2=\lim_{n\to\infty}\frac{a_n-b_n}{n}=p-q,\quad 180=\sum_{n=1}^{10}(a_n-b_n)=10(a_1-b_1)+45(p-q)$$

이다. 따라서 $a_1-b_1=9,\ p-q=2$이다. 이로부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a_1+(n-1)p=b_1+9+(n-1)(q+2)=b_n+2n+7$$

을 만족한다.

[2단계] 조건 ②로부터 $a_n+b_n<0\ (n\le 7)$과 $a_n+b_n>0\ (n\ge 8)$을 얻는다. 따라서 $2b_n+2n+7=a_n+b_n<0\ (n\le 7)$이며 $b_n<0\ (n\le 7)$이다. 이를 이용하여 조건 ③으로부터 $\sum_{n=1}^{4}|b_n|=-\sum_{n=1}^{4}b_n=-(4b_1+6q)=88$,

즉 $2b_1=-3q-44$ 또는 $b_1=-\frac{3}{2}q-22$ 를 얻는다.

[3단계] 구해진 결과 $a_1=b_1+9,\ p=q+2,\ a_7+b_7<0,\ a_8+b_8>0$을 이용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0>a_7+b_7=(a_1+b_1)+6(p+q)=2b_1+9+6(2q+2)=-3q-35+12q+12=9q-23$$
$$0<a_8+b_8=(a_1+b_1)+7(p+q)=2b_1+9+7(2q+2)=-3q-35+14q+14=11q-21$$

따라서 $1<\frac{21}{11}<q<\frac{23}{9}<3$을 만족하는 자연수 공차 q는 2이다. 공차 $q=2$를 다음 결과에 대입하면

$$\begin{cases} p=q+2, \\ b_1=-\frac{3}{2}q-22, \\ a_1=b_1+9, \end{cases}$$

공차 $p=4$, 첫째항 $b_1=-25,\ a_1=-16$이다.

그러므로 일반항 $a_n=a_1+(n-1)p=4n-20,\ b_n=b_1+(n-1)q=2n-27$이다.

[4단계] (1)의 결과를 이용하면 수열 $\{c_n\}$의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_n=|a_n|-|b_n|=|4n-20|-|2n-27|=\begin{cases} -2n-7, & (n\le 5) \\ 6n-47, & (6\le n\le 13) \\ 2n+7, & (n\ge 14) \end{cases}$$

그러므로 c_n이 최소가 되는 항은 $n=5$이며 최솟값은 $c_5=-17$이다.

[5단계] (2)의 결과로부터 $n\ge 14$에 대하여 S_n은 다음을 만족한다.

$$\begin{aligned} S_n&=\sum_{k=1}^{n}c_k=\sum_{k=1}^{13}c_k+\sum_{k=14}^{n}c_k \\ &=\sum_{k=1}^{13}c_k+\sum_{k=14}^{n}(2k+7) \\ &=\sum_{k=1}^{13}c_k+2\frac{n(n+1)}{2}+7n-\sum_{k=1}^{13}(2k+7) \end{aligned}$$

그러므로 $\lim_{n\to\infty}\frac{S_n}{n^2}=1$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고 모든 소문항의 답을 정확하게 얻은 경우	S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작성하고 모든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A
중	[1단계]부터 [5단계] 중 네 단계를 작성하고 3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B
	[1단계]부터 [5단계] 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2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C
	[1단계]부터 [5단계] 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1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D
하	[1단계]부터 [5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F

예시답안

(1) 수열 $\{a_n\}$과 $\{b_n\}$의 공차를 각각 p와 q라 하면, 조건 ①로부터

$$2=\lim_{n\to\infty}\frac{a_n-b_n}{n}=p-q,\quad 180=\sum_{n=1}^{10}(a_n-b_n)=10(a_1-b_1)+45(p-q)$$

이다. 따라서 $a_1-b_1=9, p-q=2$이다. 이로부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_n=a_1+(n-1)p=b_1+9+(n-1)(q+2)=b_n+2n+7>b_n$$

이며 $a_n>b_n$을 만족한다.

조건 ②로부터 $a_n+b_n<0\ (n\le 7)$과 $a_n+b_n>0\ (n\ge 8)$을 얻는다. 그러므로 $2b_n<a_n+b_n<0\ (n\le 7)$이며 $b_n<0\ (n\le 7)$이다.

이를 이용하여 조건 ③으로부터 $\sum_{n=1}^{4}|b_n|=-\sum_{n=1}^{4}b_n=-(4b_1+6q)=88$, 즉 $2b_1=-3q-44$ 또는 $b_1=-\frac{3}{2}q-22$를 얻는다. 구해진 결과 $a_1=b_1+9,\ p=q+2,\ a_7+b_7<0,\ a_8+b_8>0$을 이용하여 다음을 얻을 수 있다.

$$0>a_7+b_7=(a_1+b_1)+6(p+q)=2b_1+9+6(2q+2)=-3q-35+12q+12=9q-23$$
$$0<a_8+b_8=(a_1+b_1)+7(p+q)=2b_1+9+7(2q+2)=-3q-35+14q+14=11q-21$$

따라서 $1<\frac{21}{11}<q<\frac{23}{9}<3$을 만족하는 자연수 공차 q는 2이다. 공차 $q=2$를 다음 결과에 대입하면

$$\begin{cases}p=q+2,\\ b_1=-\frac{3}{2}q-22,\\ a_1=b_1+9,\end{cases}$$

공차 $p=4$, 첫째항 $b_1=-25, a_1=-16$이다.

그러므로 일반항 $a_n=a_1+(n-1)p=4n-20,\ b_n=b_1+(n-1)q=2n-27$이다.

(2) (1)의 결과를 이용하면 수열 $\{c_n\}$의 일반항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_n=|a_n|-|b_n|=|4n-20|-|2n-27|=\begin{cases}-2n-7, & (n\le 5)\\ 6n-47, & (6\le n\le 13)\\ 2n+7, & (n\ge 14)\end{cases}$$

그러므로 c_n이 최소가 되는 항은 $n=5$이며 최솟값은 $c_5=-17$이다.

(3) (2)의 결과로부터 $n\ge 14$에 대하여 S_n은 다음을 만족한다.

$$\begin{aligned}S_n&=\sum_{k=1}^{n}c_k=\sum_{k=1}^{13}c_k+\sum_{k=14}^{n}c_k\\ &=\sum_{k=1}^{13}c_k+\sum_{k=14}^{n}(2k+7)\\ &=\sum_{k=1}^{13}c_k+2\frac{n(n+1)}{2}+7n-\sum_{k=1}^{13}(2k+7)\end{aligned}$$

그러므로 $\lim_{n\to\infty}\frac{S_n}{n^2}=1$이다.

문제. 03

출제의도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평행이동을 통해 문제를 간단한 형태로 변환한 후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해설

(1) 곡선의 변곡점(예시답안1) 또는 극대(또는 극소)가 되는 곡선 위의 점(예시답안2)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하여 문제를 간단한 형태로 바꾼다.
(2) 간단히 바꾼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3) (2)에서 구한 접선과 곡선의 교점을 구하고 이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4) (2)와 (3)에서 구한 두 접선의 수직 조건으로부터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댓값을 구한다.

평가기준

[예시답안1 기준]

(1) 곡선 $y=f(x)$를 평행이동하여 곡선 $y=g(x),\ g(x)=ax^3+bx$ 형태로 변형한다.

(2) 곡선 $y=g(x)$ 위의 점 $\mathrm{P}_0(t,\ at^3+b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3at^2+b)x-2at^3$이다.

(3) (2)에서 구한 접선과 곡선 $y=g(x)$가 만나는 점 $\mathrm{Q}_0(\neq \mathrm{P}_0)$의 좌표를 구하면 $\mathrm{Q}_0(-2t,\ -8at^3-2bt)$이고, 점 Q_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2at^2+b)x+16at^3$이다.

(4) (2)와 (3)에서 구한 두 접선이 수직이므로

$$(3at^2+b)(12at^2+b)=-1 \ \Leftrightarrow \ t^2=\frac{-5b\pm\sqrt{9b^2-16}}{24a}$$

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실수 t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조건으로부터 $b\le-\frac{4}{3}$를 얻는다. 한편 구하고자 하는 최댓값 M은 곡선 $y=g(x)$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댓값이다. 곡선 $y=g(x)$의 변곡점인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g'(0)=b\le-\frac{4}{3}$이므로 M의 값은 $-\frac{4}{3}$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을 예시답안1, 2처럼 해결하고 (2), (3), (4)까지 모두 구한 경우 (※예시답안3으로 푼 경우 (1) 생략 가능)	S
	(1)을 예시답안1, 2처럼 해결하고 (2), (3), 그리고 (4)의 수직 조건까지만 구한 경우	A
중	(1)을 예시답안1, 2처럼 해결하고 (2), (3)까지만 구한 경우 또는 (1)을 예시답안1, 2처럼 간단히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2), (3), 그리고 (4)의 수직 조건까지만 구한 경우	B
	(1)을 예시답안1, 2처럼 해결하고 (2)와 (3)의 교점의 좌표까지만 구한 경우 또는 (1)을 예시답안1, 2처럼 간단히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2), (3)까지만 구한 경우	C
	(1)을 예시답안1, 2처럼 해결하고 (2)까지만 구한 경우 또는 (1)을 예시답안1, 2처럼 간단히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2)와 (3)의 교점의 좌표까지만 구한 경우	D
하	(1)만 예시답안1, 2처럼 해결한 경우 또는 (1)을 예시답안처럼 간단히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2)의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구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경우	F

예시답안

[예시답안1]

(1)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먼저 곡선 $y=f(x)$를 적당히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2차항을 소거할 수 있고 그후 적당히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다. 따라서 $y=g(x)$에서 삼차함수 $g(x)$의 항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평행이동하면 $g(x)=ax^3+bx\ (a>0)$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1) 위와 다른 풀이로, 먼저 곡선 $y=f(x)$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곡선 $y=f(x)$의 변곡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적당한 양수 α가 존재하여 $x=-\alpha,\ \alpha$에서 각각 x축과 만나므로 $g(x)=ax(x-\alpha)(x+\alpha)=ax^3-a\alpha^2x=ax^3+bx\ (a>0)$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단, $b=-a\alpha^2$)

(2) 곡선 $y=g(x)$ 위의 점 $\mathrm{P}_0(t,\ at^3+b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at^3-bt=(3at^2+b)(x-t) \quad \Leftrightarrow \quad y=(3at^2+b)x-2at^3$$

이다.

(3) (2)에서 구한 접선과 곡선 $y=g(x)$가 만나는 점 Q_0의 x좌표는

$$\begin{aligned} ax^3+bx=(3at^2+b)x-2at^3 &\Leftrightarrow ax^3-3at^2x+2at^3=0 \\ &\Leftrightarrow (x-t)^2(x+2t)=0 \\ &\Leftrightarrow x=t,\ -2t \end{aligned}$$

를 만족하고, 여기서 $\mathrm{Q}_0\neq\mathrm{P}_0$이므로 $t\neq0$이며 Q_0의 좌표는 $\mathrm{Q}_0(-2t,\ -8at^3-2bt)$이다. 따라서 점 Q_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8at^3+2bt=(12at^2+b)(x+2t) \quad \Leftrightarrow \quad y=(12at^2+b)x+16at^3$$

이다.

(4) (2)와 (3)에서 구한 두 접선이 수직이므로

$$\begin{aligned} (3at^2+b)(12at^2+b)=-1 &\Leftrightarrow 36a^2t^4+15abt^2+b^2+1=0 \\ &\Leftrightarrow t^2=\frac{-5b\pm\sqrt{9b^2-16}}{24a} \end{aligned}$$

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실수 t가 존재해야 한다. 즉,

$$\begin{aligned} &9b^2-16\geq0 \text{ 그리고 } (-5b+\sqrt{9b^2-16}>0 \text{ 또는 } -5b-\sqrt{9b^2-16}>0) \\ &\Leftrightarrow 9b^2-16\geq0 \text{ 그리고 } b<0 \\ &\Leftrightarrow b\leq-\frac{4}{3} \end{aligned}$$

를 얻는다. 한편 구하고자 하는 최댓값 M은 곡선 $y=g(x)$의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댓값이다. 곡선 $y=g(x)$의 변곡점을 먼저 구해보면

$$g''(x)=6ax=0 \quad \Leftrightarrow \quad x=0$$

으로부터 원점이 곡선 $y=g(x)$의 변곡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g'(0)=b\leq-\frac{4}{3}$이므로 최댓값 M은 $-\frac{4}{3}$

이다.

[참고사항] $y=x^3-\frac{4}{3}x$일 때, 점 $\mathrm{P}(\frac{\sqrt{10}}{6}, -\frac{19\sqrt{10}}{108})$과 점 $\mathrm{Q}(-\frac{\sqrt{10}}{3}, \frac{2\sqrt{10}}{27})$에서 두 접선의 방정식은

$$y=-\frac{1}{2}x-\frac{5\sqrt{10}}{54}$$

$$y=2x+\frac{20\sqrt{10}}{27}$$

이며 수직이다.

[예시답안2]

(1) 먼저 곡선 $y=f(x)$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함수 $f(x)$는 극댓값과 극솟값을 가져야 한다.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곡선 $y=f(x)$ 위의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하면 $y=g(x)$, $g(x)=ax^3+bx^2$ $(a>0)$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

(2) 곡선 $y=g(x)$ 위의 점 $\mathrm{P}_0(t, at^3+bt^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at^3-bt^2=(3at^2+2bt)(x-t) \quad \Leftrightarrow \quad y=(3at^2+2bt)x-2at^3-bt^2$$

이다.

(3) (2)에서 구한 접선과 곡선 $y=g(x)$가 만나는 점 Q_0의 x좌표는

$$\begin{aligned} ax^3+bx^2=(3at^2+2bt)x-2at^3-bt^2 &\Leftrightarrow ax^3+bx^2-(3at^2+2bt)x+2at^3+bt^2=0 \\ &\Leftrightarrow (x-t)^2(ax+2at+b)=0 \\ &\Leftrightarrow x=t, -2t-\frac{b}{a} \end{aligned}$$

를 만족하고, 여기서 $\mathrm{Q}_0 \neq \mathrm{P}_0$이므로 $t \neq -\frac{b}{3a}$이며 Q_0의 좌표는 $\mathrm{Q}_0(-2t-\frac{b}{a}, -8at^3-8bt^2-\frac{2b^2}{a}t)$이다. 따라서 점 Q_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8at^3+8bt^2+\frac{2b^2}{a}t=(12at^2+8bt+\frac{b^2}{a})(x+2t+\frac{b}{a}) \Leftrightarrow y=(12at^2+8bt+\frac{b^2}{a})x+16at^3+20bt^2+\frac{8b^2}{a}t+\frac{b^3}{a^2}$$

이다.

(4) $g(x)=ax^3+bx^2$를 미분한 $g'(x)=3ax^2+2bx$, $g''(x)=6ax+2b$에서 변곡점의 x좌표는 $-\frac{b}{3a}$이므로 변곡점에서 기울기는 $g'(-\frac{b}{3a})=-\frac{b^2}{3a}$이다. (2)와 (3)에서 구한 두 접선이 수직이므로

$$(3at^2+2bt)(12at^2+8bt+\frac{b^2}{a})=-1 \Leftrightarrow b^3t(3\frac{a}{b}t+2)(6\frac{a}{b}t+1)(2\frac{a}{b}t+1)=-a$$

에서 $s=\frac{a}{b}t$로 치환하여 $h(s)=\frac{b^4}{a}s(3s+2)(6s+1)(2s+1)$로 두면 위 식은 $h(s)=-a$이다.

$$h'(s)=\frac{2b^4}{a}(3s+1)(24s^2+16s+1)=0 \Leftrightarrow s=-\frac{1}{3}, -\frac{1}{3}\pm\frac{\sqrt{10}}{12}$$

이므로 $h(s)$의 최솟값은 $h(-\frac{1}{3}\pm\frac{\sqrt{10}}{12})=-\frac{b^4}{16a}$이다. $h(s)=-a$를 만족하는 실수 s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h(-\frac{1}{3}\pm\frac{\sqrt{10}}{12})=-\frac{b^4}{16a}\leq -a \Leftrightarrow -\frac{b^4}{a^2}\leq -16 \Leftrightarrow -\frac{b^2}{a}\leq -4 \Leftrightarrow g'(-\frac{b}{3a})=-\frac{b^2}{3a}\leq -\frac{4}{3}$$

이다. 그러므로 최댓값 M은 $-\frac{4}{3}$이다.

[예시답안3]

곡선 $y=f(x)=ax^3+bx^2+cx+d\ (a>0)$를 평행이동하지 않고 직접 M의 값을 다음처럼 구할 수도 있다.

$f'(x)=3ax^2+2bx+c$, $f''(x)=6ax+2b$로부터 변곡점의 x좌표를 $-\frac{b}{3a}$로 구한다.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frac{b}{3a})=-\frac{1}{3}(\frac{b^2}{a}-3c)$ 이다. 곡선 $y=f(x)$ 위의 점 $\mathrm{P}(t,\ f(t))$에서 접선 l의 방정식은

$$y-ax^3-bx^2-cx-d=(3at^2+2bt+c)(x-t)$$

이고 접선 l이 곡선 $y=f(x)$와 만나는 점 $\mathrm{Q}(\neq \mathrm{P})$의 x좌표는

$$ax^3+bx^2+cx+d=(3at^2+2bt+c)x-2at^3-bt^2+d \ \Leftrightarrow\ (x-t)^2(ax+2at+b)=0$$
$$\Leftrightarrow\ x=t,\ -2t-\frac{b}{a}$$

를 만족한다. 여기서 $\mathrm{Q}\neq\mathrm{P}$이므로 $t\neq-\frac{b}{3a}$ 이며 따라서 점 Q에서 접선 m의 기울기는

$$f'(-2t-\frac{b}{a})=12at^2+8bt+\frac{b^2}{a}+c$$

이다. 두 직선 l, m이 수직이므로

$$(3at^2+2bt+c)(12at^2+8bt+\frac{b^2}{a}+c)=-1$$

이다. $s=3at^2+2bt$로 치환하여 $h(s)=4s^2+(\frac{b^2}{a}+5c)s+c(\frac{b^2}{a}+c)+1$ 이라 하면 위 식은 $h(s)=0$이 된다. 방정식 $h(s)=0$이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frac{b^2}{a}-3c)^2-16\geq 0$, 즉

$$\frac{b^2}{a}-3c\geq 4 \text{ 또는 } \frac{b^2}{a}-3c\leq -4 \quad \cdots\cdots (*)$$

이어야 한다. 일단 $s=3at^2+2bt$는 t에 관한 이차방정식이므로 $s=3at^2+2bt\geq-\frac{b^2}{3a}$ 인 범위에서 $h(s)=0$의 근이 존재해야 한다.

$h(-\frac{b^2}{3a})=\frac{1}{9}(\frac{b^2}{a}-3c)^2+1>0$이므로 $y=h(s)$의 대칭축 $s=-\frac{\frac{b^2}{a}+5c}{8}$ 이 $s=-\frac{b^2}{3a}$ 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므로

$$-\frac{\frac{b^2}{a}+5c}{8}>-\frac{b^2}{3a} \ \Leftrightarrow\ \frac{b^2}{a}-3c>0$$

을 얻는다. 따라서 (*)에서 $\frac{b^2}{a}-3c\geq 4$이 성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f'(-\frac{b}{3a})=-\frac{1}{3}(\frac{b^2}{a}-3c)\leq-\frac{4}{3}$ 이므로 최댓값 M은 $-\frac{4}{3}$ 이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이차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연립방정식으로 구하고 평면벡터에서의 내적의 정의와 성질을 통하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표현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제시된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최솟값을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해설

1. 이차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방정식의 해로 나타낸다.
2.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θ에 대하여 $\cos\theta$ 값을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한다.
3.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코사인 값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
4. 이차함수의 최솟값의 성질을 이용하여 $\cos\theta$의 최댓값과 각도 θ의 최솟값을 구하고 그때의 k의 값을 얻는다.
5. 이 k값을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교점 Q_1, Q_2의 좌표를 구한다.

평가기준

[1단계] 이차함수 $y=x^2+\left(\frac{1}{3}-2k\right)x+k$과 직선 $y=x$의 교점의 x좌표는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 $x^2-2\left(\frac{1}{3}+k\right)x+k=0$의 해이다.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frac{D}{4}=\left(k+\frac{1}{3}\right)^2-k=\left(k-\frac{1}{6}\right)^2+\frac{1}{12}>0$이므로 두 실수해 α, β를 가진다. 이 경우 두 교점은 점 $\mathrm{Q}_1(\alpha,\ \alpha)$과 점 $\mathrm{Q}_2(\beta,\ \beta)$이다.

[2단계] 벡터 $\vec{a}=\overrightarrow{\mathrm{PQ}_1}=(\alpha,\alpha-1)$, $\vec{b}=\overrightarrow{\mathrm{PQ}_2}=(\beta,\beta-1)$ 라고 놓으면, 제시문 [다]에 의하여 다음을 얻는다.

$$\cos\theta=\frac{\vec{a}\cdot\vec{b}}{|\vec{a}||\vec{b}|}=\frac{\alpha\beta+(\alpha-1)(\beta-1)}{\sqrt{\alpha^2+(\alpha-1)^2}\ \sqrt{\beta^2+(\beta-1)^2}}$$

[3단계] 두 수 α, β는 $x^2-2\left(\frac{1}{3}+k\right)x+k=0$의 해이므로, 제시문 [나]에 의하여 $\alpha+\beta=2k+\frac{2}{3}$, $\alpha\beta=k$이다.

$\cos\theta$의 값에 대한 위의 식을 정리하면 다음을 얻는다.

$$\cos\theta=\frac{\alpha\beta+(\alpha-1)(\beta-1)}{\sqrt{\alpha^2+(\alpha-1)^2}\ \sqrt{\beta^2+(\beta-1)^2}}=\frac{2\alpha\beta-\alpha-\beta+1}{\sqrt{4\alpha^2\beta^2-2(2\alpha\beta-\alpha-\beta+1)(\alpha+\beta)+1}}=\frac{1}{\sqrt{(6k-1)^2+4}}$$

이때 $\cos\theta>0$이므로 $0\le\theta<\frac{\pi}{2}$임을 확인할 수 있다.

[4단계] $\frac{1}{4\cos^2\theta}=9\left(k-\frac{1}{6}\right)^2+1$이므로 제시문 [가]에 의하여 $k=\frac{1}{6}$일 때, $\frac{1}{4\cos^2\theta}$는 최솟값 1을 가진다.

$\cos\theta$는 양수이므로 그때의 $\cos\theta$의 최댓값은 $\frac{1}{2}$이고 θ의 최솟값은 $\frac{\pi}{3}$이다.

[5단계] $k=\frac{1}{6}$일 때, 연립방정식 $x^2-x+\frac{1}{6}=0$을 풀면 $\alpha=\frac{3+\sqrt{3}}{6}$, $\beta=\frac{3-\sqrt{3}}{6}$ (또는 $\alpha=\frac{3-\sqrt{3}}{6}$, $\beta=\frac{3+\sqrt{3}}{6}$)으로 점 Q_1, Q_2의 좌표는 $\left(\frac{3+\sqrt{3}}{6}, \frac{3+\sqrt{3}}{6}\right)$, $\left(\frac{3-\sqrt{3}}{6}, \frac{3-\sqrt{3}}{6}\right)$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이 매끄럽고 모든 소문항의 답을 정확하게 얻은 경우	S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작성하고 모든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A
중	[1단계]부터 [5단계] 중 네 단계를 작성하고 2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B
	[1단계]부터 [5단계] 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1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C
	[1단계]부터 [5단계] 중 두 단계를 작성한 경우	D
하	[1단계]부터 [5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이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이차함수 $y=x^2+\left(\frac{1}{3}-2k\right)x+k$과 직선 $y=x$의 교점의 x좌표는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 $x^2-2\left(\frac{1}{3}+k\right)x+k=0$의 해이다.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frac{D}{4}=\left(k+\frac{1}{3}\right)^2-k=\left(k-\frac{1}{6}\right)^2+\frac{1}{12}>0$이므로 두 실수해 α, β를 가진다. 이 경우 두 교점은 점 $Q_1(\alpha, \alpha)$과 점 $Q_2(\beta, \beta)$이다. 벡터 $\vec{a}=\overrightarrow{PQ_1}=(\alpha, \alpha-1)$, $\vec{b}=\overrightarrow{PQ_2}=(\beta, \beta-1)$ 라고 놓으면, 제시문 [다]에 의하여 $\cos\theta=\frac{\vec{a}\cdot\vec{b}}{|\vec{a}||\vec{b}|}=\frac{\alpha\beta+(\alpha-1)(\beta-1)}{\sqrt{\alpha^2+(\alpha-1)^2}\sqrt{\beta^2+(\beta-1)^2}}$ 다. 두 수 α, β는 제시문 [나]에 의하여 $\alpha+\beta=2k+\frac{2}{3}$, $\alpha\beta=k$이다. 따라서 $\cos\theta$의 값에 대한 위의 식을 정리하면

$$\cos\theta=\frac{\alpha\beta+(\alpha-1)(\beta-1)}{\sqrt{\alpha^2+(\alpha-1)^2}\sqrt{\beta^2+(\beta-1)^2}}=\frac{2\alpha\beta-\alpha-\beta+1}{\sqrt{4\alpha^2\beta^2-2(2\alpha\beta-\alpha-\beta+1)(\alpha+\beta)+1}}=\frac{1}{\sqrt{(6k-1)^2+4}}$$

이다.

(2) $\frac{1}{4\cos^2\theta}=9\left(k-\frac{1}{6}\right)^2+1$이므로 제시문 [가]에 의하여 $k=\frac{1}{6}$일 때, $\frac{1}{4\cos^2\theta}$는 최솟값 1을 가진다. $\cos\theta>0$이므로 $\cos\theta$의 최댓값은 $\frac{1}{2}$이고 θ의 최솟값은 $\frac{\pi}{3}$이다.

(3) $k=\frac{1}{6}$일 때, 연립방정식 $x^2-x+\frac{1}{6}=0$을 풀면 $\alpha=\frac{3+\sqrt{3}}{6}$, $\beta=\frac{3-\sqrt{3}}{6}$ (또는 $\alpha=\frac{3-\sqrt{3}}{6}$, $\beta=\frac{3+\sqrt{3}}{6}$) 으로 점 Q_1, Q_2 의 좌표는 $\left(\frac{3+\sqrt{3}}{6}, \frac{3+\sqrt{3}}{6}\right)$, $\left(\frac{3-\sqrt{3}}{6}, \frac{3-\sqrt{3}}{6}\right)$이다.

문제. 03

출제의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곡선을 찾고, 두 곡선이 이루는 교점, 곡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적분의 정의를 활용한 적분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문제해설

1.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구한다.
2. 방정식을 이용하여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한다.
3.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교점들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4. 정적분을 이용하여 두 곡선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5. 급수의 합의 극한을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구한다.

평가기준

[1단계]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lpha-\beta)^2=(\alpha+\beta)^2-4\alpha\beta=81n^2-80n(\alpha-\beta)$이고 $(\alpha-\beta)^2+80n(\alpha-\beta)-81n^2=0$을 만족한다. $\alpha-\beta>0$이므로 만족하는 해는 $\alpha-\beta=n$이고 곡선은 $y=x^2-9nx+20n^2,\ y=\dfrac{12n^3}{x}$이다.

[2단계] 두 곡선의 교점을 찾기 위하여 $x^2-9nx+20n^2=\dfrac{12n^3}{x}$라 두자. 식을 정리하면 $x^3-9nx^2+20n^2x=12n^3$이 되고 인수분해 하면 $(x-n)(x-2n)(x-6n)=0$이다. 따라서, $x=n$ 또는 $x=2n$ 또는 $x=6n$이다.

[3단계] 교점은 $(n,\ 12n^2),\ (2n,\ 6n^2),\ (6n,\ 2n^2)$이며 두 점 $(n,\ 12n^2),\ (6n,\ 2n^2)$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2nx+14n^2$이다. 점 $(2n,\ 6n^2)$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d=\dfrac{|2n(2n)+1(6n^2)-14n^2|}{\sqrt{(2n)^2+1^2}}=\dfrac{4n^2}{\sqrt{4n^2+1}}$, 두 점 $(n,\ 12n^2),\ (6n,\ 2n^2)$사이의 거리는 $h=5n\sqrt{1+4n^2}$이다. 그러므로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A_n=\dfrac{dh}{2}=10n^3$이다.

[4단계] 위의 결과로부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_n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S_n &= \int_n^{6n}\left|x^2-9nx+20n^2-\frac{12n^3}{x}\right|dx \\
&= \int_n^{2n}\left(x^2-9nx+20n^2-\frac{12n^3}{x}\right)dx-\int_{2n}^{6n}\left(x^2-9nx+20n^2-\frac{12n^3}{x}\right)dx \\
&= \left[\frac{x^3}{3}\right]_n^{2n}-9n\left[\frac{x^2}{2}\right]_n^{2n}+20n^2[x]_n^{2n}-12n^3[\ln|x|]_n^{2n}-\left[\frac{x^3}{3}\right]_{2n}^{6n}+9n\left[\frac{x^2}{2}\right]_{2n}^{6n}-20n^2[x]_{2n}^{6n}+12n^3[\ln|x|]_{2n}^{6n} \\
&= \frac{7}{3}n^3-\frac{27}{2}n^3+20n^3-12n^3\ln 2-\frac{208}{3}n^3+144n^3-80n^3+12n^3\ln 3
\end{aligned}$$

식을 정리 하면 $S_n=\dfrac{7}{2}n^3+12n^3\ln\dfrac{3}{2}=\left(\dfrac{7}{2}+12\ln\dfrac{3}{2}\right)n^3$이다.

[5단계] 제시문 [다]에 의하여

$$\begin{aligned}
\lim_{n\to\infty}\frac{1}{n^7}\sum_{k=1}^{n}S_kA_{2k} &= 10\left(\frac{7}{2}+12\ln\frac{3}{2}\right)\lim_{n\to\infty}\sum_{k=1}^{n}\left(\frac{k}{n}\right)^3\left(\frac{2k}{2n}\right)^3\frac{2^3}{n} \\
&= 80\left(\frac{7}{2}+12\ln\frac{3}{2}\right)\int_0^1 x^6dx=\frac{80}{7}\left(\frac{7}{2}+12\ln\frac{3}{2}\right)=40+\frac{960}{7}\ln\frac{3}{2}
\end{aligned}$$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이 매끄럽고 모든 소문항의 답을 정확하게 얻은 경우	S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작성하고 모든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A
중	[1단계]부터 [5단계] 중 네 단계를 작성하고 3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B
	[1단계]부터 [5단계] 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2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C
	[1단계]부터 [5단계] 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1개의 소문항의 답을 얻은 경우	D
하	[1단계]부터 [5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이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lpha-\beta)^2=(\alpha+\beta)^2-4\alpha\beta=81n^2-80n(\alpha-\beta)$이고
$(\alpha-\beta)^2+80n(\alpha-\beta)-81n^2=0$을 만족한다. $\alpha-\beta>0$이므로 만족하는 해는 $\alpha-\beta=n$이고 곡선은
$y=x^2-9nx+20n^2,\ \ y=\dfrac{12n^3}{x}$이다.

두 곡선의 교점을 찾기 위하여 $x^2-9nx+20n^2=\dfrac{12n^3}{x}$라 두자. 식을 정리하면 $x^3-9nx^2+20n^2x=12n^3$이 되고 인수분해
하면 $(x-n)(x-2n)(x-6n)=0$이다.
따라서, $x=n$ 또는 $x=2n$ 또는 $x=6n$이다.

(2) 교점은 $(n,\ 12n^2),\ (2n,\ 6n^2),\ (6n,\ 2n^2)$이며 두 점 $(n,\ 12n^2),\ (6n,\ 2n^2)$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2nx+14n^2$이다.
점 $(2n,\ 6n^2)$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d=\dfrac{|2n(2n)+1(6n^2)-14n^2|}{\sqrt{(2n)^2+1^2}}=\dfrac{4n^2}{\sqrt{4n^2+1}}$, 두 점 $(n,\ 12n^2),\ (6n,\ 2n^2)$사이의 거리는
$h=5n\sqrt{1+4n^2}$이다. 그러므로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A_n=\dfrac{dh}{2}=10n^3$이다.

(3) 위의 결과로부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_n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S_n&=\int_n^{6n}\left|x^2-9nx+20n^2-\frac{12n^3}{x}\right|dx\\
&=\int_n^{2n}\left(x^2-9nx+20n^2-\frac{12n^3}{x}\right)dx-\int_{2n}^{6n}\left(x^2-9nx+20n^2-\frac{12n^3}{x}\right)dx\\
&=\left[\frac{x^3}{3}\right]_n^{2n}-9n\left[\frac{x^2}{2}\right]_n^{2n}+20n^2[x]_n^{2n}-12n^3[\ln|x|]_n^{2n}-\left[\frac{x^3}{3}\right]_{2n}^{6n}+9n\left[\frac{x^2}{2}\right]_{2n}^{6n}-20n^2[x]_{2n}^{6n}+12n^3[\ln|x|]_{2n}^{6n}\\
&=\frac{7}{3}n^3-\frac{27}{2}n^3+20n^3-12n^3\ln 2-\frac{208}{3}n^3+144n^3-80n^3+12n^3\ln 3
\end{aligned}$$

식을 정리 하면 $S_n=\dfrac{7}{2}n^3+12n^3\ln\dfrac{3}{2}=\left(\dfrac{7}{2}+12\ln\dfrac{3}{2}\right)n^3$이다.

(4) 제시문 [다]에 의하여

$$\begin{aligned}
\lim_{n\to\infty}\frac{1}{n^7}\sum_{k=1}^{n}S_kA_{2k}&=10\left(\frac{7}{2}+12\ln\frac{3}{2}\right)\lim_{n\to\infty}\sum_{k=1}^{n}\left(\frac{k}{n}\right)^3\left(\frac{2k}{2n}\right)^3\frac{2^3}{n}\\
&=80\left(\frac{7}{2}+12\ln\frac{3}{2}\right)\int_0^1x^6dx=\frac{80}{7}\left(\frac{7}{2}+12\ln\frac{3}{2}\right)=40+\frac{960}{7}\ln\frac{3}{2}
\end{aligned}$$

이다.

2024학년도 [자연계열] 문제해설

문제. 01

출제의도

방정식을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초점, 꼭짓점,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문제해설

(1) 제시문 [가]는 평행이동에 따라 타원의 방정식과 타원의 초점과 꼭짓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였다.
(2) 제시문 [나]는 평행이동에 따라 포물선의 방정식과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였다.
(3) 제시문 [다]는 평행이동에 따라 쌍곡선의 방정식과 쌍곡선의 중심, 초점, 꼭짓점,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였다.
(4) [문제1]은 주어진 방정식을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변환하고, 변환한 이차 곡선의 초점, 꼭짓점, 준선, 점근선 등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기준

[1단계] $k=0$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1$ 이므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2단계] $k=\frac{1}{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left(\frac{1}{2}x+1\right)^2$이므로

$$\frac{3}{4}x^2-x+y^2=1,\ \frac{3}{4}\left(x-\frac{2}{3}\right)^2+y^2=\frac{4}{3},\ \frac{\left(x-\frac{2}{3}\right)^2}{\frac{16}{9}}+\frac{y^2}{\frac{4}{3}}=1$$

이다. 따라서, $k=\frac{1}{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타원 $\frac{x^2}{\frac{16}{9}}+\frac{y^2}{\frac{4}{3}}=1$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frac{2}{3}$만큼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

제시문 [가]에서 $a=\frac{4}{3},\ b=\frac{2\sqrt{3}}{3},\ c=\sqrt{a^2-b^2}=\frac{2}{3}$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left(\frac{4}{3},0\right),(0,0)$이고, 꼭짓점의 좌표는

$(2,0),\left(-\frac{2}{3},0\right),\left(\frac{2}{3},\frac{2\sqrt{3}}{3}\right),\left(\frac{2}{3},-\frac{2\sqrt{3}}{3}\right)$이 된다.

[3단계] $k=1$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x+1)^2$ 이므로

$$y^2=2x+1=2\left(x+\frac{1}{2}\right)$$

이다. 따라서, $k=1$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포물선 $y^2=2x$을 x축의 방향으로 $-\frac{1}{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된다. 제시문 [나]에서 $p=\frac{1}{2}$가 되므로 초점의 좌표는 $(0,0)$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x=-1$이다.

[4단계] $k=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2x+1)^2$ 이므로

$$3x^2+4x-y^2=-1,\ 3\left(x+\frac{2}{3}\right)^2-y^2=\frac{1}{3},\ \frac{\left(x+\frac{2}{3}\right)^2}{\frac{1}{9}}-\frac{y^2}{\frac{1}{3}}=1$$

이다. 따라서, $k=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 $\frac{x^2}{\frac{1}{9}}-\frac{y^2}{\frac{1}{3}}=1$을 x축의 방향으로 $-\frac{2}{3}$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이 된다.

제시문 [다]에서 $a=\frac{1}{3}$, $b=\frac{\sqrt{3}}{3}$, $c=\sqrt{a^2+b^2}=\frac{2}{3}$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0,0)$, $\left(-\frac{4}{3},0\right)$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pm\sqrt{3}\left(x+\frac{2}{3}\right)$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작성하고 세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A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작성하고 두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B
	[1단계]부터 [4단계]중 세 단계를 작성하고 두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C
	[1단계]부터 [4단계]중 두 단계를 작성하고 한 단계 이상 논증이 매끄러운 경우	D
하	[1단계]부터 [4단계] 중에서 어느 한 단계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이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k=0$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1$ 이므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2) $k=\frac{1}{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left(\frac{1}{2}x+1\right)^2$이므로

$$\frac{3}{4}x^2-x+y^2=1,\ \frac{3}{4}\left(x-\frac{2}{3}\right)^2+y^2=\frac{4}{3},\ \frac{\left(x-\frac{2}{3}\right)^2}{\frac{16}{9}}+\frac{y^2}{\frac{4}{3}}=1$$

이다. 따라서, $k=\frac{1}{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타원 $\frac{x^2}{\frac{16}{9}}+\frac{y^2}{\frac{4}{3}}=1$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frac{2}{3}$만큼 평행이동한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

제시문 [가]에서 $a=\frac{4}{3}$, $b=\frac{2\sqrt{3}}{3}$, $c=\sqrt{a^2-b^2}=\frac{2}{3}$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left(\frac{4}{3},0\right),(0,0)$이고, 꼭짓점의 좌표는 $(2,0),\left(-\frac{2}{3},0\right),\left(\frac{2}{3},\frac{2\sqrt{3}}{3}\right),\left(\frac{2}{3},-\frac{2\sqrt{3}}{3}\right)$이 된다.

(3) $k=1$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x+1)^2$ 이므로

$$y^2=2x+1=2\left(x+\frac{1}{2}\right)$$

이다. 따라서, $k=1$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포물선 $y^2=2x$을 x축의 방향으로 $-\frac{1}{2}$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된다. 제시문 [나]에서 $p=\frac{1}{2}$가 되므로 초점의 좌표는 $(0,0)$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x=-1$이다.

(4) $k=2$ 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x^2+y^2=(2x+1)^2$ 이므로

$$3x^2+4x-y^2=-1,\ 3\left(x+\frac{2}{3}\right)^2-y^2=\frac{1}{3},\ \frac{\left(x+\frac{2}{3}\right)^2}{\frac{1}{9}}-\frac{y^2}{\frac{1}{3}}=1$$

이다. 따라서, $k=2$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쌍곡선 $\frac{x^2}{\frac{1}{9}}-\frac{y^2}{\frac{1}{3}}=1$을 x축의 방향으로 $-\frac{2}{3}$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이 된다.

제시문 [다]에서 $a=\frac{1}{3}$, $b=\frac{\sqrt{3}}{3}$, $c=\sqrt{a^2+b^2}=\frac{2}{3}$이므로, 초점의 좌표는 $(0,0)$, $\left(-\frac{4}{3},0\right)$이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pm\sqrt{3}\left(x+\frac{2}{3}\right)$이다.

문제. 02

출제의도

[문제2]는 고등학교 미적분의 역함수 미분법, 탄젠트의 덧셈정리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미분을 이용하여 최솟값을 구하고 치환적분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해설

[문제2]의 (1)은 기울기와 탄젠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역함수 미분법과 탄젠트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문제이다. [문제2]의 (2)는 미분를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함수의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이며 (3)은 치환적분법을 활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평가기준

[1단계] 곡선 $y=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cos t+4$이고, 이 접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α라고 하면 $\tan\alpha=f'(t)=\cos t+4$이다. 또한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곡선 $y=f-1(x)$ 위의 점 $(f(t),\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rac{1}{f'(t)}$이고, 이 접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β라고 하면 $\tan\beta=\frac{1}{f'(t)}$이다.

[2단계] 그러므로 $g(t)=\tan\theta=\tan(\alpha-\beta)=\frac{\tan\alpha-\tan\beta}{1+\tan\alpha\tan\beta}=\frac{(f'(t))^2-1}{2f'(t)}$이다.

$f'(\frac{\pi}{2})=4$이므로 $g(\frac{\pi}{2})=\frac{15}{8}$이다.

[3단계] $g(t)=\frac{(\cos t+4)^2-1}{2(\cos t+4)}$에서 $\cos t+4=s\ (3\le s\le 5)$로 치환하면 $g(t)$의 최솟값은 $h(s)=\frac{s^2-1}{2s}\ (3\le s\le 5)$의 최솟값과 같다. $h'(s)=\frac{1+s^2}{2s^2}>0$이므로 $h(s)$는 구간 $[3,\ 5]$에서 증가함수이다.

[4단계] $s=3$일 때, 함수 $g(t)$의 최솟값은 $h(3)=\frac{4}{3}$이다.

[5단계] $x=f(t)\ (0\le t\le 2\pi)$와 제시문 [다]를 이용하면

$$\int_{f(0)}^{f(2\pi)} g(f^{-1}(x))\,dx=\int_0^{2\pi} g(t)f'(t)\,dt$$

[6단계] 그런데 $g(t)=\frac{(f'(t))^2-1}{2f'(t)}$이고 $f'(t)=\cos t+4$이므로

$\int_{f(0)}^{f(2\pi)} g(f^{-1}(x))dx=\int_0^{2\pi}\frac{1}{2}((\cos t+4)^2-1)dt=\frac{1}{2}\int_0^{2\pi}(\cos^2 t+8\cos t+15)dt$이고

$\int_0^{2\pi}\cos^2 t\,dt=\int_0^{2\pi}\frac{\cos 2t+1}{2}\,dt=\left[\frac{\sin 2t}{4}+\frac{t}{2}\right]_0^{2\pi}=\pi$, $\int_0^{2\pi}\cos t\,dt=[\sin t]_0^{2\pi}=0$이다.

따라서 $\int_{f(0)}^{f(2\pi)} g(f^{-1}(x))dx=\frac{1}{2}\int_0^{2\pi}(\cos^2 t+8\cos t+15)dt=\frac{31\pi}{2}$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1단계]부터 [6단계]까지 5 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A
중	[1단계]부터 [6단계]까지 4 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B
	[1단계]부터 [6단계]까지 3 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C
	[1단계]부터 [6단계]까지 2 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D
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1 단계만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이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1) 곡선 $y=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cos t+4$이고, 이 접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α라고 하면 $\tan\alpha=f'(t)=\cos t+4$이다. 또한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 곡선 $y=f^{-1}(x)$ 위의 점 $(f(t),\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rac{1}{f'(t)}$이고, 이 접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β라고 하면 $\tan\beta=\frac{1}{f'(t)}$이다.

그러므로 $g(t)=\tan\theta=\tan(\alpha-\beta)=\frac{\tan\alpha-\tan\beta}{1+\tan\alpha\tan\beta}=\frac{(f'(t))^2-1}{2f'(t)}$이다. $f'(\frac{\pi}{2})=4$이므로 $g(\frac{\pi}{2})=\frac{15}{8}$이다.

(2) $g(t)=\frac{(\cos t+4)^2-1}{2(\cos t+4)}$에서 $\cos t+4=s\ (3\le s\le 5)$로 치환하면 $g(t)$의 최솟값은 $h(s)=\frac{s^2-1}{2s}\ (3\le s\le 5)$의 최솟값과 같다.

$h'(s)=\frac{1+s^2}{2s^2}>0$이므로 $h(s)$는 구간 $[3,\ 5]$에서 증가함수이고, $s=3$일 때, 함수 $g(t)$의 최솟값은 $h(3)=\frac{4}{3}$이다.

(3) $x=f(t)\ (0\le t\le 2\pi)$와 제시문 [다]를 이용하면

$\int_{f(0)}^{f(2\pi)} g(f^{-1}(x))\,dx=\int_0^{2\pi} g(t)f'(t)dt$ 이다.

그런데 $g(t)=\frac{(f'(t))^2-1}{2f'(t)}$이고 $f'(t)=\cos t+4$이므로

$\int_{f(0)}^{f(2\pi)} g(f^{-1}(x))dx=\int_0^{2\pi}\frac{1}{2}((\cos t+4)^2-1)dt=\frac{1}{2}\int_0^{2\pi}(\cos^2 t+8\cos t+15)dt$이고

$\int_0^{2\pi}\cos^2 t\,dt=\int_0^{2\pi}\frac{\cos 2t+1}{2}\,dt=\left[\frac{\sin 2t}{4}+\frac{t}{2}\right]_0^{2\pi}=\pi$, $\int_0^{2\pi}\cos t\,dt=[\sin t]_0^{2\pi}=0$이다.

따라서 $\int_{f(0)}^{f(2\pi)} g(f^{-1}(x))dx=\frac{1}{2}\int_0^{2\pi}(\cos^2 t+8\cos t+15)dt=\frac{31\pi}{2}$이다.

문제. 03

출제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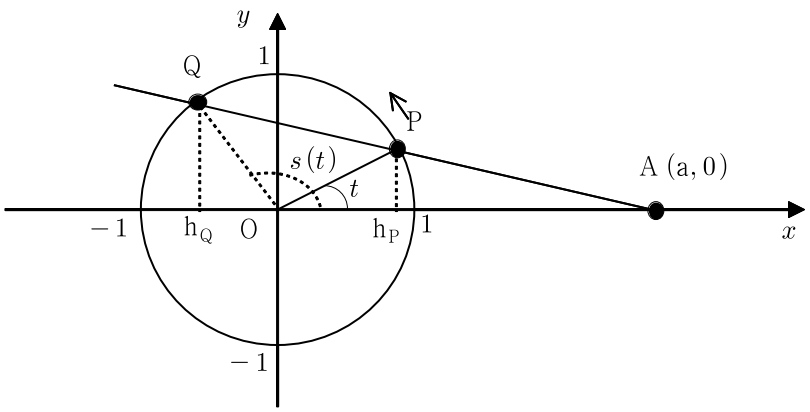
[문제3]은 좌표평면에서 특정한 점의 위치를 시각 t에 대해 나타내고, 이를 시각 t에 대해 미분함으로써 이 점에서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속도 계산 과정에서 음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주안을 두어 평가한다. 또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통해 주어진 함수를 나타내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문제해설

(1) 문항(1)은 점 Q, P, $\mathrm{A}(a, 0)$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이 관계식으로부터 시각 t에서 점 Q의 속도를 구하며, 이를 통하여 Q가 주어진 위치에 도착할 때의 속력을 계산한다.
(2) 문항(2)는 점 Q가 $(0, 1)$일 때, 삼각함수의 덧셈공식을 이용하여 t_0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a에 관한 함수로 표현된 속력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속력의 최댓값을 구한다.

평가기준

[1단계]



위 그림과 같이 시각 t에 원점 O와 점 Q를 잇는 직선 OQ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s(t)$라 하자. Q는 원 위를 움직이므로, Q의 좌표는 $(\cos s(t),\ \sin s(t))$이고, 속력은 $\sqrt{(\sin^2 s(t)+\cos^2 s(t))(\frac{ds}{dt})^2} = \left|\frac{ds}{dt}\right|$이다. 점 Q, P로부터 각각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mathrm{h_Q}$, $\mathrm{h_P}$라 하면, $\angle \mathrm{QAh_Q} = \angle \mathrm{PAh_p}$이므로, $\tan(\angle \mathrm{QAh_Q}) = \tan(\angle \mathrm{PAh_p})$이고, 다음을 얻는다.

$$\frac{\sin s(t)}{a-\cos s(t)} = \frac{\sin t}{a-\cos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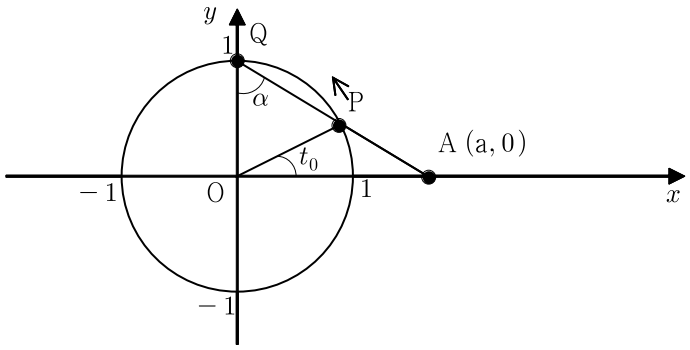
[2단계] 이를 정리하면 $(a-\cos t)\sin s(t) - \sin t(a-\cos s(t)) = 0$이고, 음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sin t \sin s(t) + (a-\cos t)\cos s(t)\frac{ds}{dt} - \cos t(a-\cos s(t)) - \sin t \sin s(t)\frac{ds}{dt} = 0$$

점 Q가 점 $(0,\ 1)$을 지날 때, $s(t)=\frac{\pi}{2}$ 이므로 $\sin s(t)=1,\ \cos s(t)=0$이고, $t=t_0$이므로, 이를 위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t=t_0$에서 Q의 속력은 $\left|\frac{ds}{dt}\right|=\left|1-a\frac{\cos t_0}{\sin t_0}\right|$ 이다.

[3단계]



위 그림과 같이 점 Q의 위치가 $(0,\ 1)$인 상황에서 $\angle AQO=\alpha$라 하면, $\tan\alpha=a$이다.

한편, 직선 OQ와 직선 OP의 길이가 같으므로 $\angle QPO=\alpha$이고, $t_0+\frac{\pi}{2}=2\alpha$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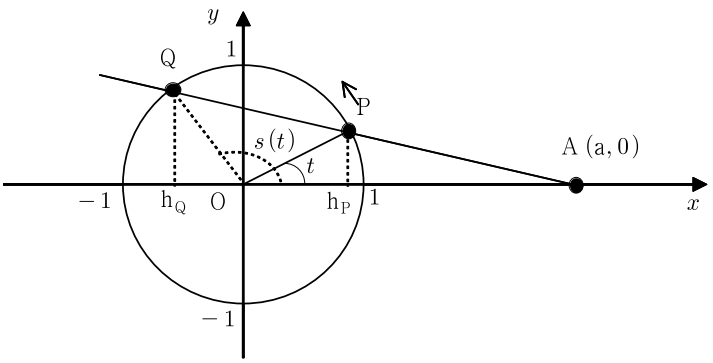
따라서, $\frac{\cos(2\alpha-\frac{\pi}{2})}{\sin(2\alpha-\frac{\pi}{2})}=\frac{\sin(2\alpha)}{-\cos(2\alpha)}=-\tan 2\alpha=-\frac{2\tan\alpha}{1-\tan^2\alpha}=\frac{2a}{a^2-1}$ 이고,

Q의 속력은 $\left|1-\frac{2a^2}{a^2-1}\right|=\left|-1-\frac{2}{a^2-1}\right|=1+\frac{2}{a^2-1}$ ($a\geq 2$이므로)이다.

[4단계] $1+\frac{2}{a^2-1}$ 는 $2\leq a\leq 3$에서 감소함수이므로, 점 Q의 속력은 $a=2$일 때 최대이고, 그 값은 $1+\frac{2}{3}=\frac{5}{3}$ 이다.

	평가 기준	배점
상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논증을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S
	모든 단계를 잘 작성하였으나 [3단계] 답에서 절대값 생략하거나 [4단계]에서 논증이 부족할 경우	A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B
	[1단계]부터 [2단계]까지 논증이 매끄럽게 작성한 경우	C
	[1단계]부터 [2단계]의 음함수 표현까지 올바르게 작성한 경우	D
하	[1단계]까지만 작성한 경우	E
	어느 단계의 일부분도 논증이 매끄럽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 백지인 경우	F

예시답안



[문항 (1) 풀이]

위 그림과 같이 시각 t에 원점 O와 점 Q를 잇는 직선 OQ와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s(t)$라 하자. Q는 원 위를 움직이므로, Q의 좌표는 $(\cos s(t),\ \sin s(t))$이고, 속력은 $\sqrt{(\sin^2 s(t)+\cos^2 s(t))(\frac{ds}{dt})^2} = \left|\frac{ds}{dt}\right|$이다. 점 Q, P로부터 각각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_Q, h_P라 하면, $\angle QAh_Q = \angle PAh_P$이므로, $\tan(\angle QAh_Q)=\tan(\angle PAh_P)$이고, 다음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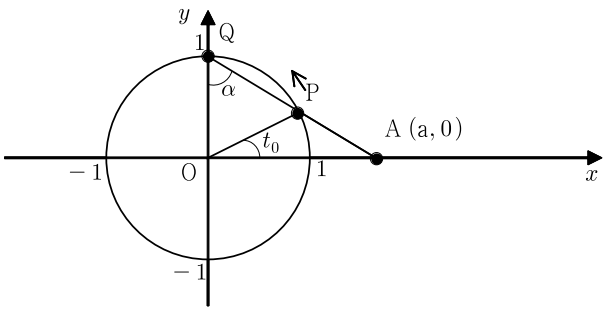
$$\frac{\sin s(t)}{a-\cos s(t)} = \frac{\sin t}{a-\cos t}$$

이를 정리하면 $(a-\cos t)\sin s(t)-\sin t(a-\cos s(t))=0$이고, 음함수의 미분법에 의해

$$\sin t \sin s(t)+(a-\cos t)\cos s(t)\frac{ds}{dt}-\cos t(a-\cos s(t))-\sin t \sin s(t)\frac{ds}{dt}=0$$

점 Q 가 점 $(0,\ 1)$을 지날 때, $s(t)=\frac{\pi}{2}$이므로 $\sin s(t)=1,\ \cos s(t)=0$이고, $t=t_0$이므로, 이를 위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t=t_0$에서 Q의 속력은 $\left|\frac{ds}{dt}\right| = \left|1-a\frac{\cos t_0}{\sin t_0}\right|$이다.



위 그림과 같이 점 Q의 위치가 $(0,\ 1)$인 상황에서 $\angle AQO=\alpha$라 하면, $\tan\alpha=a$이다. 한편, 직선 OQ와 직선 OP의 길이가 같으므로 $\angle QPO=\alpha$이고, $t_0+\frac{\pi}{2}=2\alpha$가 성립한다.

따라서, $\frac{\cos(2\alpha-\frac{\pi}{2})}{\sin(2\alpha-\frac{\pi}{2})} = \frac{\sin(2\alpha)}{-\cos(2\alpha)} = -\tan 2\alpha = -\frac{2\tan\alpha}{1-\tan^2\alpha} = \frac{2a}{a^2-1}$이고,

Q의 속력은 $\left|1-\frac{2a^2}{a^2-1}\right| = \left|-1-\frac{2}{a^2-1}\right| = 1+\frac{2}{a^2-1}$ $(a\geq 2$이므로$)$이다.

[문항 (2) 풀이]

$1+\frac{2}{a^2-1}$는 $2\leq a\leq 3$에서 감소함수이므로, 점 Q의 속력은 $a=2$일 때 최대이고, 그 값은 $1+\frac{2}{3}=\frac{5}{3}$ 이다.

※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 간선버스 : 144, 301, 420
-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자가용 –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 ■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극장 4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 용산방면 : 남산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 ■ 동대문방면 : 장충체육관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국대학교 120주년

3종 가이드북

2027
동국대학교

논술전형 가이드북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입학처 입학실
Tel. 02-2260-8861 **Fax.** 02-2260-3969 **http://ipsi.dongguk.edu**